

4. 동요회(同耀會)

1) 동요회 설립 관련기사

[1-1]

청년 귀족 회합, 동요회를 조직, 시국부익(時局扶翼)을 목표로

남북중국을 싸고도는 협약 시국을 철저히 인식하며 적응 선처하고자 재경조선인 귀족 유지들이 분기하여 25일 오후 4시부터 조신히에서 시국단체 동요회를 조직하였다. 그 내용인즉 현하 비상시국에 대하여 각 층 각 방면에서 거의 총동원적으로 각종 활동을 맹렬히 계속하고 있으나 오직 조선귀족에게서만 하등 표면적 활동이 없음을 절실히 느낀 이병길(李丙吉) 후작, 박부양(朴富陽) 자작, 김호규(金虎圭) 자작, 한상억(韓相億) 남작 등 10여 명의 발기로 시국 인식의 철저, 충후후원의 전력, 동양평화의 실현, 황운부익에 적성 등 기치를 내세우고 금후 맹렬한 활동을 계속할 터이러는데 이것은 종래 조선에 보지 못하던 회합으로 동 회의 주장과 당일 출석한 발기인은 다음과 같다.

◇ 동요회 주장

1. 우리 귀족유지는 시국의 인식을 깊이하고 애국의 적성(赤誠)을 다하여 황운(皇運) 부익(扶翼)¹⁵⁾을 주지(主旨)로 한다.
2. 우리는 일반 민중에 호소하여 내선일체의 결실을 거둬으로써 동양평화의 실현에 기여한다.
3. 우리는 동족간의 친목을 돈독케 하고 결합을 공고히 하여 국체의 명철을 도모하여 황실의 번영(蕃屏)¹⁶⁾으로서의 사명 달성에 용왕매진(勇往邁進)한다.

◇ 동요회 발기인

이병길(李丙吉) 후작, 고흥겸(高興謙) 백작, 이기용(李琦鎔) 자작

15) 보호하고 도우미라는 뜻.

16) 울타리나 대문 앞의 가림 담장을 뜻함.

이창훈(李昌薰) 자작, 이홍묵(李鴻默) 자작, 박부양(朴富陽) 자작
김호규(金虎圭) 자작, 민영옥(閔泳頊) 남작, 박승원(朴勝遠) 남작
최정원(崔正源) 남작, 한상억(韓相億) 남작

◇ 동요회 역원

이사장	후작 이병길
이 사	자작 이홍묵
동	자작 박부양
동	자작 김호규
동	남작 한상억

〈출전 : 靑年貴族會合, 同耀會를 組織, 時局扶翼을 目標로, 『朝鮮日報』, 1937년 8월 27일〉

[1-2]

귀족 유지 10여 인, 동요회 조직 활동, 시국인식 등을 고조

귀족 유지가 금번 일시 사변이 발발하자 시국에 선처하고자 유력단체를 조직할 것이
라 함은 이미 보도한 바이거니와 25일 오후 5시 시내 조선히otel에서 이기용(李琦鎔) 자작,
이병길(李丙吉) 후작, 고흥겸(高興謙) 백작, 이창훈(李昌薰) 자작, 이홍묵(李鴻默) 자작,
박부양(朴富陽) 자작, 김호규(金虎圭) 자작, 민영옥(閔泳頊) 남작, 박승원(朴勝遠) 남작,
최정원(崔正源) 남작, 한상억(韓相億) 남작 등 11인이 모여 동요회를 조직하였다.

그와 동시에 그들의 주장을 선명히 하고 이제 행동에 관한 것을 협의하고 동회의 집
행기관으로서 이사 5명을 선거한 후 조선신궁에 참배하고 산회(散會)하였는데 이사의
씨명과 주장은 다음과 같다 한다.

이사장 이병길 후작, 이사 이홍묵 자작, 박부양 자작, 김호규 자작, 한상억 남작

= 주장 =

1. 우리 귀족유지는 시국의 인식을 깊이하고 애국의 적성(赤誠)을 다하여 황운(皇運)을 부익(扶翼)을 주지(主旨)로 한다.
2. 우리는 일반 민중에 호소하여 내선일체의 결실을 거둠으로써 동양평화의 실현에 기여하고자 한다.
3. 우리는 동족간의 친목을 돈독케 하고 결합을 공고히 하여 국체의 명철을 도모하며 황실의 번영(藩屏)¹⁷⁾으로서의 사명 달성에 용왕매진(勇往邁進)하고자 한다.

〈출전 : 貴族有志十餘人 同耀會 組織 活動, 『東亞日報』, 1937년 8월 27일〉

2) 국방헌금 1만 원 헌납 관련기사

[2-1]

동요회에서 1만 원을 헌금, 조선귀족단체의 활동

청년 귀족으로 조직된 시국단체 동요회는 지난 8월 25일 창립 이후 불과 10일만인 2일까지 1만 원의 국방비가 수집되어 3일 오전 11시 동회 이사장 이병길(李丙吉) 후작, 이사 이홍묵(李鴻默) 자작, 박부양(朴富陽) 자작, 김호규(金虎圭) 자작, 한상억(韓相億) 남작 등 간부 5명이 미나미(南) 총독을 총독부로 방문하고 헌납하였다.

이것은 전기 간부 5명의 맹렬한 활동에 의하여 59명 귀족의 애국적성에서 나온 것으로 육해 양군에 헌금하여 달라는 것이다. 그런데 동 회에서는 이것이 우선 제1차의 헌금으로 장차 시국전환 여하에 따라 다시 제2차 헌금의 준비를 공고히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동 회 사업으로 시국강연, 전선장병에 위문사 파견, 위문품 송정, 사상병의 위문과 조문, 출정 군인의 충후봉공 등 각종 사업을 비롯하여 무운장구와 동양평화의 기원제 등을 수시로 행할 계획이라 한다.

〈출전 : 同耀會에서 一萬圓을 獻金, 朝鮮貴族團體의 活動, 『朝鮮日報』, 1937년 9월 4일〉

17) 울타리나 대문 앞의 가림 담장을 뜻함.

[2-2]

조선귀족 동요회에서 1만 원을 헌금

시국에 각성한 조선인 방면의 활동은 적지 않은데 조선귀족 방면에서도 시국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애국헌금의 협의를 한 결과, 귀족 약 50명이 거금하여 금 1만 원을 얻었으므로 3일 오전 11시 육해군 국방비로서 대표는 총독실에 미나미 총독을 방문하고 헌금하였다. 이 헌금의 주요 인물은 다음과 같다.

1,400원 이항구(李恒九) 남작	1,150원 이병길(李丙吉) 후작
1,000원 이풍한(李豊漢) 남작	700원 김호규(金虎圭) 자작
500원 박영효(朴泳孝) 후작	500원 윤덕영(尹德榮) 자작
500원(五百圓) 이달용(李達鎔) 후작	500원 고흥겸(高興謙) 백작

〈출전 : 국방헌금·위문금-朝鮮貴族 同耀會에서 一萬圓을 獻金, 『東亞日報』, 1937년 9월 4일〉

[2-3]

활약하는 동요회, 국방비 1만 원 헌납,
3일 조선신궁에 봉고 참배, 미나미 총독도 격려 편달

증일전쟁에 발분(發奮)한 조선 청년귀족을 중심으로 조선귀족 59명을 망라하여 8월 25일에 조직된 동요회에서는 그간 이병길(李丙吉) 후작을 이사장으로 이홍묵(李鴻默), 박부양(朴富陽), 김호규(金虎圭) 세 자작, 한상억(韓相億) 남작을 이사로 선거하여 가두에 진출하여 귀족과 명문의 가정에 대하여 1만 원의 국방헌금을 목표로 모집 중이던 바 3일에 그 1만 원이 모였으므로 3일 오전 11시에 전기한 역원 5명은 미나미 총독을 방문하고, 시오바라(鹽原) 학무국장, 곤도(近藤) 비서관, 다나카(田中) 통역관도 열석하여 총독실에서 헌납식을 거행하였다. 이 석상에서 미나미 총독은 역원에게 대하여 “금후 더욱 시국을 인식하여 내선일체의 실(實)을 거양(擧揚)하라. 그리고 황실에서도 이렇게 조선에서 청년귀족이 중심이 되어 활약한다는 소식을 들으시면 매우 기꺼워하실 것이다”고 장내

의 활약을 격려하였다.

동 회에서는 다시 오노(大野) 정무총감을 회견하여 이 취지를 말하고, 그 길로 조선신궁에 봉고참배를 하였다.

그리하여 동요회는 이것을 기회로 굳게 결속하여 군인 가족과 유족의 호별 방문, 위문품의 모집, 전지 위문사의 파견 등을 할 터이었는데 다시 이 회의 목적인 내선일체의 완성을 위하여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되었다.

〈출전 : 活躍하는 同耀會, 國防費 萬圓 獻納 『毎日申報』, 1937년 9월 4일〉

3) 동요회의 동향(1937~1938)

[3-1]

동경 방면의 유식자 중에는 조선귀족들이 조직한 동요회(치안상황 제32보 참조)가 반도 민중의 사변에 대한 제반 총후적성(銃後赤誠)이 오로지 총독과 총감이 강제적으로 열달하고 있어 할 수 없이 추종하여 나온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풍설이 있다. 이를 뒤돌아보아 실상을 인식시키기 위해 동경에서 마이크를 통해 일본민중에게 진상을 방송하는 것을 협의하였다. 이를 위해 후작 이병길(李丙吉)은本月 12일 오후 4시15분 경성역발 열차로 동경을 향해 출발했다.

〈출전 : 特殊事項 중 同耀會의 活動, 『治安狀況』, 京畿道警察部, 1937년 12월 17일〉

[3-2]

우리 조선귀족은 시국에 대한 인식을 깊게 하고 애국의 적성을 다하여 황운에 부익(扶翼)하여 함께 내선일체의 결실을 높이 치켜들어 동양평화의 실현에 기여함과 아울러 동족의 친목을 돈독하게 하여 그 결합을 공고하게 하며, 국체명징을 도모함으로써 황실의 번영으로서의 사명 달성에 매진하고자 한다. 우선 이왕직차관 이항구의 장남이자 이완용 작위 세습자인 후작 이병길(李丙吉) 등이 주창한 가운데 청년귀족 등이 1937년 8월

25일 조선호텔에 모여서 여러 가지 협의를 거쳐 동요회라는 단체를 조직하고, 9월 2일 이사장 이병길은 미나미(南) 총독을 방문하여 귀족들의 헌금 1만 원을 헌납하였으며, 다시 이병길은 동회(同會)를 대표하여 같은 해 12월 도쿄로 건너가 요로(要路)를 방문하여 이해를 구함과 동시에 라디오를 통해 시국에 대한 조선에서의 총후의 결속 상황을 방송한 바 있다.

〈출전 : 各種團體統後ノ活動狀況 중 同耀會の活動 『治安情況』, 京畿道警察部, 1938년 9월〉

2부

Ⅲ. 중추원회의 의사록 ·
답신서 발취

1. 1930년 9월 25~27일, 제10회 중추원회의의 참의 의사록

1) 사이토(齋藤) 총독 훈시

1930년 9월 25일 제10회 중추원회의에서 사이토 총독이 다음과 같이 훈시하다.

훈시 요지

이에 제10회 중추원회의를 열어 여러분을 직접 만나서 소회(所懷)의 한 자락을 말하고, 아울러 여러분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나는 인심의 쇄신과 지방자치의 확립 및 생업의 개발에 힘써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심의 쇄신과 관련하여, 작년 총독부 및 각 관서에서 관리들을 경질하였고, 유능한 신진 인사들을 발탁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써 능률을 증진하고 기강을 숙정하여, 나태한 기운을 일소했음은 이미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입니다.

지방자치의 확립에 관해서는, 1919년 내가 취임했던 당초부터 성명했던바, 그 이듬해 제도의 대대적 개정을 단행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미 10년이 지나,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은 다시 한 번 지방제도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안을 입안하여 현재 중앙정부에서 심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포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니다. 이는 모두 민의의 창달을 도모하고, 공동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산업을 개발하여 민력을 증진하는 것이 조선의 현재 실정에 비추어 볼 때 가장 긴요한 문제입니다. 최근 현저하게 발전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를 자세히 검토하면 각 부문에 걸쳐 여전히 많은 시설과 경영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지난번 금해금(金解禁)을 단행하여 건축정책을 채택한 결과 총독부 역시 이러한 기본방침에 따르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조선의 특수한 사정을 참작하여, 농촌진흥이나 기타 산업개발에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당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건축은 훗날의 신장을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민일치로 황태(荒怠)함을 경계하고 부력증진에 더욱 공헌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최근 인심이 걸핏하면 방종으로 흐르고, 사상도 온건하지 않은 경향이 있습니다. 지난번 학생소요 사건이 발발하여 각지에 파급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항상 대비하여 교육시설의 개선과 각종 방책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금년 봄에 명륜

학원을 새로 설치한 일은, 동양도덕의 근원인 유도(儒道)의 진흥을 도모함으로써 사회교화의 성과를 올리고자 하는 취지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역시 이러한 뜻을 잘 이해하시어, 치화(治化)의 보급에 진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여름 조선의 풍수해는 최근에 볼 수 없었던 것으로, 천황 폐하께서도 이 일을 아시게 될 정도였고, 시종(侍從)을 파견하여 친히 위문을 하시고 구휼금을 하사하신 바 있습니다. 천은(天恩)의 넓고 두터우심에 황공하고 감격스럽기 그지없는 일입니다. 마땅히 관민이 협력하여 구제의 성과를 거두고 복구사업을 잘 수행하여 성지(聖旨)에 부응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은 요즘 실시되고 있는 시정의 대강에 관하여 소회의 한 자락을 말씀드린 데 불과합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관계 국부장(局部長)들의 설명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문사항은 물론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도 품고 계신 의견을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으로써 통치에 기여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출전 : 齋藤總督 訓示, 『第10回中樞院會議議事錄』, 1930년〉

2) 참의 강필성(姜弼成)

첫째 사상 선도 및 청년 지도 문제입니다. 고향인 함남의 몇 개 군은 청년들의 사상이 매우 많이 변화되어, 보기에 따라서는 실로 두려워할 만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이는 과도기의 일시적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래의 큰 걱정거리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대로 방임해서는 안 될 것은 두말할 나위 없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의 불온 사상에 경도되기 쉬운 자 또는 이미 감염되어 있는 자의 대다수는 평소 시간이 남아도는 자, 근로하기를 싫어해서 일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즉 향산(恒産)이 없어 향심(恒心)도 없는 자가 대부분으로, 바꾸어 말하면 열심히 일하는 자는 불온사상에 쉽게 빠져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런 실정에 비추어 사상 선도, 청년 지도의 근본 수단으로서 무엇보다도 우선 근로애호의 정신을 철저히 고취하거, 한편으로 산업을 장려함과 아울러 그들로 하여금 각종 산업에 취직할 수 있도록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졸업생 지도에서는 강연 혹은 강화회(講話會) 개최 등의 각종 시설로 직간접으로 근로애호의 정신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인습이 뿌리 깊은 우리 조선

민중의 상태를 생각하면, 학교의 교수 및 행정관청의 일반 사무의 결가지 부업 수준으로 지도하는 정도로는 쉽게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이 사업은 국가, 아니 조선이 총동원되어 벌어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기독교 구세군처럼 총독부 내무국 산하에 근로장려반(勤勞獎勵班)이라는 것을 설치하고 각 도에 지부를 두어, 상당한 경비를 지원하여, 근로에 관한 가장 적절한 각종 재료를 수집하며, 연중무휴로 순회지도, 강화강연(講話講演), 실지지도, 양서 보급, 활동사진 등을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컨대 근로애호의 정신을 철저히 진작하기 위해서는 특수기관을 설치하여 전문적으로 시행해야만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원래 사상 선도의 정책은 현재까지 '이것이다'고 하는 정확한 명안이 나와 있지 않으니, 좋은 방법이 있다면 이것을 실행에 옮겼으면 합니다. 그동안 경무국 계통에 사상단속에 필요한 경비가 막대하게 배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무국 계통으로는 사상 선도에 필요한 경비가 지급되었다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사상의 단속도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동시에 선도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주었으면 합니다. 오히려 단속을 종(從)으로 하고 선도를 주(主)로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앞으로 지방청 또는 당해 기관에 대하여 선도비(善導費)를 많이 배부해 주실 것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하략)

〈출전 : 姜弼成 參議 『第10回中樞院會議議事錄』, 1930년〉

2. 1931년 9월 7~9일, 제11회 중추원회의의 참의 의사록

1) 우가키(宇垣) 총독 훈시

1931년 9월 7일 제11회 중추원회의에서 우가키 총독이 다음과 같이 훈시하다.

훈시 요지

나는 지난번 조선 총독의 대명을 받들어 부임하였습니다. 이에 중추원회의를 열고 여러분을 직접 만나서 소회의 한 자락을 말하고, 아울러 여러분의 의견 및 민정을 청취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무릇 조선통치의 본질은 일찍이 큰 목표가 정해져 있고, 역대 당국자들은 항상 성지(聖旨)를 받들어, 공안(公安)의 유지와 민복의 증진에 예의 주시하면서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날 여러 가지 시설이 그 면목을 일신하였고, 개선의 자취도 상당합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시운(時運)의 추세에 비추어 볼 때, 다시 한 번 정리·경영을 요하는 것이 적지 않습니다. 나는 헛되이 구태함에 빠지지도 않고 또 신기(新奇)를 요란스럽게 떠들지도 않습니다. 적어도 조선의 개발이나 복리의 진전에 절실히 필요한 시책에 관해서는 경중과 완급을 따지고 적절히 제어하여, 이를 수행하는 데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현재 전 세계의 대세를 살펴보면, 최근 사상계의 혼탁에 더하여 경제계의 어려움도 아직 호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안팎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국을 광구(匡救)하는 것이 초미의 급무이며, 우리 조선도 역시 같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그 원인을 탐구하여 온건하고 순정(純正)한 사상을 배양하고, 근로애호의 정신을 고취하며, 산업의 진흥과 민력(民力)의 함양에 노력함으로써 당면한 난국을 타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무릇 통치의 요체는 관민일체로 각자가 처할 곳을 얻어, 업(業)을 즐기며, 직(職)에 힘쓰고, 인심이 나태함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치화(治化)를 보급하고, 문교를 일으키며, 산업의 발전과 경제를 잘 운영하여 여러 가지 시설의 조화를 유지하고, 견실한 발달을 이루어 거국일치로 나라의 융성에 공헌함으로써, 위로는 천황 폐하의 성지에 보답하고 받들며, 아래로는 민중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통치에 대해 갖고 있는 본원입니다.

〈출전 : 宇垣總督訓示, 『第11回中樞院會議議事錄』, 1931년〉

2) 참의 선우순(鮮于鎰)

물질적 방면의 안정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필요한 것은 정신적 위안입니다. 정신적 위안은 종교적인 위안과 정치적인 위안으로 크게 나뉩니다. 우선 정치 방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치적 향상의 길을 열어야 합니다. 일본과 같이 입헌정치의 근본인 중의원(衆議院) 선거를 실시하지는 소리도 높지만, 오늘날 조선인의 실력으로는 전면적으로 시행하기에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병합 후 20여 년이 지났기 때문에 왕족 대표인 귀족원(貴族院)에 하나의 의석을 설치하여 조선귀족 및 국가에 훈로(勳勞)가 있거나 학식이 있는 자 중에서 칙선의원을 내는 것은 시기상조가 아닙니다. 또 중의원도 경성, 평양, 부산, 대구 등의 도회지부터 점차 실시해 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현재 조선인 대다수는 장래의 운명이 어찌 될지 알지 못해 방황하고 있고, 생활상으로 안정될 수 없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조선인에게 정치적 방면에서 향상시킬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합니다.

둘째, 사상 방면의 선도와 단속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 민중은 머릿속이 하얗기 때문에 빨갱계도, 검계도 물들이기 쉽습니다. 이 약점을 알고 있는 불온분자가 장래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은 민족주의요, 좌경사상이라고 선전하는 것은 너무 쉽게 믿어 자신의 생명·재산을 희생시키는 자가 속속 증가하고 있음은 통탄할 일입니다. 1910년 조선의 인구는 1,312만 명에 형사 사건은 5,700여 건이었는데, 1929년에는 인구가 1,866만 명에 형사 사건은 4만 1,000여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중 사상 관계가 대다수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조선인의 생활 안정에는 사상이 중대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잘 판단하도록 지도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자는 엄중히 단속하여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략)

〈출전 : 鮮于鎰 參議, 『第11回中樞院會議議事錄』, 1931년〉

3) 참의 김명준(金明濬)

나는 많은 의견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문사항 외에 두세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날 조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선융화(內鮮融和)입니다. 일본인은 조선인과 융화하려는 마음이 없고, 조선인은 적어도 4천 년의 역사를 가진 민족으로 융화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만, 대세로 볼 때 조선인과 일본인은 절대로 떨어질 수 없으므로, 융화성은 바로 그 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다만 곤란한 것이 감정문제입니다. 일본인의 우월감과 조선인의 비뚤어진 근성이 큰 장벽으로, 이를 타파하지 않으면 참된 융화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당국은 쓸데없는 차별적 제도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일본인의 우월감을 더욱 조장하는 느낌입니다. 먼저 조선인과 일본인 차별을 철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한두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번에 총독부와 문부성의 학위령(學位令)을 보면 같은 나라의 사람이 같은 과정을 마쳤는데 하나는 조선박사, 다른 하나는 일본박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아무런 이익도 없는 차별적 제도로 쓸데없는 것입니다. 또 학교의 명칭도 소학교와 보통학교, 중학교와 고등보통학교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7, 8세의 어린 시절부터 하나는 우월감이 생기고 다른 하나는 비뚤어진 근성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로는 백 년이 지나도 내선융화가 불가능합니다. 내선공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순히 융화뿐만 아니라 실익, 즉 경제적으로 보아도 필요합니다. 보통학교를 졸업하면 일본어도 충분히 가능하고, 또 과정도 일본인과 같아서 손색이 없습니다. 또 초등교육에서 하나는 의무교육, 다른 하나는 자유교육이기 때문에 곤란하다고 말하는 자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교사(校舍), 기구, 체조, 창가를 함께 해도 전혀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조선인의 입학난도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1919년 소요사건¹⁾으로 조선인과 일본인이 함께 융화에 노력했지만 실적은 별로 없었는데, 이는 근본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본 문제는 참정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1870년 의회제도가 발포되어 1890년에 실행되었습니다. 조선 민족이 아무리 저급하다 해도 1870년 당시의 민도와는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기상조가 아닙니다.

(하략)

〈출전 : 金明濬 參議 『第11回中樞院會議議事錄』, 1931년〉

1) 3·1운동.

4) 우가키(宇垣) 총독 답변

본 회의의 종료를 맞이하여, 연일 여러분의 간절하고 정성스러운 답신에 깊이 감사하는 바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의견을 개진해 주셔서 소득이 매우 많았습니다. 그 중 어떤 것은 반드시 실현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기대하게 됩니다. 다만 내가 유감으로 생각하는 것은, 옛날에 내가 꺾병을 앓은 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일본어가 서툴다는 말씀은 아니고, 여러분의 탁견명설(卓見名說)을 전부 알아들을 수는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회의록이 나오게 되면 다시 배견하여 채택할 작정입니다. 그동안 중추원회의에서 여러 의관들이 설명하신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하시지만, 나는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적어도 여러분의 설명·답신 중에서 적당하다고 판단되면서 재정적으로 허락될만한 것은 물론 채용할 것이기 때문에 이 점은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단지 여러분의 의견 중에서 모순된다고 생각되는 것이 두세 가지 있으니, 이것에 주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첫째로, 여러분의 의견 중에 한편으로는 행정정리를 단행하여 각종 단체의 통일을 꾀하자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학교 졸업자를 이들 단체에서 많이 채용하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정리하라고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채용하라고 하는, 서로 상반된 의견이 상당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10억, 20억 원에 이르는 대규모 공채 모집으로 자작농을 만들라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말로는 쉬어도 실행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것처럼 대규모 공채를 발행하여 자작농을 만들어 내는 것은 현재 안팎의 사정으로 미루어 보아 쉽게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종종 회의를 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재의 사정을 생각하여 사실에 입각한 긴요한 의견을 말씀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해 둡니다.

다음은 관리 차별 철폐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주변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시행된 것으로,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 나는 차별 철폐에 추호도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시동인(一視同仁)이란 말도 많이 하셨지만, 어느 의관계서도 말씀하셨듯이, 아무리 자기 아이들을 사랑한다 해도 큰아이와 작은아이 혹은 남녀 연령의 차에 관계없이 모두 동일한 치수의 옷을 입힐 수는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대소, 남녀, 연령에 따라 차별을 둬는 당연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조선인과 일본인 관리 사이에도 다소 대우의 차별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조선인이기 때문에 관리 임용의 범위에 여러 가지 특례가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께서 충분히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단순한 이론으로 차별 철폐를 말하는 것은 실로 유감스러운 바로, 이 점에 대해서는 특별히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차별 철폐에 대해서 앞으로 충분히 연구하여 점차적으로 이를 실현해 나갈 생각입니다.

셋째로, 예산 등의 의결권 또는 참정권을 빨리 부여하라는 의견도 두세 번 들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도 있습니다. 조선은 안으로는 재정, 밖으로는 국방에 이르기까지 모두 일본의 원조에 의존하고 있어 매년 수천만 원의 보급금을 받고 있습니다. 단순히 일부의 납세 문제만 생각하여 납세 의무를 지고 있는 이상은 권리가 있다고 말하는 것도 일종의 이론이긴 하지만, 일본으로부터 많은 보급금도 받지 않고 일본인과 마찬가지로 납세가 가능하게 되면 참정권은 자연히 획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컨대, 여러분은 감정에 치우쳐 자기성해 보려는 노력이 다소 부족한 것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의 선두에 서서 일반 민중의 안녕과 행복 증진에 전념하고 있는 내가 여러분의 기탄없는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중등학교 이상은 오직 학문에만 힘을 쏟지 말고 덕육에도 충분히 주의하여 사상이 엉뚱한 데로 흐르지 않도록 해야만 합니다.

다음은 일시동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병합의 성지(聖旨)에서 일시동인이 천명되었지만, 시정방침을 보면 일시동인이 아닌 듯한 느낌입니다. 참정권 혹은 징병 문제를 보아도 알 수 있고, '일본인', '조선인' 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잘못된 것입니다. 생활안정을 위해서는 사상 선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일시동인이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10년, 20년이 흘러도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출전 : 宇垣總督 答辯, 『第11回中樞院會議議事錄』, 1931년〉

3. 1932년 3월 3~4일, 제12회 중추원회의 참의 의사록

1) 우가키 총독 훈시

이에 중추원회의를 열어 시국에 관한 소회의 한 자락을 말하고, 아울러 여러분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무릇 일한병합의 크고 먼(宏遠) 이상은 내선일체의 실(實)을 거두고 동양의 평화를 영원히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이후 20여 년의 성상이 흐르는 동안 역대 통치를 담당했던 분들은 오로지 그 이상에 따라 일시동인(一視同仁)의 성지(聖旨)를 받들어 지성보효(至誠報效), 치화(治化)의 보급, 강복(康福)의 증진에 노력해 왔고, 특히 내선의 융화와 화목에 관해서는 가장 주의를 기울여 왔던 바입니다. 다행히 많은 사람들이 업에 힘쓰고 생을 즐기며, 모두 황실을 좇아 황은의 혜택을 입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 8일 성상 폐하께서 초도 육군 관병식을 마치고 돌아오실 때 앵전문(櫻田門) 밖에서 범행을 기도한 대역죄인이 조선인이었다는 사실에 실로 황공하기 이를 데 없으며, 2천만 민중이 가장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나는 장래에 국체를 더욱 천명하고, 사상을 순정하게 귀일시키고, 생활의 안정성을 높여 전 조선이 서로서로 화중협동(和衷協同)하여 존황보국(尊皇報國)의 지성을 발휘하여 현재 일부 청년학도의 사상이 상귀를 벗어나 경조궤격(輕佻詭激)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음은 실로 한심스러운 바입니다. 본디 공학연구(攻學研究)의 열의는 이해되지만 언행이 기교하게 흘러 공서양속(公序良俗)을 문란케 하는 것은 엄하게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를 위해 총독부는 각 중등학교에 새롭게 공민과(公民科)를 신설하여 국체 관념을 명징하고, 철저한 도의 실천을 기하며, 또 내선공학(內鮮共學)의 범위를 확장하여 교문에서부터 융화친선의 미풍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아가 각종 사회교화 시설에 힘을 쏟아 직간접으로 일반 민중, 특히 청소년에 대하여 착실온건한 사상 함양에 노력하여 민풍자흥의 실을 거두고자 합니다.

과거 몇 년 동안 재계는 현저하게 피폐해졌고, 공사(公私)의 경제 모두 정리·긴축에 따라 국면을 일신할 필요가 절실했습니다. 따라서 나는 취임 이후 곧바로 행정·재정의 정리에 착수하여, 점차적으로 실행해 온 결과 이미 대부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여기에 수반하여 관제의 개정, 법규의 정비, 사무의 간소화 등에 관해서도 완급을 헤아려 착착 실시에 노력하였고, 이로써 행정기구를 정비하고, 재정의 기초를 공고하게 하여 장래의 시설에 대비하였습니다. 그런데 제60회 제국의회가 해산되어 1932년도 예산이 성

것입니다. 우리 동지들은 만주국 및 만주와 관계있는 제 기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요망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1. 신생 만주국에 대한 조선인과 일본인의 권리와 의무를 동등하게 함은 물론 만주 신정부 및 만주에 있는 제 기관에는 가급적 조선인을 많이 채용하고 대우를 동일하게 해야 합니다.
2. 만주국의 조선인 농상공업 및 기타 각종 생업의 경영에 관해서는 기회균등주의에 의해서 행해야 함은 물론 현재의 유지한 상태를 향상시키도록 특히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3. 특히 만주 재주 조선인 농민에 대해서는 집단부락을 창설하고 다음과 같은 각종 기관을 설치하여 지도·장려해야 합니다. ① 농업자금 융통기관, ② 무산농민의 이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토지를 대부해주고 자작농을 창정할 기관, ③ 위생·의료기관의 충실, ④ 경비기관의 완비
4. 일반 조선인의 사상 선도에 노력했으면 합니다.
5. 교육기관 및 시설을 완비했으면 합니다.
6. 이상의 제 기관에서 실질적으로 지도할 인물의 전형에 있어서, 사상이 온건하고 상당한 인격을 갖춘 자를 선발하여 임명했으면 합니다.

〈출전 : 鮮于錫 參議 『第12回中樞院會議議事錄』, 1932년〉

3) 참의 박종렬(朴宗烈)

(상략)

둘째 사상 선도 문제입니다. 내년도 교화사업을 위해 상당액을 예산에 책정했다고 들었습니다. 매우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독께서 새로 부임하면서 일찍이 동경에서 발표한 성명에서 조선인에게 ‘빵’을 주겠다고 하고, 선만(鮮滿) 정책의 통일, 재만 조선인의 생활 안정, 자작농 창정, 만주피난민 구제 등을 언급한 것은 일반 민심에게 호감을 주었습니다. 만주사변 그 자체는 불행한 일임에 틀림없지만, 한편으로 총독정치에 대한 조선인의 생각이 호전될 하나의 전기가 된 것은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1월에 일어난 돌발사건에서 일본에 거주하는 □□□□□□□□□□. 총독께서 동경에 계실

때 이러한 의문을 일소해 주었기 때문에 조선인 교화에 좋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 만주사변 이후 피난민들에 대하여 군 당국이 기민하게 구제해 줌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군대가 조선인을 보호해주리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더욱 감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최근의 총선거에서 조선인 박춘금 군이 당선된 사건은 조선인 사상에 비상한 충격을 주었고, 융화를 위해서도 파격적으로 호전될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사상 선도는, 교화를 행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에 의해 교화를 받는 자의 심기가 일변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교화를 하는 쪽에서 사념(邪念) 없이 정성껏 임한다면, 받는 쪽에서도 진심으로 감화되는 것입니다. 조선인은 병합 후 갑자기 일본인과 생존경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처해 참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원인을 솔직하게 말하자면, 원래 조선인은 돈을 아주 좋아합니다. 이 점은 중국인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중국인은 저축하기 위해 돈을 숭배하고, 조선인은 눈앞의 향락을 좋아하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장래를 생각하지 않고 현재만을 생각합니다. 이자가 싸면 욕심을 내서 부동산을 저당으로 돈을 빌려 고리대라도 놓으면 한밀천 잡을 것 같은 마음이 들고, 또 5, 6원 정도 하는 땅때기가 15원 하면 바로 팔아서 한밀천 잡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돈을 모두 소비하여 재산이 없어진 것을 비로소 깨닫고는 선의의 상대방인 금융기관 혹은 매수자를 원망합니다. 나아가 총독정치의 방침까지 의심하고, 심지어는 총독정치가 약탈정치 또는 사상교란정치라고 떠들어 댁니다. 병합 이후 만세소요가 일어났을 때까지 약 10년간을 약탈시기라고 하여, 조상 대대로 내려온 토지는 모두 일본인에게 □□□□□□□□□□. 물론 묘까지 발굴하여 신라시대의 토기까지 일본으로 넘기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법령이나 규칙은 모두 가렴주구이고, 일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만든 것이며, 또 공민구제를 위한 토목사업도 돈이 되는 일은 조선인에게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상을 생각하면 조선인은 자신이 몽매하기 때문에 생존경쟁에서 밀려났고, 자신을 위하여 만든 기관까지 도리어 의심하고 있습니다. 실로 지루하고 장황한 이야기입니다만, 지도·교육을 통하여 조선인을 자각시키고 자주자립하도록 하는 것이 사상 선도의 근본 해결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략)

〈출전 : 朴宗烈 參議 『第12回中樞院會議議事錄』, 1932년〉

실행에 착수하였으므로 앞으로 북선 지방의 발전을 기대해도 좋다고 믿습니다.

무릇 지방개발의 시설은 전국적으로 널리 실시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편중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시의에 적합한 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할 뿐입니다. 이번의 북선개척은 한 지방에 편중하여 다른 지방을 등한시하는 조치가 아닙니다. 즉 북선의 농경지도 남부의 인구가 조밀한 지방으로부터 인민을 이주시켜 그 개발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을 보아도 저절로 이해됩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취지를 잘 체득하여 일반 민중이 오해에 빠지지 않게끔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난번 새로 국가를 건립한 만주국은 기초를 점차 확립하여 가까운 장래에 정식으로 우리 제국의 승인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는 만주국 주민을 위해서, 나아가 동양의 영원한 평화를 위해 진실로 경축해 마지않는 바입니다. 특히 조선과 만주국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옛날부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고, 현재도 그곳에 있는 조선 농민이 □한 사람 무려 100만이라고 하는 것을 보아도 이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충심으로 신흥 만주국의 건전한 발달을 기원하고, 아울러 상호간의 친선접촉이 더욱 두터워질 것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따라서 이 신천지에 동포가 활약할 기반을 개척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미 다양한 준비를 다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일반 민중도 겸양자제(謙讓自制)의 미덕과 진취건투(進取健鬪)의 정신을 발휘하여 새로운 우방국에 가서 총독부의 시설과 알선에 발맞추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긴요합니다. 만주사변의 여파로 북선 대안(對岸) □□□□□□□□□□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때로는 조선 영토 내에서 폭거를 기도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기 위해 경찰관의 증원배치, 기타 적절한 조치를 틀림없이 하여 진실로 조선 내의 안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대체적인 업무 내용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관계사무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이번 자문사항은 시국광구(時局匡救)와 관련된 극히 중요한 안건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시세와 민정에 즉하여 좋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고, 아울러 항상 시세를 달관하여 총독부의 각종 시책을 도와주시고, 나아가 민중을 선도함으로써 조선통치의 대성공에 공헌해 주실 것을 바라는 바입니다.

〈출전 : 宇垣總督 訓示, 『第13回中樞院會議議事錄』, 1932년〉

2) 참의 유진순(劉鎭淳)

총독부에서 지방교화를 위한 순회강연 계획을 수립한 것은, 나도 이전부터 생각하고 있었던 일인데, 충심으로 감사히 생각하는 바입니다. 시일이 너무 짧기 때문에, 20일간 한 사람이 한두 시간 정도 강연하면서 순회하는 것으로는 아무리 웅변가요 달변가라도 혼란한 현대의 사상을 선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2회, 3회 계속해서 철저히 해질 때까지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각 부락에 충청남도의 진흥회(振興會) 같은 단체를 만들도록 장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때로 한 곳에 모이게 하여, 구장이나 면장이 필요한 서류를 보내서 계속적으로 지도와 장려를 한다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을의 선각자는 구장이 첫째 후보자이므로, 이들을 지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장에게는 별도의 급여는 주지 않더라도 약간의 수당이라도 주게 되면 그를 상당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총독부 혹은 도의 지방비(地方費)로부터 보조가 가능하다면 한두 정보의 공유지를 주고 그 수입으로 경비를 충당하도록 하면 괜찮으리라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일본인과 조선인의 구별이 없습니다. 작년에 일본인 중에서 부친이 병환 중인데 그 자식이 입영하게 되어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 진흥회가 농사 전부를 인수하고, 걱정 말고 국가를 위해 애쓰고 오라고 하면서 입영시키고, 논밭의 손질부터 수확에 이르기까지 군대에서 돌아올 때까지 다 해주었다고 합니다. 진흥회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술을 마시거나 도박을 하는 자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또 관헌의 말을 잘 듣고, 가난하던 사람들도 부자가 되고 매년 양호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전국적으로 만들어진다면 조선의 전도도 전혀 걱정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이는 사상 선도나 민력함양에 가장 효과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략)

〈출전 : 劉鎭淳 參議 『第13回中樞院會議議事錄』, 1932년〉

3) 참의 선우순(鮮于鎭)

사상 선도와 민력함양에 대한 총독부의 대책을 이해하자, 따라서 불안감이 완전히 사

라졌습니다. 조선 사상의 움직임은 일본과는 어느 정도 다릅니다. 야마토 민족은 만세일계(萬世一系)의 천황을 받드는 충군애국의 국민정신이 전통적으로 핏속에 흐르고 있고 교육이 철저하지만, 조선 민족은 이러한 관념이 매우 박약합니다. 게다가 일본에서는 1차 세계대전 이후 사회주의, 공산주의, 마르크시즘 같은 사상이 나타났습니다. 조선도 최근 좌경파가 주류가 되고 있지만, 실은 병합 전후보다 1919, 1920년의 민족운동이 주요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조선 민족은 이 외에도 야마토 민족에 대하여 기피하는 근성을 고치는 데 어느 정도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아무리 산업을 장려하고 아무리 교육□□□□□□□□□□를 베풀어도 효과를 거둘 수 없습니다. 그 대책은 여러 가지 있지만, 우선 첫째로 세계의 대세를 일반 민중에게 잘 이해시키고, 내선일환(內鮮一丸)이 되어 □□□□□□□□□□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시에 있어서는 조선 내의 지방에 따라 방법을 달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함남북과 중부 이남의 사상은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함남은 보통학교 3학년 이상은 모두 과격사상과 관련된 팸플릿을 읽지 않은 자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악화되어 있지만, 남선(南鮮) 지방은 그 정도는 아닙니다. 함남은 작년 이후 단속이 엄중하게 실시되어 극단적인 자는 수감됐지만, 2, 3년 후 수감되었던 자가 돌아오면 다시 악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외부로부터 와서 선동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수감자가 돌아온다면 적당한 방법으로 보호·감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학교에서 퇴학당한 자에게 복교를 허락하더라도 별도의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략)

〈출전 : 鮮于錫 參議 『第13回中樞院會議議事錄』, 1932년〉

5. 1933년 7월 18~19일, 제14회 중추원회의 의사록

1) 우가키 총독 훈시

이제 제14회 중추원회의를 열고 직접 여러 분들과 서로 만나 기탄없는 의견과 지방의 민정을 듣고 함께 솔직하게 이야기할 기회를 얻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얼마 전에 만주국이 건설되자 제국은 국제정의에 입각해서 동양의 평화를 영원히 확보할 연유를 생각하고, 열국에 숭선하여 이것을 승인하였는데, 그 후에 만주국은 기초를 확립하고 점차 건전한 발달을 이루어 그 국민은 물론이고 그곳에 재류하는 외국인에 이르기까지 함께 경사스러운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주국 건설에 관해서 동양 실정에 어두운 국제연맹에 가입한 많은 나라들의 소견은 제국의 주장과 맞지 않으므로, 제국은 유감스럽게도 결국 연맹을 이탈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황송하게도 천황 폐하께서 조칙을 널리 발포하여 장래에 제국이 나아갈 바를 선명하고, 국민이 나아갈 길을 명시하셨습니다. 그 생각하심이 심원하여 참으로 황송하고 감격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국민 모두가 밤낮으로 힘쓰고 삼가 국위를 떨치고 국운을 신장시킴에 힘씀으로써 성지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지금 조야가 긴장해서 국민정신을 진작하여 자력갱생의 기풍을 만들고 일치 협력하여 난국을 타개할 필요가 있는 때에 종래 거칠고 가벼운 사상에 빠져 이것의 실행을 호소한 사람들이 시세 변천의 추이를 각성하여 이제 국민정신으로 돌아와서 국가의식을 확정한 사람이 많이 늘어나고 있음은 매우 기쁜 일이기는 하지만, 청년학도 등 사상 동요기에 있는 자의 사상범죄가 아직 완전히 근절되기에 이르지 않은 것은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부(府)는 한편으로 엄정히 단속하여 만약 과격한 사상에 혹하고 고루한 편견에 사로잡혀서 건국의 기초를 위협하게 하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언동을 하는 자가 있으면 이를 단호히 배격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교화와 재교육에 크게 마음을 쏟아 국제 관념을 바르게 하고 국민도덕을 양양하며 생활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세간의 인심을 돕고 바르게 세우는 데에 각별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또한 숭선해서 모범을 보이고 민중의 유익함에 한층 더 협력해 주기 바랍니다.

(하략)

(출전 : 宇垣總督 訓示, 『第14回中樞院會議議事錄』, 1933년)

2) 참의 유태설(劉泰高)

(상략)

함경남도 지방은 옛날에 옥저, 예, 부여 세 종족의 거주지였고 고려시대에는 대개 발해, 여진, 금의 영토였으며 이태조에 이르러서 처음으로 남조선의 땅과 함께 완전하게 통일을 이루었습니다. 현재 주민은 구민족은 수가 적고 고려 말 및 조선시대에 남조선에서 이주한 자의 자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관계상 다른 도에 비해서 신진기예의 풍이 있습니다. 연해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산지이고 토지가 비옥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히 근면하고, 특히 부녀자의 집밖 노동은 도저히 다른 도에서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근로심이 풍부하며, 고산준령이 도처에 솟아있고 기후가 추움에도 불구하고 주민은 의기가 높고 인내심이 있으며 진취적인 기풍이 많습니다. 옛날 황성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왕화(王化)의 보급이 철저하지 못하였고 교육 정책도 받지 못해서 큰 유학자가 나온 것도 드뭅니다. 하지만 다행히 문약간지(文弱奸智)로 흐르는 폐단은 없어서 주민이 대개 솔직하고 소박합니다. 사법통계상 남조선에 비해서 지능범이 적은 것을 보더라도 그 일단을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당국에서 그들의 기질을 통찰해서 이를 이용하고 선도한다면, 진보도 다른 곳보다 우월할 것임은 거리낌 없이 명언하는 바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본 도에서 세밀한 지방진흥강령을 제정하고 방방곡곡에 선전하여 예의 실행에 힘쓴 결과, 일반 민중도 겨우 이를 체득하고 향약 또는 진흥회 등을 조직해서 점차 그 발전을 향해 자력갱생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특히 본 도 중 주시의 대상이 되는 단천·영흥·북청 지방과 같은 곳은 다른 곳에 솔선해서 혼상제(婚喪祭)의 경비에 등급을 두어 각기 최대한 절감하고 부락진흥회에서 이를 감독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참으로 기쁜 현상입니다.

그런데 근래에 걸핏하면 당국에서 함남도민의 근본 성질을 위협시키고 있으나, 이는 실로 아무런 잘못이 없이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씌우는 것 같습니다. 사상범의 건수가 다른 도에 비해서 많은 것은 사실상, 통계상 부정할 수가 없지만, 사상범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근원이 근본 성질이 위험한 것에 있는 것인지 아닌지, 또 그 성질이 솔직해서 다른 말을 쉽게 믿어버린 결과인지 아닌지 밝히지 않고 바로 범행이 많다고 함남민은 근본 성질이 위험하다고 단정하는 것은 오관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결코 궤변을 늘어놓는 것도, 또 함남도민이기 때문에 이를 역성드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당국의 선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함남 도민에게 사상범이 많은 원인은 전자에 있

는 것이 아니라 후자에 있다고 주저하지 않고 단언합니다. 위 가운데 ‘다른 말’이라 함은 러시아를 근거로 하는 사회주의자의 선동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주의자는 왜 그 선동을 함남에서 주력하고 있는지 그 원인을 들어보겠습니다.

1. 함남도민은 솔직 소박하여 선동되기 쉬움.
2. 함남도민은 진취적 기질이 있기 때문에 일단 마음이 통하면 실행으로 옮김.
3. 게다가 함남 일대는 국경과 접한 곳이 있어서 주의자의 출입이 편함.
4. 이조 500년간 서북 물용주의(勿用主義)는 특히 함경도에 철저해서 이른바 문관은 지평(持平), 장령(掌令)에 불과하고 무관은 만호(萬戶), 첨사(僉使) 이상에 나아간 바도 적고, 따라서 귀족적 생활 경험이 없이 작위가 주는 영화를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 다른 지방에 비해서 그 욕망이 매우 작다는 등의 이유로 적화사상 선전에 좋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여러 가지 점을 교묘하게 간파해서 그 ‘스타트’를 함남으로 향해서 도둑고양이처럼 침입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짐작은 대체로 틀리지 않아서 솔직한 함남의 청년은 그들 악마의 손아귀에 넘어가고 교묘한 말에 넘어가서 원산파업사건, 각 학교 맹휴사건, 단천사건, 영흥·정평·북청의 각 농업조합 사건, 이 외의 사상범행이 여러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때문에 사법관현은 잠도 자지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힘을 다해서 검거 재단에 임해서 어느 정도 해당 사건만은 종식을 고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잠행운동이 치열한 것은 어떻게 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함남도민의 근본 성질이 위험하다는 것에 근거합니까. 아무리 좋은 밭이 있다고 해도 홍수 피해를 입으면 한때 수확이 감소할 때도 있고 아무리 체력이 건강하다고 해도 심한 병에 걸리면 잠시 건강을 잃는 것과 같이 한때의 홍수에 휩쓸리고 잠시 건강을 해쳤다고 해도 원래 상태로 돌아온다면, 좋은 밭은 여전히 좋은 밭이고 건강한 체력은 여전히 건강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는 그 환원방법의 여하에 달린 것입니다.

이 사상은 홍수와도 같이 유입되고 전염병과 같이 전파되어 시정·산업·교육·사회의 모든 방면에서 해독을 미치고 각 경찰관서에서는 총동원하여 밤새도록 수사 검거에 노력하고 있지만, 원래부터 손이 부족한 소수의 인원으로는 이것을 근절시키기는 곤란합니다. 경찰관도 신이 아닌 이상 피곤한 나머지 그 눈에 비치는 이상한 자는 모두 범인으로 추측하였고 그 결과 부득이 일체 회합을 금지하여 북청과 같은 곳에서는 각 서재, 강습소가 전부 폐쇄하였으며, 올해 4월 중에는 한때 500여 명의 검속자를 냈습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함남도민은 생업이 곤란하고 자제교육도 잘 되지 않습니다. 이 나쁜 사상의 해독이 어찌 함남으로만 그치겠습니까. 그들의 목표는 전 세계를 적화시키려는 것이고 우리의 국체와 서로 맞지 않는 주장을 하고 유사 이래 모든 도덕과 제도를 근본부터 파괴하고, 이미 그 선전포고를 하고 몰래 실전대(實戰隊)를 각 소에 파견해서 그들의 주장을 선전하며 실행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 근원지를 박멸하지 않으면 도저히 이를 방어할 수가 없고, 현재의 경찰, 재판소의 힘만으로는 결코 근절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범적으로 함남에만 그 힘을 쏟았지만 1929년 이래 많은 검거와 다수의 실행자가 나왔지만 그들은 여전히 지하운동을 활발하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모스크바공산대학교의 재학생, 혹은 졸업자들이 주의운동을 위해서 함남에 잠입 활동하고 있는 사람 가운데 검거됨으로써 판명된 자만도 1930년 중에 김하승(金夏昇) 외 5명, 1931년에 김호반(金鎬盤) 외 11명, 1932년 중에 한사빈(韓士斌) 외 10명, 1933년 5월까지 고경인(高景仁) 외 6명이고, 아직 판명되지 않은 자는 어느 정도인지 알지 못합니다. 또 1929년 이래 함남사상범으로 검거된 수를 살펴보면, 1929년 325명, 1930년 1158명, 1931년 949명, 1932년 1,184명입니다.

이렇게 해마다 다수가 검거되고 게다가 러시아령에서 온 잠입자는 행동을 더 교묘하게 하여 인민들은 그 틈에 끼게 되고 어느 곳에서 정지할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몸이 크고 힘이 센 씨름꾼이라도 몸 안의 미세한 고장은 제때에 치유하지 않으면 큰일이 됩니다. 지금 국민 모두가 이러한 사상의 근원지를 찾아내어 고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연맹 탈퇴는 물론 중대사입니다. 중국문제, 경제문제 역시 중요한 것이지만, 현재 일본의 걱정인 사상악화보다 큰 것은 없습니다. 그들은 우익이 이길까, 좌익이 이길까하는 경계에 서서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장담하고 있습니다. 위정 당국자는 '소비에트' 정부의 주지와 선전을 부정하지만, 이렇게는 단속이 충분하지 못합니다. 실로 중앙정청 소재지인 모스크바에 공산대학을 설립하고 이에 다수의 조선인 학생을 입학시키고 있기 때문에 1930년 8월 프로핀테른(자본주의국가를 전복하고 노동독재정치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체) 제5회 세계대회도 모스크바에서 개최되었고 조선대표를 여기에 선정, 가입시켰으며 이 대회에서 일본제국주의를 맹렬히 공격하였습니다. 또한 전 조선 노동자의 모든 역량을 모아 공산주의사회의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좌익노동조합조직방침을 이 대회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이 결정에 의거해서 김호반과 같은 자는 수천 원의 자금을 러시아인으로부터 받고 블라디보스토크를 거쳐 1931년 1월 교묘히 함흥에 들어왔습니다. 생선장수로 변장해, 같은 해 6월까지 제멋대로 활동하고 함흥 및 흥남 내의 조선인 공산당사건을 일으켜서 그 피해를 원산·경성·평양·대구의

각지에 미친 한 예에 비추어 보더라도 단속이 미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략)

〈출전 : 劉泰高 參議 『第14回中樞院會議議事錄』, 1933년〉

3) 참의 장대익(張大翼)

1. 국례(國禮)를 만들어 강제법으로 할 것

어느 국가, 어느 시대에도 의례는 국례를 적용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조선에는 일정한 예식이 없고, 때문에 신례(新禮)에 따라 구례(舊禮)를 행하는 등 혼란을 벗어나지 못하기에 조선을 위해 통탄해 마지않습니다. 그리하여 본 부가 이에 대한 준칙을 제정함은 가장 적절한 조치입니다.

국례를 정한다 해도 이것을 강제적으로 하지 않고 방임하게 한다면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조선의 통치상에도 통일을 결여하는 것이 되니 부디 이를 강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출전 : 張大翼 參議 『第14回中樞院會議議事錄』, 1933년〉

6. 1934년 4월 26~27일, 제15회 중추원회의 의사록

1) 우가키 총독 훈시

제15회 중추원회의를 열어 친애하는 여러분의 장한 모습을 접하고 지방민정 특히 농촌, 산촌, 어촌 진흥의 현상 및 이에 대한 의견을 들으며 아울러 본부 시정에 관한 소회의 일부를 이야기할 기회를 얻은 것은 매우 다행스럽고 기쁜 일입니다.

지난 연말에 황태자 전하의 탄생을 맞이한 이래 건강하게 성장하고 계신 것은 ‘황위가 영원히 이어지고 나라의 초석이 흔들리지 않는다(寶祚無窮國礎不動)’는 상서로운 일로서 반도 이천만 신민이 봉축의 지극한 정성을 올리는 바입니다. 황공하게도 성상 폐하께서는 이 기쁨을 나누고자 올해 2월 11일 조서를 내리시어 은사의 특전을 베푸셨습니다. 성은의 넓고도 높으심에 감격하여 마지않을 따름입니다. 또한 지난여름 조선 남부 일대를 습격한 풍수해의 참사를 들으시고 자주 구휼 자금으로 많은 돈을 하사하셨으며 올해 기원절에는 나라 안 60여 개의 각종 사회사업단체에 대하여 사업 장려를 독려하시며 많은 돈을 하사하셨습니다. 천은의 넓고 크심에 송구스럽고 감격해 마지않는 바입니다. 관민이 일치하여 힘써 노력하여 성지를 받들어 따르기를 바랍니다.

이웃나라 만주국이 올해 3월 1일 건국 2주년 기념일을 맞아 제정(帝政)을 실시하여 연연한 일대 제국을 출현시킨 것은 동양 평화를 위해 또는 긴밀한 관계를 갖는 우리나라, 특히 국경을 접하는 조선으로서 장래 공동의 복리를 한층 증진시키리라 생각하여 충심으로 경축하는 바입니다.

지금은 나라 안이 대부분 평온하고 민심이 점차 안정을 보여 곳곳에서 내선일체(內鮮一體), 중대시국(重大時局)에 처한 정치의 정신을 체현하여 각 생업에 힘쓰는 것도 마찬가지로 매우 기쁘기 그지없는 일입니다. 이는 필경 만주사변에 대응하는 제국의 정확한 시책과 재작년 이래 실시해 온 정신작흥(精神作興), 농산어촌의 진흥 등의 운동에 자극 받은 민중의 각성과 분투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사상이 저절로 온건해지고 공론을 배척하고 현실을 따르며 정화경조(淨華輕佻)의 바람이 그 흔적을 지우고 건실한 문화가 진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한편으로 집요한 불온사상의 지하운동이 지속되어 자칫하면 민심을 미혹하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으므로 사회의 선각자인 여러분은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민중의 의표가 되어 사상 정화를 도모하고 따스하고 화창한 기운이 천리에 넘쳐나며 반도 민생의 복리를 증진하도록 협심 노

력할 것을 바랍니다.

초등보통교육의 건실한 보급과 발달에 대해서는 역대 당국이 모두 관심을 기울여 여러 정책을 게을리 하지 않고 공립보통학교의 증설, 혹은 초등학교에서 직업과(職業科) 교육의 진흥 사업으로 교육의 보급 및 내용의 충실, 교육의 지방화, 실제화에 힘써 왔으나 학령아동의 취학률이 매우 낮은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는 결국 조선에서 농촌 취락의 형성이 드물어 교육기관의 분포가 적합하지 않다 해도 최근 세계 경제계의 불황에 따른 지방민력 피폐에 기인한 것이 적지 않으므로 1934년도 이래에는 공립 보통학교의 수업료를 줄여 취학률의 증가를 도모함과 더불어 새로 수업연한을 2년으로 하는 간이학교를 창설하여 오직 실용을 목표로 하는 초등교육기관으로 만들고 부락 모두가 배우는 이상을 향해 매진할 것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시설은 첫 기획에 속하며 그 결과의 좋고 나쁨은 장래 반도 교육시설의 정비 및 민생의 강령 복리에 미치는 점이 매우 크므로 여러분은 이 뜻을 잘 납득하여 본 시설의 취지를 철저히 주지시키고 협력 원조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특별히 신경 쓰기를 바랍니다.

(하략)

〈출전 : 宇垣總督 訓示, 『第15回中樞院會議議事錄』, 1934년〉

2) 참의 김명준(金明濬)

(상략)

도시의 민심 작용에 대해서는, 경성부에서는 정동회(町洞會)·방면위원회·교화단체연합회·교화구위원회(教化區委員會) 등을 설치하여 각각 규약을 정하고, 중추원에서는 명덕연구회(明德研究會) 규약을 두자고 진언한 일도 있습니다. 그 실행사항부터 말씀드리면 인간으로서 행해야 하는 것은 빠짐없이 모두 갖추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방책으로서는 그것 이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실행방법이 불철저하기 때문에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경성부에 속하는 각 단체만으로 4개정도 있습니다만, 지도하는 절도가 복잡하고 통제가 잘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도에 임하는 역원 등도 전부 명예직이어서 정신적으로 일한다고 하는 개념이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로 첫째, 각 단체를 통일하고 철저하게 독려할 것, 둘째, 실행위원은 덕망 있고 열심인 자를 선정하여 상당히 대우하고 책임감 있는 정신을 발휘하게 할 것, 셋째, 각 학교의

조회(朝會)에서 국민정신작흥에 관한 조서봉독은 물론, 정신작흥에 관한 운동항목에 대한 강화(講話)를 계속 훈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도시 민심작흥의 방책을 전 조선에 행하게 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신을 끝내겠습니다.

〈출전 : 金明濬 參議 『第15回中樞院會議議事錄』, 1934년〉

3) 참의 최연국(崔演國)

(상략)

다음으로 자작농 창정(創定)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1932년부터 각 도에서 자작농 창정을 계속 실행한바, 그 성과와 효과가 현저하다는 것은 알고 계시는 것과 같습니다. 진실로 좋은 사업이며 고급에서도 그 예가 없는 어진 정치(仁政)이므로 감격해 마지않는 바입니다. 그러나 유감이라고 생각하는 바는 매년 계속 창정하는 호수가 적다는 것과 자작농자의 인선(人選)에 대한 조건이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경상남도의 예를 하나 들어 말씀드리면 매년 창정 호수는 2백 호씩밖에 되지 않습니다. 농민의 칠팔 할을 점유하고 있는 소작농 호수가 약 30만 호인 경상남도에서 매년 2백 호씩밖에 창정되지 않게 되면, 적어도 천오백 년의 긴 세월을 지나지 않고 자작농 창정을 완성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농림국장 각하의 연설에서는 10년 동안 계속 사업을 하여 전 조선에 걸쳐서 1년 실행 호수가 2천 호씩 있어서 기간 중에 총계 호수 2만 호에 귀착하게 한다고 하셨지만, 이 계획은 결코 2만 호에서 그칠 만한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당국에 있어서 좋은 사업이라고 인정된 이상 급진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작농자의 인선에 대해서는 첫째, 빛이 없는 자, 가족이 적은 자, 학문이 있는 자 등 여러 가지 조건이 붙어 있는데 방침으로서는 틀리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본 바를 말씀드리자면 빛이 있는 만큼 가족이 많고, 학문 지식이 없으면 그만큼 더욱 생활이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의 비천한 소견으로는 만약 신체 건강한 자 중에서 의지가 강하고 장래 근면 저축할 가능성이 있는 자라면 조건에 넣어서 현재 경상남도에서 매년 2백 호씩 창정하고 있는 것을 10배 정도 증가시키고, 매년 2천 호씩 창정함과 함께 각 도에서도 이러한 비례로 실행하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빛이 있는 자와 가족이 많은 자라면 종래 수전(水田)과 밭을 합쳐서 5반보(半步)씩 계획한 것에 5할 내지 10할을 추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즉 빛 퇴치, 식량부족 퇴치, 소작농 퇴치가 되어 농가개생 계획의 요체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석해 계신 와타나베 학무국장 각하가 경상남도에 재임하실 때, 도회에서 말씀하신 일이 있었으므로 이 건에 대해서는 찬의는 물론이고 더욱 잘 입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략)

〈출전 : 崔演國 參議 『第15回中樞院會議議事錄』, 1934년〉

4) 참의 윤갑병(尹甲炳)

저는 ‘국어’²⁾가 불충분하므로 이 점 미리 양해해 주십시오. 우가키 총독 각하께서 우리 조선에 부임하신 이래 각종 산업의 발전에 매우 노력하시고, 또 여러 해 동안 농촌의 인민이 불쌍하다고 생각하시어 자애심으로 농촌진흥운동을 계획하셨습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저희는 단지 감사할 따름입니다. 당국의 정책은 농촌진흥 면에서 매우 훌륭한 안(案)이기 때문에 이대로 진행하면 장래 농촌은 더욱 진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단 여기에서 한 가지 유감으로 생각하는 것은 알고 계시는 것처럼 조선인의 대부분이 문맹이기 때문에 일부러 당국에서 입안한 훌륭한 안도 그것을 실행하기에는 매우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고로 이것에 대해서는 농촌은 물론이지만, 관리 혹은 학교의 선생 등이 지방에 출장하여 상세하게 설명하고 장려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부에 감찰관을 설치하여 수시로 민정을 시찰하고, 그것을 시정의 참고가 되게 하시면 지금의 농촌진흥운동은 최고 최대의 계획이 될 것입니다.

〈출전 : 尹甲炳 參議 『第15回中樞院會議議事錄』, 1934년〉

2) 일본어를 뜻함.

5) 참의 이명구(李明求)

(상략)

도시에서 민심 작흥을 도모하는 구체적인 방책에 대해서 답신하겠습니다. 그 첫째는 도시에 교화단체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현재 농산어촌에서는 농촌진흥운동이 철저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각종 단체를 조직하여 진흥의 기운이 크게 고조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도읍에서는 아직 그러한 시설이 없으므로 도읍에서도 민심을 작흥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교화단체를 조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청소년 단체조직

도시의 청소년은 모두 헛되이 걸만 화려하고 경박함에 흘러 무위도식하며 허영심에 빠지거나 혹은 일확천금의 꿈을 몽상하여 선조부터 전래되어 온 재산을 파산하거나 혹은 나쁜 사상에 유혹되어 사회의 풍기를 해하는 등 실로 문제가 적지 않습니다. 이들은 모두 가정교육이 없음은 물론, 사회수양이 부족한 것에서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선도하는 교화 단체를 조직하여 부단히 훈련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조직방법은 도읍의 각 구를 단위로 해서 설치하고 그 통제방법은 교화단체 연합회와 같은 기관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2) 부인 단체조직

도읍의 부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안일 태만하게 생활하면서 걸만 화려하고 사치하는 것에만 빠지는 경향이 특히 많습니다. 먼저는 생활개선·미신타파·허례폐지 등과 같은 것은 부인부터 솔선하여 그만두게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단독으로는 실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단체조직에 의해서 훈련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강연회 및 강습회 등을 빈번하게 개최하는 것과 소비 절약·근검에 힘쓰는 주간 선전을 행할 것 등입니다. 그것의 선전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선전보급을 도모하는 것은 매월 일정한 선전주간을 정하여 그 주간에는 관공서 및 각종 단체연합들이 선전을 하고, 일반 민중이 절약 및 근검에 힘쓰는 아름다운 풍속을 진작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학교 졸업생에게 직업교화를 보급하는 것입니다. 도읍에서 학교 졸업생에 대해서 직업적 도야를 행하고 생활안정의 길을 얻게 하는 것은 사회정책상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각 지방의 실정에 비추어 상공업에 필요한 간이학교 또는 전습소와 같은 것을 신속하게 설치하여 졸업생에게 실무에 종사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출전 : 尹甲炳 參議 『第15回中樞院會議議事錄』, 1934년〉

6) 참의 한상룡(韓相龍)

사실 저는 경성에서 살고 있어 의견이 있으면 언제라도 답신할 수 있으므로 오늘은 삼가 지방의 여러분께서 될 수 있는 한 답신을 하시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만, 모처럼의 기회이므로 한마디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컨대 조선의 문제는 농촌진흥에 의해 대부분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작년부터 이 점에 주목하여 당국에서 운동을 개시한 것은 우리 모두 두 손 들어 찬성하고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는 바입니다.

단, 제 생각으로는 농촌 자치가 그것을 자각하지 않으면 효과가 별로 크지 못할 것입니다. 특히 부녀자에 대해서는 지금 한층 지도가 필요합니다. 저는 일찍이 메이지(明治) 대제(大帝)가 돌아가셨을 때 농촌에서 군기를 게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시험 삼아 왜 국기를 게양하는가를 물어 보았습니다. 그러자 백성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그로부터 십수년도 넘게 지났으므로 일반인도 매우 자각해 있고, 이후 수년이 지나면 상당히 진전해 가겠지만 여전히 느리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진행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사환미의 제도입니다. 그것은 당국에서 이미 실시해 착수하고 있습니다만, 현재의 계량으로는 벼 30여 만 석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정도의 대부분은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되므로 그것을 한층 확장하여서 적어도 농촌 1호당 1석으로 벼 300만 석 정도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고리대도 정벌하고 식료도 충실해져 장차 소비문제도 어느 정도 완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략)

〈출전 : 韓相龍 參議 『第15回中樞院會議議事錄』, 1934년〉

7) 참의 최윤주(崔允周)

(상략)

만주국의 실현은 무엇보다도 바람직한 것으로 재만 조선인도 어느 정도까지는 좋아했습니다. 만주사변 발발과 함께 각 국은 그 권익획득에 서로 암중으로 비약하고 매우 어려운 문제가 일어나 드디어 우리나라는 국제연맹까지 탈퇴하여 백만의 재만 조선인을 보호하려고 하고 제국은 정의인도에 기초하여 초지를 관철하고자 부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연장되어 만주국 건설을 유치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조선인은 만주에 60여 만, 간도에 50만, 러시아령 연해주에 21만이 있고, 또 적군(赤軍) 중에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들 조선인에 대해서 제국은 극력으로 그 보호에 진력하고 연해주의 어민에 대해서는 한층 더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주국의 건설과 함께 제국에서는 점점 그들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재만 조선인 중에는 부모를 조선 내에 남긴 사람, 아이를 조선 내에 남긴 사람이 다수 있어서 부모는 아이를 보고 싶어하고, 아이는 부모를 보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옛날은 차치하고 오늘날에는 제국이 진력하면 그것이 가능할 터인데,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재만 조선인의 중대문제입니다만, 권한 밖의 일이라든가 뭐라든가 말하며 여간해서 우리의 희망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부모가 아이가 어르는 데 아이가 목이 말라서 물을 찾을 때 술을 주거나 완구를 주면 바로 아이는 버려 버립니다. 부디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당국은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가 가고자 해도 어미가 싫다고 하거나, 또는 일부러 찾아 온 부모라도 언제나 고통스러운 이야기만 하고 간다면 모두 싫다고 말합니다. 자식들은 좋은 어미가 없으면 어떻게 해도 충분한 발달을 할 수 없습니다. 합법적으로 발달하지 않으면 헛수고인 것입니다.

그 하나로서 가장 중대한 문제는 현재 재만 조선인의 소속이 아직 확실하지 않다는 것으로 그것이 먼저 해결되지 않으면 모두가 불합리합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해결되지 않았을 뿐더러 7월에 행정구획이 바뀔 때에 간도에는 도(道)도 만들지 않고 길림(吉林)의 관할에 넣겠다고 합니다. 간도를 조선의 연장으로 한다고 하는 기쁜 말도 한때는 있었습디만, 오늘은 그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연장이라고 하는 것도 어떨까 생각했습니다만, 적어도 간도는 그 주민의 8할까지 조선인이 점하고 있기 때문에 길림성으로부터 떼어내어 간도청을 만들고 그것을 중앙정부의 직할로 하고, 직원도 주민의 수를 고려하여 배분하여 채용했으면 하고 생각하고 있었으므로 3월 5일 조선군과도 상담하여 입안하고, 대회를 개최하고 국무총리에 진정하니 '좋다, 인수했다'고 해서 신문지상에 발

표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또 그에 반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사무소 정도로 하고 간도에는 아무것도 두지 않는다고 합니다. 7월에는 성(省)이 공포되기 때문에 간도청정도는 만들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습시다만, 최근 또 그것이 변한 것입니다.

제국은 대국적인 면에서도 어떻게든 재만주 및 간도 조선인의 근본책을 확립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제국은 재만 조선인을 오해하여 마치 강 건너에서 지팡이를 짚고 구경하고 있는 것과 같이 생각됩니다. 사변 전에 재만 조선인은 마치 이리 앞의 양과 같이 일본인에게 보여 실로 100%의 동정이 있었습시다만, 사변 후에는 그 열기도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고 지금은 그것과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것은 태도가 이렇게 급변한 것이 아니고 재만 조선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어난 견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재만 조선인의 문제는 제국에 있어서 결코 일상사로 보아서는 안 되며, 남북 만주에 산재한 백 수십만의 우리 동포의 동향 여하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중대한 문제이며, 대륙 정책상에서 영향을 끼치는 것이므로 그것을 합법적으로 취급하기 위해서는 조선 총독부에 위임하여 적절한 방책을 확립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략)

〈출전 : 崔允周 參議 『第15回中樞院會議議事錄』, 1934년〉

8) 참의 박종렬(朴宗烈)

(상략)

다음으로 제가 본 바로 일본은 유신(維新) 이래 문화의 향상을 교육에서, 정치에서, 제도 개선에서 헤아려보면 그 원인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힘이 있는 것은 징병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군대교육은 첫째 황도정신(皇道精神)의 보급, 공중도덕의 발달, 의용봉공심(義勇奉公心)의 배양, 인내, 근면, 실행성의 수련, 규칙적 생활, 위생 사상 등의 보급이 현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조선 동포에 대해서는 징병문제를 급하게 바랄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편법을 만든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조선특별대(朝鮮特別隊)를 설치하여 보통학교 이상의 졸업생에게 군대생활을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조선도 이후 도시와 지방을 통틀어 더욱

건전한 발달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출전 : 朴宗烈 參議 『第15回中樞院會議議事錄』, 1934년〉

9) 참의 박희옥(朴禧沃)

(상략)

2. 도시의 민심 작용을 도모하는 구체적 방책

도시민은 농민에 비해 어느 사람이나 모두 지적이고 향락적이며 게으르고 생활에서도 불안한 자가 많고, 사상에 대해서도 다양합니다. 이러한 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민심작용 운동은 말하기는 쉬워도 행하기가 어려워 실로 중대하고도 곤란한 문제일 것입니다. 특히 조선의 도시민, 그 중 근대 도시의 청년은 대체로 종교적 개념도 없는 상태여서 이렇듯 사상적으로 다양합니다. 종교적, 즉 신앙적 방면에 대한 통제 없이 도시민의 민심작용 운동 내지 그 효과를 구하는 것은 어려운 일중에서도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지만 다음 요항에 따라 행하면 다소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1) 도시에서 정동(町洞)을 나눠 소규모로 구(區)를 만들어(행정구획이 아닌 일시 방편의 구(區)를 가리킨다) 그 구내에 방면위원(方面委員)을 두되, 구내 사람들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으로 선발할 것.

이 방면위원은 월 2회 내지 4회의 정례집합을 요청하고 그 구내의 지난번 정례집회 후의 실행 사항에 대한 처리상황 및 그에 대한 협의를 하고, 이후의 정례집합일까지 실행할 사항 등을 결정할 것. 그리고 실행 사항은 주로 도시민으로서의 공민적(公民的) 도야에 필요한 사항, 즉 도시민으로서의 기풍 진작·근로향상·위생·자경(自警)·이웃과의 상호 등에 힘을 다하고, 때때로 명사의 강연회 등을 개최하고 방면위원의 알선으로 다수가 청강할 수 있도록 할 것. 각 구내의 사치스럽고 방종한 생활자의 가정부터 그 부녀자로 시찰단을 만들어 지방 농촌의 실생활을 시찰하게 하고 농촌진흥운동의 상황을 직접 보게 하여 스스로 비교 대조하고 그 자경과 자각을 촉구합니다.

2) 각 구내의 유지자를 망라하여 생활개선실행회 등을 조직하게 하고 그 회원 생활은 서로 통제, 제한하여 좋은 옷, 좋은 음식을 절약, 혹은 폐지하는 운동을 일으키고 사회봉사적 활동 방면으로 스스로 분기하고 힘쓰게 하여, 얼마라도 이 실행이 전 생활면을 개량

하면 도시에서 향락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점차 개선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3) 조선 옛 문화에 위력이 있는 불교를 널리 퍼뜨리는 데 뜻을 두고, 고승이나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신앙생활로 이끌어 주는 것을 게을리 하지 말 것. 자력갱생운동은 물질 양 면에서 해야 합니다. 특히 심신을 통제하는 생활을 하지 않으면 물질에 편중되어 결국 인색함에 빠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사상적 면에서 보아도 신앙 없이 이의 통제는 절대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전 : 朴喜沃 參議 『第15回中樞院會議議事錄』, 1934년〉

10) 참의 장직상(張稷相)³⁾

(상략)

2. 농산어촌의 자력갱생진흥운동은 진정 당당한 스타트를 끊은 후 그 성적이 실로 불만입니다. 각종 계획이 착착 진행되고 있는 오늘날, 농촌에 비해 교육 정도가 높은 도시에서는 경제적 갱생 계획은 실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다만 적게나마 농촌 진흥의 취지에 따라 정신 교화와 생활개선을 주로 하는 경제 갱생을 이차적인 것으로 하는 사회개선을 진행하는 것 이외, 다른 적당한 안이 없어 현재 실시 중인 방법을 쓰게 되었다. 그러나 위원제도를 만들고 혹은 정 조합을 개선하여 이 단체가 신사를 중심으로 정신 교화, 생활 개선에 도움을 주고, 정치의 주지, 교통·위생·보건 등에 노력하여 도시의 민심 작용을 강구해도 성적은 농산어촌의 자력갱생운동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이것의 구체적 방책은 매우 곤란하여 오늘날 국기 계양이 점차 보급되는 정도입니다. 이상의 실적에 비추어 봐도 현재 행하고 있는 강연, 그 외 각종 교화 시설에 병행해서 다음과 같은 행사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 데몬스트레이션

선전 혹은 금주의 날 등, 그때그때의 행사에 대해 국민 일치하여 대대적인 국민운동을 일으키되, 항상 학교를 총동원하며 가정을 움직여 철저하게 하고, 운동의 전후 장기간에 걸쳐 신문사 등과 연락하여 선전에 애쓰고, 그렇게 벌인 행사를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3) 서면답신.

연속적으로 실시하여 민심의 긴장을 촉구합니다.

2) 비상시 인식

국방의회는 지금이야말로 전 조선 각지에 설립되었고 비상 시 일본을 깊이 인식하게 하므로 국방의회의 회원 획득 운동에 더욱 박차를 가해, 쇼와 유신의 의식 아래 국방의회를 중심으로 각종 운동 및 사업을 수행하게 하고, 군부 방면의 후원으로 군사 지식의 보급과 국법 문제를 천명하고, 이로써 시국을 선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민심 작용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전 : 張稷相 參議 『第15回中樞院會議議事錄』, 1934년〉

11) 참의 서병조(徐丙朝)⁴⁾

1. 농가갱생계획의 실시 상황을 감안하여 장래 본 계획의 관철을 꼭 필요로 하는 방책

농가 갱생계획의 수립과 동반하여 관민 모두 예의 이 지도를 더욱 장려해가는 것은 기뻐할 현상이라고 하지만, 가장 먼저 그 주체인 농민의 대다수는 문맹으로 여러 이해가 결여되어 지도자인 관공리 또는 일반 소관 사무에 다망을 극도로 하고, 또한 인원 부족을 느끼는 가운데 과연 철저하게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때문에 그에 대한 방법으로는 간이 조직 경영에 관계하여 강습소와 같은 것을 각 읍·면 내에 다수 설치하고 평이한 문자, 계수 등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할 것.(농한기는 주간, 농번기는 야간을 이용하면 편리하다)

2. 농사 지도원으로 보통학교 졸업생을 사용할 것

보통학교 졸업생(남녀 공동) 중에 성행, 학력이 우량한 자를 선발하여 농민의 지도를 충당할 농잠학 및 실습을 속성으로 강습케 하고, 이로 동리, 부락을 주야간 상관없이 순회하여 일반 농업, 부업의 지도, 장려를 이루게 함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보통 상식을 계발하게 하여 졸업생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현재는 물론 장래 농촌

4) 서면답신.

경영, 농민 사상의 건실을 꾀하는 데 다대한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합니다.

3. 군도에 농촌 계발에 임명될 전임 속관을 두고 경찰관 1명을 배치할 것

전 항에 보통학교 졸업생의 지도원만으로는 다소 불충분한 감이 있어 동시에 이를 직접 통솔, 감독하기 위한 전임 소관 1명을 요하고, 배속 경찰관은 농사지도원과 함께 일상 동리를 순찰하여 권업 장려를 원조하는 것으로 하여, 위생관념의 환기, 영업자의 주의, 그 외 행정 경찰의 정신을 설유하게 할 때는 사업 장려상 다대한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이로써 농민사상의 선도 및 범죄 사건의 미연 방지도 되며 혹은 사후에 신속히 처리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4. 세부 농촌 진흥기관의 선도 및 감독의 완전을 기할 것

농민의 자력갱생, 농촌 진흥계획을 실시한 이래, 각 부락 혹은 동리를 단위로 하여 설립한 진흥회류의 존재는 물론 유의하고 또한 그 성적을 대략 볼 수 있다고 해도, 일부에서는 이 조직이 빈약하고 상사의 감독 행위가 잘 이뤄지지 않는 요인으로 왕왕 폐해가 발생한다고 염려합니다. 앞으로는 관에 충분한 감독을 가할 것을 요하는 바입니다.

5. 농민의 선행자를 포상하는 것

대개 악을 징벌하고 선을 포상하는 것만한 것이 없다. 독농자 및 선행자에 농촌의 의범이 될 자를 조사, 포상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여러 면에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략)

〈출전 : 徐丙朝 參議 『第15回中樞院會議議事錄』, 1934년〉

7. 1935년 4월 26~27일, 제16회 중추원회의 의사록

1) 우가키 총독 훈시

때는 바야흐로 시정 25주년을 맞이하여, 기왕의 사업을 회고함과 함께 다시금 장래를 향한 계획을 굳건히 하여서 통치사상(統治史上)에 혁혁한 일신기원(一新紀元)을 구획하여야 할 때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제16회 중추원회의를 개최하여 여러분의 기탄없는 의견을 청취하고 아울러 본부(本府) 시정에 관한 소회의 일단을 말할 기회를 얻은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삼가 천황, 황후 양 폐하께서 극히 평안하시며 특히 황태자 전하께서 날로 건강하게 자라고 계시는 것은 반도 2천만 신민과 더불어 감격하여 경하하지 않을 수 없는 바입니다.

작년 여름부터 가을에 걸쳐 황해도와 남선(南鮮) 일대를 휩쓴 풍수해의 참상이 천황의 귀에 까지 미쳤는지, 삼가 천황, 황후 양 폐하께서 이재민의 어려움을 깊이 걱정하시어 구휼의 마음으로써 다액의 내탕(內帑)을 내리시고, 특히 시종을 남선 지방에 보내시어 친히 이재민을 위문하고 피해지의 실정을 시찰하게 하셨습니다. 또 황태자 폐하께서는 지난겨울에 고령자가 몸을 수고롭게 하는 바를 생각하시어서 90세 이상의 이들에게 진면(眞綿)을 하사하라고 하시어서 은혜를 입은 자가 2,486명에 달하였습니다. 건은곤덕(乾恩坤德)이 실로 크고도 커서 지극히 황송하기 그지없으니 여러분과 함께 더욱 분발하고 성의껏 힘씀으로써 천황의 은혜로운 뜻을 받들 것을 약속합니다.

좋은 이웃인 만주제국(滿洲帝國)은 착착 왕도 낙토(王道樂土)의 건설에 보무를 내딛고 있는데, 마침 만주국 황제 폐하께서 우리나라에 오시어서 일만(日滿) 양 제국 황실의 역사적인 교류가 성대히 이루어지게 된 것은 양 국민 모두 경하를 금치 못하는 바로, 동아의 평화는 새롭게 하나의 초석을 더하였다고 할 수 있으니 진실로 충심의 환영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이에 내외의 대세를 살펴보니 시국이 의연하게 중대하여, 밖으로는 국제연맹 이탈의 확정, 워싱턴조약의 폐기, 통상 무역의 장애 등 수많은 난관에 당면해 있고, 안으로는 정치·경제·교육·사상 등 곤란한 여러 문제에 부딪혀 있습니다. 더구나 작년 가을 이래 각지에서 일어난 재해는 민력(民力)을 소모시킨 것이 적지 않아 국민의 부단한 긴장과 노력이 더욱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관민 상하의 협의에 의해 나라의 기초가 더욱 확고해지고, 공도 정의(公道正義)에 입각한 우리 국시(國是)가 점차 중외에 인정받고

있음은 원래부터 당연한 귀결이라고 믿습니다. 특히 조선의 현상을 자세히 검토하니 병합 이래 25년간 천황의 은택이 두루 반도의 민인(民人)에게 미치고 도처의 산하에 생생한 기운이 흘러넘치고 특히 근년 앞서 말한 것과 같은 중대 시국의 영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반의 시설은 전면적으로 향상 전진하여 능히 당면한 난관을 타개하여 국리와 민복의 증진을 보고 있음은 진실로 마음이 흐뭇해지는 사적(事績)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천만 민중이 모름지기 이 좋은 기운을 벗어나지 않고 갱생의 열매를 더 많이 거두어 폐하의 마음을 받들어 모실 결의를 가지지 않으면 아니 될 것입니다.

반도 다수 민중 생활의 안정을 도모함과 함께 내선평등(內鮮平等), 진정한 제국 신민으로서의 완전한 지위를 획득하도록 하기 위해 1932년 이래 중앙과 지방이 서로 호응하여 착수한 자력갱생, 도시와 농촌의 진흥, 그 중에서도 농산어촌진흥의 사업은, 관민의 일치협력, 관계지도자의 열성봉공(熱誠奉公)에 의해 실시 후 겨우 수년 만에 그 실적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수의 농산어촌민이 점차 종전의 어려운 처지를 탈각하여, 춘궁의 완화, 부채의 경감 등에서 현저한 수치를 보이며 생활 안정의 영역으로 향하고 있음은, 실로 함께 기뻐하지 않을 수 없는 바로서, 그동안 여러분이 능히 민중을 잘 이끌고 유도하여서 본 사업의 진전에 기여 공헌하고 있는 것은, 내가 깊이 감사하는 바입니다. 이와 같이 본 사업의 성패가 반도 대중 생활의 성쇠소장(盛衰消長)을 지배하는 통치상 획기적인 대업임에 비추어, 총독부는 1935년 이래 무릇 10개년을 계획하여 지역 내 7만 여의 농촌 전 마을에 농가갱생계획을 매년 누적적으로 추급하여 실시하는 것이 긴급하다고 판단하였고 본년 초두에 도지사회의를 소집하여 이 근본방침을 확립하고 바야흐로 지금 실행의 단계에 있습니다. 이렇게 다수 농가로 하여금 충분히 갱생의 열매를 거두도록 하고, 또한 생활이 안정됨을 쫓아 향상의 계획을 다시금 수립, 실시함과 함께 문화의 보급을 촉진하고 농산어촌 마을로서의 충실한 협동체를 완성하여, 개인 생활의 안정과 단체 생활의 향상을 촉진, 조성하여 통치의 대업을 완성할 만한 대이상(大理想)을 구체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민중을 유도 계발함에 최적의 지위에 있는 여러분은 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잘 살핀 후, 이 이상을 바로 이해하여 목표를 같이 하고 본 사업의 진전과 확충에 협력하여 반도의 장래에 일단의 광휘(光輝)가 있게 하기를 기약하기 바랍니다.

(하략)

〈출전 : 宇垣總督 訓示, 『第16回中樞院會議議事錄』, 1935년〉

2) 참의 한규복(韓圭復)

(상략)

본 문제에 있어서는 도시 민심 착흥에 관한 위원회의 결의사항도 있기 때문에 무언가 위원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을 터입니다. 나는 위원의 한 사람이므로 가능한 한 간략하게 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신앙 가운데 조선 고유의 것을 대별하면 세 가지로 구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1. 종교적 신앙(佛) : 신라 고려조에는 이 종류의 신앙은 불교에 의해 확립되었습니다.
2. 윤리적 신앙(儒) : 고려 중엽 이후 조선에 이르러서는 이 종류의 신앙의 힘에 의해 사회의 질서가 확립되었습니다.
3. 지방적 신앙 : 천지일월성신(天地日月星辰), 산(山), 물(水), 나무(木), 바람(風), 불(火), 조상 숭배, 서원, 문묘, 개인이나 동리에서 마음대로 신앙하였습니다.

고유 신앙의 복구개신(復舊改新)에는 당분간은 지방적 각종 신앙을 합체하고 대상물을 설치하는 것이 가장 긴급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명칭 하에서 어떠한 형식으로써 이를 제사 지내고 이를 믿도록 해야 하는가가 가장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먼저 여러분의 현명한 의견을 배청(拜聽)하는 것으로 하고 잠시 사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명칭으로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다 하더라도 이는 필경 과도적 시대에 맞게 하는 것으로서, 일종의 신앙생활의 훈련에 불과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귀착점은 황도(皇道) 정신에 이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세계 3대 강국의 하나인 대일본제국이 강국인 까닭은, 병대(兵隊)가 강하고 산업도 발달하고 과학도 진보해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나는 그 이상으로 전 세계에 자랑할 만한 최고의 것으로, 또 강국이 될 수 있었던 대서특필할 만한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국민의 정신이 통일된 것입니다. 종교가 다르고 사상이 다르고 생활, 기타의 정도가 현저히 다르더라도, 국민 전체의 머리는 모두 함께 위대한 신(大御神)의 어전(御前)에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 국민의 마음 둘 곳은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실로 정성된 생활, 밝은 생활을 하는 국민이라고 스스로 자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메이지대제(明治大帝)의 친히 지으시매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의 마음에 통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마음의 진실함(誠)이로구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인간의 마음이 신의 마음과 서로 합하여질 때 비로소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당연히 있어야 할 장소에 있지 않고 우물쭈물하고 있으면 흡사 거지가 집 없이 길거리에서 어슬렁거리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적당한 장소를 택하여 장소를 정함과 동시에 국민으로서 마음을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장소를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략)

〈출전 : 韓圭復 參議 『第16回中樞院會議議事錄』, 1935년〉

3) 참의 현현(玄榬)

(상략)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전문 연구가 없어 속단하여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고유 신앙의 부활을 도모하고 정신생활을 새롭게 함으로써 민중 자체의 심전 개발은 물론 나아가 내선의 정신적 융합이 가능해져 황도정신(皇道精神)이나 신국사상(神國理想)의 실현을 기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조선 고유 신앙에 있어서 신사(神事)의 내용이 일본의 고신도(古神道)와 공통되는 점이 많다고 말하는 것인데, 이는 저도 동감하는 바입니다. 특히 그것을 강하게 느낀 것은 전에 일본에 가서 여러 번 신사(神社)에 참배하였는데 그때 제신(祭神)의 존칭으로 존(尊), 명(命), 주(主), 영신(靈神), 신령(神靈), 주(柱) 등의 명칭은 조선의 신앙의 대상이 되는 신의 이름과 일치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경이로운 것은 제사의 두 번째 의의로서 ‘マチ’라고 하는 어원의 해석은, 조선의 ‘마지’의 뜻과 완전히 동일하다는 것에 생각이 미쳐 고유 신앙의 부활을 도모하는 것은 우연한 것이 아니라고까지 믿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조선 민중에게 심전개발, 신앙심의 계배(啓培)를 위해 고유 신앙의 부활을 도모하는 것은 여러 의미에서 긴급하고 또 묘안처럼 생각됩니다. 앞서 총독 각하의 훈시에서 말씀하신바, “경제 계획을 진전시킴에는 기초를 정신생활의 향상에 두고 또 도의 일본의 신사회는 무릇 이 정신적 기초에서 결성 보장되어야 함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고 하신 그 뜻을 드러내는 방도라고 생각합니다.

〈출전 : 玄榘 參議 『第16回中樞院會議議事錄』, 1935년〉

4) 참의 박상준(朴相駿)

반도에서의 선량한 고유 신앙의 부활 정책에 관해서는 본년 1월 ‘도시에서의 민심의 작흥을 도모할 구체적 정책’에 대해 위원회로부터 답변한 것 가운데에도 적혀 있습니다만, 요컨대 저는 그 시설의 여하보다도 결국은 인물의 여하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일본에서 종교가나 그 방면의 권위자, 그 중에서도 반도 민중의 심전 개발을 필생의 사업으로 하는 대가를 초빙하여, 그 사람을 중심으로 그 사업을 이해하는 조선인과 일본인을 다수 망라하여 충분한 기본 재산을 바탕으로 유력한 신앙 부흥의 단체를 조직하고 기초를 견실하게 하여 다음과 같은 시설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기독교에 신학교라는 종교 전문의 교육 기관이 있는 것과 같이, 이 단체에도 고유 신앙을 주로 하는 종교적 교육 기관을 설치하여 선량한 지도자를 양성할 것.
2. 선량한 리더의 준비가 이루어지면 각 지방에 신앙 복구에 관한 설교기관을 설치할 것.

그리고 설교의 방법이라고 한다면, 강연 이외에 평이한 팸플릿을 배포하여 이를 각 사람에게 반드시 읽히고 또 실천궁행(實踐躬行)의 모범을 일반에게 보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조선 민중 대다수의 신앙이 마비되어 있는 각종의 원인과 근인을 개략적으로 말하면,

1. 과거 5백년이라는 긴 기간에 조선 민중은 교육의 근본인 유교를 존중하고 종교의 가르침인 불교에 대해서는 여러 압박을 가하였기 때문에 과거 3백년간 불교계에 인물이 나오지 않은 것.
2. 과거 수백 년 동안 문란한 기풍으로 상하 모두 오직 이세(利勢)를 따르고 떠돌아다니는 데에만 노력하였기 때문에 인생의 안심입명(安心立命)이라고 하는 신앙 문제는 전혀 잊고 있었던 것.
3. 청일전쟁부터 러일전쟁 무렵까지의 조선은 과도기 중의 과도기여서 이 시대에서는 소위 일종의 신진(新進)의 기풍으로 고유 신앙의 파괴가 하나의 혁신인 것처럼 오

해하고 있던 자가 많았던 것.

이상의 세 가지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고유 신앙을 부활하는 것은 상당히 곤란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있어서도 부녀자를 비롯하여 시골의 순박한 농민은 아직 각자의 심전에 신불(神佛), 양도(兩道)의 고유 신앙이 잠재해 있고 그나마 한줄기 갱생의 기운을 갖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유력한 단체 및 선량한 지도자의 준비가 완료되고 실행운동에 착수한다면 이 운동은 반드시 예상한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컨대 인물의 준비 없는 시설은 무리가 생기므로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급하게 공을 세우려 하지 말고 백년대계로써 연구를 거듭하여 준비함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략)

〈출전 : 朴林駿 參議 『第16回中樞院會議議事錄』, 1935년〉

5) 참의 신희련(申熙璉)

저는 1933년 제14회의 본원 회의에서 자문 사항의 답변 이외에 지방 사정의 일단으로서 민중의 신앙심 배양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진술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하 민심의 작흥, 시국의 대처, 농산어촌의 진흥, 기타 지금까지의 조선통치를 특별히 초월한 모든 선량한 정책을 한층 더 효능 있게 만들어 영원한 토대로 삼는 데에는, 사람의 힘만으로는 부족하고 사람 이상의 힘 즉 종교적 신앙심의 힘에 의뢰하는 것이 필요함을 통감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후 각 계급 각 방면을 통틀어 이 소리가 고조되고 특히 총독 각하께서 이번에 조선인과 일본인 불교 각파 대표자를 관저로 초대하여 간절히 불타(佛陀) 신앙의 재흥(再興)을 강조하셨다고 하는 것을 신문지상에서 배견(拜見)하고 지금 또 본 회의에 이를 자순하시며 참으로 진지하고 열심이심을 뵈고, 실례되는 말씀이지만 미리부터 이 방면에 의견을 갖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매우 마음 든든하게 느끼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신앙이 조선 민중을 위해 적당한가, 또 현존 여러 종교 이외에 별도로 고대로부터 전해오는 고유 신앙 가운데에서 대조 선택하여 적절히 지도하고 계배(啓培)를 가함으로써 민중의 심전개발의 근원으로 삼을 것인가를 자문의 핵심 내용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조선 고유의 종교적 신앙이라고 하면 불교 외에는 없는데, 조선 태종왕

의 시대에 극단적인 배척을 받았고 이후 몇 백년간 승려는 반도 사회의 일민(逸民)으로서 처리된 관계로 일반에 신앙하는 자가 없습니다. 또 신도교(神道教)나 기독교는 그 후 중엽 세기에 전래된 것으로 이 역시 말하기에 족하지 않고, 기독교는 고종조 때 구미 제국과의 외교 관계가 성립하면서부터 점차 융성하여 지금은 상당한 세력을 부식(扶植)하기에 이른 것입니다만, 많은 신도가 사회적으로 한 단계 아래의 계층인 자들이고 처음에는 어느 정도 서양 사상을 배경으로 하여 신교(信教)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되었지만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색채도 보이지 않는 반면 또 특별히 일반이 신뢰하여 자랄 정도의 것도 아닙니다.

(하략)

〈출전 : 朴林駿 參議 『第16回中樞院會議議事錄』, 1935년〉

6) 참의 원덕상(元惠常)

신앙의 중심 본체는 경신숭조(敬神崇祖)로, 우리 국민은 일상의 생활을 ‘성스럽다’고 보고 또 현 시대를 숭고한 신의 세계라고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로부터 조선은 멀리 고한시대(古韓時代)에는 신국(神國)의 소지(素地)가 충분히 정비되어 있었지만, 그 후 시대의 변천에 따라 정신제도 역시 여러 변화를 겪어 오늘날에는 표면적으로는 일관된 신앙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반면 민간의 신앙을 되짚어 아주 자세히 이를 음미하면, 확실히 그 밑바닥에 끊이지 않고 복류(伏流)하는 경신숭조의 신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건대 고한시대에 군주가 총람(總覽)한 정사(政事)를 비롯하여 신민(臣民)의 생활 상태는 완전히 신의 세계를 보여주었으니 ‘성스러움’은 상상하기에 어렵지 않은 바입니다. 그러므로 조선 개발의 도상에 극히 긴요한 심전 개척을 위해서는 이 신념을 환기하고 신앙을 부흥시키고 또 이를 올바르게 지도하여 이끌어서 2천만 민중으로 하여금 확고부동하며 일관된 안심입명(安心立命)을 가슴에 지니도록 함은 극히 긴요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덕을 세우고 부를 이루는 입덕치부(立德致富)의 근원도 여기에서 싹틔우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무릇 경신숭조의 신념은, 조상의 은혜에 보답한다는 깊은 뜻을 포함하며 각종의 종교·교화·철학·사상 등을 초월하여 정치·경제·교육 등 전체에 걸쳐 최고의 지도 원리입니다. 이 신념이 함양 보급되면 민심의 추세가 완전히 일변하여 크게 생기를 불러

일으키고 화평통일(和平統一)을 초래할 것임은 명백한 사실로서, 진실로 기사회생의 교묘한 수단 또한 이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와 같은 경지에 도달함에는, 우리나라 황도정신의 대도(大道)에도 합치하고 일시동인의 성지(聖旨)도 철저하게 되고 내선합일, 상근일가(桑椹一家)의 결실도 거두어져서 하나의 큰 이상향이 출현하는 것도 결코 지난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한병합 이래 이러한 사상에 계속 진력을 다하였고 특히 오늘날의 총독 정치에서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조직·지도 모두 잘 되고 있어서 한촌육화(寒村浴化), 만민소생(萬民蘇生)의 은택을 감사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 가을을 맞아 백척간두의 한 걸음을 내딛고 더욱이 심전 개척 문제에 마음을 기울이고 있음은, 실로 감격스러울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의 근본, 인간 생활의 중심인 경신숭조의 신념을 양식으로 주어, 이 배고픔을 치유하고자 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마른 하늘에 비를 바라는 것과 같아서 한번 운택한 비와 이슬의 은택을 입으면 홀연히 소생하여서 한층 더 위대한 효과와 업적을 가져오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로써 한 집안의 화평 통일로부터 마을의 화평 통일에 미치고, 나아가 점점 읍·면·군·부·도로 확충되어 드디어 전 조선의 화평 통일을 바라고 도모하는 첩경이 뒹은 논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신숭조로써 신앙의 중심 본체를 주창하는 이유입니다.

(하략)

〈출전 : 元惠常 參議 『第16回中樞院會議議事錄』, 1935년〉

7) 참의 김사연(金思演)

(상략)

다만 종래의 통치방침을 보면, 하세가와(長谷川) 총독은 데라우치(寺內) 총독의 연장 이었고 야마나시(山梨) 총독은 사이토(齋藤) 총독의 연장이었습시다만, 이번의 우가키(宇垣) 총독은 과연 어떠한 정책을 채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반도의 민중이 크게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생각대로 현 우가키 총독은 착임 이래 물심 양 방면에서 극도로 피폐해진 우리 반도 민중을 소생시킬 양으로 자력갱생·심전개발 등의 표어를 제창하여 물질적, 정신적으로 가속도를 내어 진척시켜, 어둠던 반도의 산하에는 햇살이 비친 감이 있습니다. 반도의 민중이 생각하기를, 우가키 총독은 과연 민족적 제국주의,

즉 과도시대의 식민 정책에서 벗어나 일시동인의 성칙(聖勅)을 받들어서 자타의 구별 없이 대우주의 정신에 기초한 인류애의 정치가이며 종교가이다라는 인식하에 정신적으로 감복되어 환호작약하고 있으니 사상계에 일대 충동을 주었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라도 부정할 수 없는 바입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는 반향(反響)의 실정이 있으니 이하 기탄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인의 지식 계급을 총독정치에 대한 타협·비타협의 두 파로 구분하여 그 사상의 동향을 본다면, 타협파에 속하는 자 즉 관공직, 기타 직접 총독 정치의 은혜를 받은 자조차도 부지불식간에 원망과 저주를 드러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된 이유로는 정책 정신에 모순되는 대우와 기회 균등, 지위 향상, 노무 보수 등의 차별에 의해 일가 생활의 안정을 꾀하기 어려워 불평과 불만이 잠재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비타협파 즉 총독정치에 직접 관계없는 인사는, 정책의 선악에 하등의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가키 총독의 정령과 정책은 진실로 찬미를 아낄 것이 아니지만 이를 응용하는 정치 기구의 상하 관료의 정치적 정신이 근본적으로 민족적 제국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우가키 총독의 정령과 정책이 근본정신 그대로 반도의 민중에게 직접 전하여지기는 참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만주사변·연맹 탈퇴 등의 문제를 인식하는 지식 계급의 심경을 엿보아 살펴보면, 연맹 탈퇴는 오늘날 일본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당연한 조치이며 일본이 동양의 맹주라 해도 만약 일본이 고립되게 된다면 독일과 같은 운명이 될 것이고 또 일본과 미국이 전쟁을 하게 되면 조선은 그 때 독립한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는 자가 있어 참으로 유감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최근에는 독립 운동을 일으키는 자가 적어졌습시다만 이는 이들이 공산당원이 되었기 때문으로 이들의 감화는 당장의 중대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주 문제에 있어서는 고래로 조선인의 인연 지역인 관계상 이곳에 대한 미래의 희망은 크고 현재 조선 민중의 진출 개척지로서 원대한 이상을 갖고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단지 현재 만주국의 인식 부족과 일본계 관리의 영합 정책 때문에 자칫 조선인을 확대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동향이 있는 것은 실로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또 이러한 것들로 하여 벌써 만주에 있어서 활동 무대를 잃은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왕왕 있지만, 이것도 큰 오해이므로 잘 이해시키기 위해 노력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출전 : 金思演 參議 『第16回中樞院會議議事錄』, 1935년〉

8) 참의 유태설(劉泰高)

(상략)

조선인과 일본인의 융화는 통치 상 가장 중요 문제임과 동시에 진실로 일가를 결성할 정도에 이르는 데에는 꽤 시일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일반 정세의 호전과 동시에 요즘 화목의 정도가 점차 커지게 된 것은 다수의 실례에 비추어 보아도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례를 들자면 1933~34년 중 함남에서 조선인과 일본인의 결혼 수를 보면, 일본인 남자와 조선인 여자와의 결혼 수는 1933년에 64쌍이었지만, 1934년에는 71쌍으로 증가하였고 또 조선인 남자와 일본인 여자와의 결혼 수는 1933년에는 16쌍이었던 것이 1934년에는 22쌍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내선일가(內鮮一家)를 결성하는 길은 서로 결혼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위와 같은 결혼 수의 증가는 화목의 정도를 보여 주는 좋은 사례로서 이제 더욱 더 그 수가 많아지도록 노력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나아가 생각건대,

첫째 조선에서 서양자(婿養子)의 제도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는 오직 내선융화의 문제에 관해서만이 아니라 조선 내에서도 종래 그 희망자가 많이 있던 것입니다. 시험적으로 함남에서의 사례를 보아도 조선인으로 일본인의 서양자가 된 것은 1933년에는 3건, 1934년에는 2건이 있는데, 일본인이 조선인의 사실상의 서양자(법률상의 효과 없음)가 된 것은 1934~34년 중 겨우 1건 있을 뿐입니다. 생각건대 그 수의 근소한 것은 조선에는 관습상 서양자의 제도가 없고 또 조선인에게는 종래 성(姓)을 바꾸는 것이 관습상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속히 이 제도를 고쳐 서양자에 관한 새 법령을 만들어 일반의 결혼을 장려함과 동시에 내선 상호간에 법률상 유효한 서양자가 행해지는 것을 독려하며 동시에 조선인 사이에 있던 종래의 희망에도 부합하도록 하는 것이 동화를 위해서 최선의 방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조선인과 일본인 잡거(雜居)의 장려입니다. 많은 도시는 일본인 부락과 조선인 부락이 별도로 있습니다. 무릇 융화의 길은 장소적 근접과 빈번한 교제에 따르므로 잡거제(雜居制)의 장려는 융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로, 융화를 강구하는 길은 우선 재조선 일본인에게 충분한 주의를 주어, 조선인을 대할 때 일종의 경시하는 관념을 제거하여 적어도 일본인을 대하는 것과 동일한 심리 태도를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말할 수는 있지만 행하기는 어렵고 또 소소한 문제인 것 같습지만, 무릇 사람에 대한 마음의 좋고 나쁨은 만나자마자 시작되어 이윽고

화목과 소격(疏隔)의 분기점이 되는 것입니다. 조선인 사이에 종래 꺼려하는 ‘요보’라는 말을 근래 일본인 가운데 사용하는 자가 격감한 것은 기뻐할 만한 현상입니다만, 그러나 아직 가령 기차 등에서 실험한 바에 의하면 우리가 조선 옷을 입었을 때와 양복을 입었을 때에 따라 처음 만나는 일본인과 접하는 경우에 그 말과 태도에 큰 차이가 있음을 느끼는 것입니다. 자기편을 만드느냐 적을 만드느냐의 첫째는 각자 자기의 태도 여하에 달린 것이기 때문에 재선 동포애의 표어라든가, 부산에 최초로 상륙한 일본인에게 이 점에 관한 주의서를 건네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써, 이 점에 주도면밀한 주의를 주어서 친목의 결실을 거두기를 바랍니다.

넷째는 보통교육기관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배우지 않으면 무지를 가져오고, 무지는 의심을 부르고, 의심은 이욕고 의사의 소격(疏隔)을 부르는 근원이 됩니다. 보통학교 1면 1교(一面一校) 계획은 이미 완성기에 가까워졌고, 널리 환희로써 받아들이는 간이학교(簡易學校)는 크게 확장되어 문맹 퇴치의 효과가 크지만, 아직 미취학의 학령 아동이 많음에 비추어 반드시 이러한 종류의 기관을 확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무릇 융화를 해치는 암은 불평입니다. 따라서 불평이라는 암을 제거한다면 융화는 쉬운 것입니다. 이것이 내선융화 해결의 근본 문제인 것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평의 근원은 욕망의 불만으로, 정치적·지위적·명예적·경제적 방면에 걸쳐 가능성이 있는 한 반도민의 희망을 용인하는 것이 융화의 근본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전 : 劉泰高 參議 『第16回中樞院會議議事錄』, 1935년〉

9) 참의 박철희(朴喆熙)

이번 회의 자문사항에 대해서는 앞서 서면으로 답신을 드렸습시다만, 이 기회에 민심의 추이와 그 선도책 또는 내선융화 등에 대해 저의 의견의 일단을 말씀드려서 앞서의 서면 답신의 부족한 점을 조금이라도 보완하고자 합니다.

민심의 동향, 사상의 경향에 관한 지도 원리가 박약한 것은, 조선만의 문제가 아니고 또 일본만의 문제도 아니며 바로 세계적인 문제로서, 천학(淺學)한 제가 왈가왈부할 바는 아닙니다. 다만 조선의 특유한 사정에 대해서만 짧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조선 민중을 정치적으로 귀의시킬 것인가, 달리 말하면 어떻게 하면 조선 민중을 무반성적인 정치적 이반(離反)으로부터 구해 낼 것인가의 문제가 무엇보다도 선결 문제라고 생

각합니다. 총독 정치에 대한 민중의 신뢰심이 박약하다면 내선융화는 도저히 바랄 수 없는 것이고, 내선이 완전히 일가를 이룰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제국 장래의 국운 진전에 중대한 장애가 될 것은 물론 조선 민중의 장래는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선인의 아들이고 손자인 저는, 이 문제를 생각할 때 실로 일종의 말로 설명하기 힘든 불안을 느끼는 바입니다. 이는 결코 매명적(賣名的)인 내선융화론이 아닙니다. 조선인을 위해 이를 주장하고 동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바로 내선융화를 간절히 희망하는 것입니다. 내선융화는 내선동화의 선행 단계입니다. 근년 내선동화 불가론자조차 있는 듯합니다만 저는 공명할 수 없습니다. 고래로 각 민족의 관계를 역사에 비추어 보아도 많은 민족이 서로 사정이 허하는 범위 내에서 융화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동문동족(同文同族)인 내선민족이 왜 화합되지 않는가. 근래 내선동조론(內鮮同祖論)은 역사상 더욱더 명확한 사실로서 인정받게 된 것 아닙니까. 내선 양 민족의 사이에는 오직 풍족(風族)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어떠한 수단, 방법을 쓰더라도 그 화합을 도모하지 않으면 병합의 성지(聖旨)에 부합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양 민족을 위해 진실로 불행한 것이 됩니다. 직접 조선 통치를 담당하고 있는 당국 여러분께, 실례이지만 특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는 바입니다. 물론 현재에도 내선융화에 대해서는 관민(官民) 각 방면에서 진력하고는 있지만 지금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필요를 통감하는 바입니다.

현재 조선 민중은 정치적 제반 시설을 똑바로 바라볼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한 자가 많습니다. 이들 민중은 어떠한 선정(善政)이라도 그에 관심을 갖지 않으며 오직 복종의식이 작동하고 있을 뿐입니다. 시정(施政)의 요체는 힘으로 위협하는 것보다는 이치로써 설득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민중으로 하여금 마음으로부터 그것에 열복(悅服)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때문에 새로운 시설을 행함에 앞서 견식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각지에서 책임 있는 강연을 하도록 하고 새로운 제도를 수립하는 이유와 득실을 민중에게 충분히 이해시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동시에 이것이 현재의 조선 대중을 정치적으로도 접근시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는 일면으로 번잡한 것이지만 조선의 현상에 비추어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근한 일례를 말씀드리면, 보통학교 생도의 근로 교육에 대해서 각 지방에서는 종종 학부모들 사이에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아동으로 하여금 농사일만을 시키고 학업을 소홀히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고 있는 바도 일리가 있지만, 이는 근로 교육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 나온 것입니다. 조선의 현상에서는 학리(學理)를 탐구하는 교육보다도 피폐한 농촌을 구하는 근로 교육이 필요한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는 교육 보급과 동시에 점차 완화될 터이지만 응급적 시

정 선전의 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락)

〈출전 : 朴喆熙 參議 『第16回中樞院會議議事錄』, 1935년〉

10) 참의 최린(崔麟)

저는 조금 느낀 바가 있으므로, 별도로 의견이라고는 감히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저의 한 가지 바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총독 각하, 정무총감 각하의 훈시를 듣고 또 각 국과장(局課長)의 소관 사무 설명을 듣고, 이 반도 계발을 위해 또 이 가련한 조선 민중의 복리를 위해 이렇게까지 여러 가지로 걱정해 주시는 것은 진실로 감사한 일로서 실로 감격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맹자의 가르침에 자신이 만든 죄는 구제할 수 없다고 한 것과 같이, 조선인으로 하여금 오늘날의 상태에 있게 한 그 허물과 죄는 모두 조선인 자체에 있는 것입니다. 즉 조선인 스스로 구제되지 않는 죄를 만든 것으로서, 이는 흡사 자신의 과실로 깊은 강에 빠져 들어간 것과 같은 것입니다. 게다가 자신의 허물을 깨닫지 못하고 헛되이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질투하고 있는 것은 실로 유감스러운 바입니다. 조선인 가운데에는 오늘날에도 자신이 만든 죄과(罪過)를 깨닫지 못하는 자가 아주 많습니다. 이 상태의 조선인에 대해서는 아무리 자력갱생이라는 것을 부르짖어도 과연 자력으로 갱생할 수 있을까 없을까, 저는 심히 불안한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자력이라는 말에 대해 말씀드리면, 자력의 반대에는 타력(他力)이 있고 타력의 반대에는 또 자력이 있기 때문에 이 자력과 타력은 두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에서 농산어촌의 갱생운동은 오직 자력만으로는 상당히 어려우며 당국의 힘 즉 타력도 넣어주시지 않으면 모처럼의 갱생운동도 중국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곤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평소에는 힘써 자력갱생이라는 것을 고창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이 상의하달(上意下達), 하의상달(下意上達)의 자리에 한하여 자력갱생보다도 타력갱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부탁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특별히 잘 살펴주시기를, 저는 부끄럽게도 눈물로써 간절히 부탁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출전 : 崔麟 參議 『第16回中樞院會議議事錄』, 1935년〉

11) 참의 어담(魚潭)

신앙심의 부흥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유교를 부흥시키는 것도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유교는 동양 고유의 것이고 또 만주국이 건설된 이래 동양 도덕이라고 하는 것이 더욱더 필요하게 되었으니 이의 함양을 도모하는 것이 가장 급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이상으로는, 고유의 유교를 부흥시키고 화학문명(化學文明)은 구주(歐洲)의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학교의 교과서에 윤리과를 반드시 한 과목 증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육(智育)은 매우 진보하고 있습니다만 반면에 덕육(德育)은 매우 폐퇴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래 부모 자식 간의 소송이 격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도 법률로써 제재를 가하든가 또는 이와 같은 것을 수리(受理)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생각합니다.

또 부부의 이혼 소송도 매우 많아지고 있는데 이는 부부가 이혼하는 것을 수치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컨대 수치를 모르는 것은 결국 윤리를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무심(義務心)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국민으로서 국민의 의무를 알지 못한다면 도저히 충량한 국민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조선인은 아직 병역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병역의 의무를 지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을 지키는 데에 언제까지나 병사를 일본으로부터 데리고 오는 것은, 국가로서도 그다지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부를 조선인으로 부담시키는 것은 갑작스럽게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서서히 진행시키고 처음에는 몇 분의 일이라든가 하는 방식을 정해 일본인과 조선인으로 하여금 공동생활을 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학교의 부족도 상당 부분 보충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즉 군대 교육이라는 것은 평상시에는 하나의 학교와 같은 것이므로, 군대를 나오면 보통학교 3, 4년생보다 훨씬 더 학력이 우수한 자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부담할 힘이 아직 그 정도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한다면, 부분적으로 가령 경성(京城)이라든가 개성(開城)이라든가 하는 지역에 한해 이를 실시하고 서서히 넓혀 간다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출전 : 魚潭 參議 『第16回中樞院會議議事錄』, 1935년〉

8. 1935년 4월 26~27일, 제16회 중추원회의 참의 답신서

1) 참의 김병규(金炳奎)

(상략)

제2문 각지의 사회가 표면상으로는 병합 당시와 비교하여 민심이 점차 일어나고 민도(民度)는 향상되고 질서가 안정되어 성대(聖代) 문화의 기상이 현저함은 매우 기쁜 일이나 반면 그 내용을 보면 여전히 불온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감히 기탄없는 답신을 보내니 참고해 주길 바랍니다.

1. 사상의 동향

병합 당시 국권회복 민족 자유를 부르짖는 사상운동은 상당히 치열했으나 당시의 상황을 돌이켜보면 단지 일부의 불평분자의 선동에 의한 것으로 실제로 동양의 대세를 통찰하는 유식계급은 오히려 은인자중의 태도를 견지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년에 이르러 사상 방면에 전환이 일어나 이른바 파괴주의, 공산주의 등의 침입, 선전과 함께 무산계급에 속하는 일부 청소년의 경거망동에 의한 불상사를 야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들의 대부분은 신앙 관념이 결여된 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실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양 도덕의 근원인 유교를 대동단결하에 진흥시켜, 전면적 교화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2. 조선인과 일본인 융화의 상황

이에 관해서는 일시동인(一視同仁)의 성념(聖念)을 받들어 당국이 주도하게 융화 선도하고 있음은 반도민들이 모두 경하해 마지않는 바이나 왕왕 의식이 천박한 불평분자의 선동적 구실이 되는 것을 보니

- 1) 조선인과 일본인 관리 대우 차별에 의한 가봉(加俸) 문제 및 조선인 학생의 입학률의 근소함, 수업 후의 취직률의 낮음 등
- 2) 조선인에게도 의무교육을 적용하고 각종 학교장은 가능한 한 조선인을 많이 임명할 것. 초등교육기관의 입학난 완화책으로 학급을 증설할 것
- 3) 조선인 노동자의 도항증명제도의 철폐 및 태환권(兌換券), 연초 등의 지역제한(限

地) 제도를 철폐할 것. 이는 같은 국민이라 하면서 어디까지나 외국인 취급을 하는 것과 같으니 용화상 큰 결함이라 사료됨.

위의 3건은 내선용화상 하나의 장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라건대 시정 및 치안에 방해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이를 채택, 개선해 주는 것이 급무 중의 급무라 생각합니다.

3. 의례준칙 실시 상황

수년 동안의 현안인 본건은 드디어 작년 11월 10일자로 발표되었고, 그 사이에 본부 및 도 군(道郡) 당국의 간절한 지도, 장려로 착착 진행되고 있음은 가장 시의적절한 시설로서 무엇보다 기쁘게 생각합니다.

4. 농산어촌의 진흥운동과 그 후의 진보상황

소농 또는 어업자로 자본금이 부족한 자에게는 조합을 통해 개량 농구, 어구 등을 대부하고 또 자작농 창출, 저리 대부 등은 모두 일반 민중의 복리 증진을 위한 것으로 감격해 마지않으나 내선 미곡현안 또는 선만(鮮滿) 관세문제 등은 산미계획, 판로 확장에 큰 영향을 끼치는 문제이므로 시급히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여 수출 초과에 힘써야 합니다. 그 대책으로는

1) 화학비료보다는 퇴비를 장려할 것

화학비료는 응급의 방법으로 토지를 비옥하게 하는 성분이 부족할 뿐 아니라 대금 지불도 매우 곤란하지만, 퇴비는 영구적 효과를 지속하고 토질을 더욱 비옥하게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2) 놀고먹는 자(游衣遊食者)에 대한 단속 방안을 강구할 것

타성에 젖어 생활의 방도를 가족에 의존하고 있는 놀고먹는 불량분자는 철저히 단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이를 방임하면 선량한 사람들에게도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3) 국민정신 작흥(作興)의 강연회를 힘껏 실시할 것

농촌 개발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적절히 지도, 장려해와 점차 현저하게 자각하게 된 것은 기쁜 일입니다. 앞으로는 지도 방면을 전환하여 국민의 의무와 온건한 사상 함양에

힘을 다해 유언비어에 혹하지 않도록 누차 강연회 또는 좌담회를 개최하여 크게 봉공의 식을 고취해야 합니다.

(하략)

〈출전 : 金炳奎 參議 『第16回中樞院會議參議答申書』, 1935년〉

2) 참의 신희련(申熙璉)

(상략)

1. 사상의 동향 및 조선인과 일본인 융화에 대해

최근에 조선 민중의 심경은 정치, 경제, 교육, 사상, 기타 각 방면에 대해 바르고 새로운 관찰을 하여 이성적인 장래를 열려는 기운이 짙다고 들었다. 특히 사상 방면에서 현저한 전향의 징조가 많음을 무엇보다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 일례를 들면 종래 일본에 대해 강한 반감을 갖던 민족주의자조차도 종래의 불령사상을 버리고 전향하고, 사상단체 중 '요주의자'로 지목되는 곳도 종래의 태도를 바꾸었고, 공익사업 또는 가업에 분주한 자 또는 좁은 마음을 가져 어쨌든 총독정치를 비방, 반대하거나 일본인에 대한 언행 모두 불온하여 공직 및 농촌진흥회 방면에 전혀 관계가 없던 자도 최근에는 이에 참가하여 노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만주사변, 국제연맹 탈퇴가 그들에게 큰 자극을 준 것이기도 하지만, 병합 후 25년을 거쳐 여러 파란을 경험하면서 일본에 대한 인식이 점차 민중들을 자각시키기에 이르렀고 또 지금까지와 같이 정복적 색채를 띤 통치를 넘어 매우 열심히 온건한 시정은 민중들의 실제 생활을 배려하고, 농산어촌진흥운동, 공민(窮民) 구제사업, 사회적 의례의 개정, 민간신앙의 보급 유치 등 민심에 좋은 영향을 준 것 덕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세하게 조선 사상계를 검토 음미해 볼 때 이러한 전향, 이러한 안도가 만족할 만한 것인지 아닌지는 크게 생각해 볼 일입니다. 혹자는 현상이 어떠한 손을 쓸 수도 없어 경거망동을 할 수도 없는 소위 정신 위축에서 나온 전향이라고도 하고, 혹자는 좋아서 한 것이 아닌 체념에서 나온 전향 내지는 만사포기식의 이른바 자포자기적 전향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에 일한병합의 대정신을 재음미하고 조선인과 일본인 혼화(渾和) 일원일체(一元一

體)의 효과를 거두는 것이 무엇보다 급무라 생각합니다. 병합 후 25년이 경과된 오늘날 새삼 이 같은 말을 하는 것은 이미 자리 잡은 조선 통치에 관한 천황의 크신 마음에 대해 매우 송구하나, 이 내선융화문제는 지금의 조야에서 많이 논의되는 것이므로 솔직히 의견을 개진해 보겠습니다.

본인의 우견(愚見)으로는 과거의 병합은 형식에 의한 제1병합이며, 오늘날은 정신에 의한 제2병합의 병합을 완성할 시기라 생각합니다. 본 문제는 조선 혹은 조선과 일본 관계와 같은 일방적 문제가 아니고 실로 대일본제국의 장래를 좌우하는 대문제로 간단히 대책을 말할 수는 없고 깊은 고려가 필요함은 물론입니다. 이에 번잡함을 피해 중요한 두세 방책을 대강 말해 보겠습니다.

- 1) 교육 방침은 사정이 허락하는 한 좀 더 조선인과 일본인 널리 혜택을 받도록 할 것.
- 2) 종교는 자유롭다 해도 조선인과 일본인이 결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할 것 (앞 답신의 신도(神道)와 같은 것).
- 3) 조선인과 일본인 결혼을 법률적으로 인정하고, 가능한 한 호적법을 개정하여 내선 공동의 것으로 할 것(헌법 제16조에 일본 신민의 요건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어, 이 관계에서 일본인의 대부분은 조선에 거주하는 것을 일시적인 것으로 여겨 만사에 진지함이 없는 예가 많다).
- 4) 일본으로 도향한 조선인에 대해 특별한 시설기관을 두어 갱생의 길을 강구토록 할 것.
- 5) 내각이 바뀌면 조선 총독도 바뀌고 조선 총독이 바뀌면 정책의 대강도 바뀌는 일이 없도록 할 것.
- 6) 일본인이 투기적 야심으로 조선에 와 일확천금을 꿈꾸고 이를 위해서는 어떤 수단도 가리지 않고 방약무인 행패하는 등의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할 것.
- 7) 내선융화의 정신적 혼일(渾一)은 위정자의 손만 기다리지 말고 개개인이 비근한 행동으로 실현하도록 일층 강하게 유도 훈련할 것. 이 사례로서 감격적인 최근의 실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함경남도 안변군(安邊郡) 문산면(文山面) 거주

나카모토 류조(中本隆藏) 50세

위 사람은 1914년 하루지(春寺) 농장의 농감(農監)으로 현지에 왔는데 와서 얼마 되지 않아 조선의 부인과 결혼하여 1남 2녀를 두고 생활양식의 전부를 순 조선식으로

로 바꾸고 조선사람 사이의 교제, 경조사, 동네일 등에 나서서 알선 노력함을 물론 구빈, 자선을 행하고 농량(農糧), 농자금 같은 것도 저리 또는 무조건으로 대부하고, 그 외 농사개량, 민풍작흥 방면에도 진심을 다해 일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선행에 감격한 인근 주민들이 300여 원을 염출하여 큰 기념비를 세우고 이 사람을 위해서는 물불 가리지 않고 달려들 정도로 부근 사람들이 감격하여 경모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자의 신덕(信德)에 감탄하는 마음 외에 조금이라도 일본인, 조선인에 대한 차이를 따지는 마음이 없습니다. 지난 2월 기원절(紀元節)에는 도지사로부터 표창을 받았으니 일선융화의 진정한 정신은 이에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인이 다 이와 같지는 않아 일본인, 조선인이 모두 마음으로 서로 교제하는 것은 특별한 몇몇 독행자가 아닌 한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조선인도 그렇지만 일본인 중에는 매우 비도덕적인 사람이 있어 그 악해가 조선인과 일본인 융화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습니다.

- 8) 조선인은 편견을 버리고 일본인을 이해하고 한 몸과 같이 폐하의 적자라는 대의를 한층 이해시키도록 지도와 자각을 촉구할 것.
 - 9) 종래 꺼림직한 범행을 저질렀거나 요주의자 중에 잘못을 뉘우치고 고치려는 마음이 역력한 경우에는 이를 선도하고 전도의 발전을 도모하게 할 것.
- (하략)

〈출전 : 申熙璉 參議 『第16回中樞院會議參議答申書』, 1935년〉

3) 참의 김사연(金思演)

(상략)

최근 일본인과 조선인의 결혼을 보면 그 통계에서 숫자가 증가하고 있음은 내선융화 친목의 정신에서 경하할 만한 표징이나 조선인과 일본인 혼연일체, 내선일가의 결성을 기하기는 아직 전도가 요원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례준칙의 실시 상황을 보면 조선시대(李朝) 중후기의 불철저한 정치의 유물로서 소위 동서남북의 파벌 관습이 다르고, 재래의 의례를 준수하려는 계급에서도 의례의 제정자인 조상숭배의 태도에 따라 각자 존봉할 의례가 달라 이 의례준칙이 철저하게 실시되려면 민중의 자각심을 촉진하

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봅니다.

이상을 요약하면 조선인의 사상 및 전체의 동향은 시정 이래 각종 물질적(物的) 시설과 함께 현저한 진보와 안정을 이룬 것은 누구라도 부정하기 어려운 사실이나, 조선의 개발, 조선의 복리 증진 내지 조선의 갱생은 조선인 자체의 인간성 개선, 인격 가치의 향상과 함께 일본인에게는 우월감을 근본적으로 반성 자각시키고 정신적으로 융화, 결합하여 우리의 영원한 이상을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현재처럼 조선인을 끊임없이 지도, 감독하는 하에서는 특히 자립, 자각으로 현상을 타개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당국은 조선인의 인간성의 개선, 인생관의 확립 등 인간으로서 바르고도 강한 신앙을 지킬 수 있게 하는 시설에 대해서 일층 조장책을 단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다년의 인습에 사로잡힌 옛 생활을 타파하고 새롭게 생긴 형태에 기초하여 생활개선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정신을 이해할 수 없는 국부적 장려, 예를 들면 색깔 옷을 강제하는 것 같은 것은 거의 효과가 없고 쓸데 없이 민중의 감정만을 상하게 하는 것으로 피차를 혼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출전 : 金思演 參議 『第16回中樞院會議參議答申書』, 1935년〉

4) 참의 유태설(劉泰嵩)

(상략)

1) 유교

조선은 예부터 동방예의지국이라 칭해지고 유교는 가장 오래되고 가장 널리 보급되어 특히 조선(李朝)에 이르러 거의 국교가 되고 불교를 배척하여 이후 반도 방방곡곡까지 하나같이 유교를 구가하지 않는 자가 없기에 이르렀습니다. 단 유교는 위로는 제왕에서 아래로는 만민에 이르기까지 일상의 필수적인 도덕적 교훈을 보급할 뿐으로 일정한 신앙의 대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순수한 종교와 달리 민중이 귀의할 대상이 없어 유교로는 신앙심을 개발하기 곤란하다는 논자도 많습니다. 물론 그렇기는 하지만 하나에서 열까지 모두 그러하다고는 수긍할 수 없습니다. 나는 본디 유교에 대한 지식이 적은 사람이지만 서경(書經), 시경(詩經)에 ‘천도복선화음(天道福善禍淫)’이나 ‘천강음척(天降陰隲)’이나 ‘경천지노(敬天之怒)’라든가 맹자의 ‘순천자존역지자망(順天者存

逆之者亡)이나 기타 사서오경의 이런 유의 훈화가 많음은 압니다. 이는 즉 하늘은 선한 일을 행한 자에게 복을 주고 악을 행한 자에게 화근을 두며, 선을 행한 자에게 하늘은 행복을 주고, 하늘의 노여움에 대해 경건해야 하며, 하늘에 따르는 자는 살고 이에 거스르는 자는 망한다는 것입니다. 공맹의 가르침 역시 하늘을 무상(無上)의 신으로서 선한 자가 귀의할 대상으로 여김에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종래의 조선에서는 오직 과거제도의 폐해라 할 수 있는 것이 유생들이 성현이 남긴 경전(聖經賢傳)을 읽을 때 그 목적이 그 교의 정신을 존중하고 이에 귀의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많은 경전 중의 명구절만 끄집어내어 과거장에서 명문, 명시를 지어 급제하기를 바라는 데 있었기 때문에 결국 논어를 읽어도 논어를 모르는 자들이 배출되었고 그리하여 유교에 의한 신앙심이 떨어지게 되었음을 알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기존의 시설인 경학원 등의 강사, 문묘직원은 덕이 높은 석학을 선임하고 학도는 물론 때때로 유림을 위한 강좌를 열고 있습니다. 하늘을 따르는 자는 하늘로부터 복을 내려 받고 공맹의 교는 하늘을 따르는 도라는 그 가르침에 따라 하늘, 즉 무상(無上)의 신에게 귀의해야 한다는 교리를 천명하고, 이름난 유학자로 하여금 각지의 유림에게 이를 선포하게 하면 지금과 같이 널리 퍼진 유생에게는 다른 종교와 같이 포교의 노고를 하지 않아도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공맹의 교에 따라 하늘인 신을 받들고 이에 귀의하는 것은 '나는 신의 아들이니 나를 믿으라'고 말하는 것과 하등의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믿고 믿지 않고는 선교 방법 여하에 달린 것입니다.

(하략)

〈출전 : 劉泰高 參議 『第16回中樞院會議參議答申書』, 1935년〉

5) 참의 어담(魚潭)

(상략)

본 사항도 제1항과 같은 시설에 의해 국민의 교육을 행하면서 한편으로 본부(총독부)에서 많은 증원을 하여 종래 각지의 고유한 향교 등을 이용하여 지방 인사를 포함시켜 임시순회강연을 행하고 첫 번째로 부자와 형제간의 송사 등은 절대로 금지시켜야 합니다. 이들 송사는 모두 재산문제가 아닌 것이 없고 부부의 이혼과 같은 것도 요즘 다수

보이는데 일종의 변형된 형태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실정에서는 세상이 전부 금전화(金錢化)하여 윤리도덕은 반 푼어치의 가치도 없어지게 됩니다.

최근 조선신궁(朝鮮神宮)의 참배자가 해마다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은 정말 기뻐할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조선 재래의 지방 유학자를 좀 더 우대하고 내지 문화 제도를 알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그들에게 내지의 황실을 받드는 관념과 황실의 위덕(威德)을 철저히 이해시켜 내지의 데라우치(寺內) 원수 혹은 칸 공(菅公)⁵⁾의 묘(廟)⁶⁾ 같은 것을 조선에도 세울 동기를 부여해야 합니다. 조선의 많은 인사들은 아직 일본에는 윤리 도덕에 이름난 큰 유학자(碩儒)가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많다. 이를 행하려면 예산의 문제도 있겠으나 가능한 한 일본에서 동양도덕을 존중하는 이름난 석학을 많이 초빙하여 조선 재래의 학식 높은 선비(碩儒)와 연계시켜 함께 지식을 교환하도록 하는 데 힘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따라서 학교의 증설은 무엇보다 긴요한 것입니다.

〈출전 : 魚潭 參議 『第16回中樞院會議參議答申書』, 1935년〉

6) 참의 한규복(韓圭復)

(상략)

일한병합 이래 조선통치의 주안인 내선융화(內鮮融和)에 대해서는 양 민족 간의 몰이해, 무분별 등 많은 원인으로 아직 이상적인 상태에 도달하지는 못했으나 지난 역사에 비추어 양 민족이 같이 각성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가 도래하였습니다. 마침 만주사변이 발발하고 구미인의 태도가 더욱 바름을 잃고 야심적으로 제국을 억제하려 하고 있음을 느낀 조선 동포는 급속도로 내선일치 단결의 요체를 깨닫고 각 계급과 사회에서 더욱 융화의 정도가 깊어지고 결속의 마음이 굳어지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실로 국가 대계로 보아 기뻐할 현상입니다. 다음으로 민중 지도상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5) 학문의 신으로 취급받는 스가와라 미치자네 菅原道眞의 경칭.

6) 스가와라는 주로 덴만구(天滿宮)에서 신으로 모셔진다.

1. 사상의 동향

교육시설이 완비됨에 따라 민지(民智)가 날로 발전하니 실로 기쁜 현상이나 그 반면에 국가와 사회에 대해 불건전한 사상이 상당히 퍼져 나가고 있는 것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다행히 경찰 및 군비의 충실로 치안은 확보되어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지만 이를 등한하면 언제 생각지 않은 위험을 초래할지 모른다. 경찰의 힘으로 이들을 탄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교화시설을 하여 이를 선도함과 동시에 그들 중 능력 있는 청년들에게는 적당한 직업을 주어 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2. 내선융화의 상황

무릇 내선융화는 단시일 내에 전반적 효과를 올릴 수 있는 쉬운 일이 아니어서 서로 이해하는 진정한 융화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합니다. 이의 실현을 위해서는 우선 위정자가 일시동인의 성지를 받들어 공정무사한 정치를 하고 힘써 균등한 혜택을 베푸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의 현상으로는 조선인의 민도(民度)가 전반적으로 일본인에 미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차별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차별을 없애려면 조선인의 정도를 높여야 합니다. 조선인의 민도를 높이려면 정치력으로 이를 촉진해야 합니다. 또 정치력 이외로 민족적으로 융화, 친화하려면 양 민족의 결혼을 비롯하여, 언어, 의복, 음식, 기타 생활방식을 서로 일치시킴으로써 서서히 실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의례준칙 실시 상황

일반적으로 기대를 모은 준칙이 반포되자 각 사회에서 여러 비판을 받았는데, 즉 경제를 주안으로 삼는 사람은 본 준칙이 좀 간략하여 경제적으로 더 제정(制定)할 여지가 있다고 하고 도덕을 중시하는 사람은 본 준칙은 너무 간략하고 지나치게 경제로만 치우쳐 조상숭배의 정신이 박약해진 오늘 오히려 예부터 전해오는 의식을 어느 정도 존속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며 각각 비판을 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본 준칙은 어떤 방법으로도 다소나마 비평을 면할 수 없으므로 이번에 주력하여 철저하게 보급하고 주지시켜 힘써 엄격히 시행하기를 바랍니다.

4. 농산어촌의 진흥운동 진척상황 및 이의 선도방법

농산어촌의 진흥계획 실시 이래 관민이 협력하여 실행에 노력한 결과 지금은 전 조선

각지에서 진흥운동의 진척이 철저하고 민심 작흥, 민력 충실에 큰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실로 기쁜 현상입니다. 그래도 이의 선도방법에 대해 좀 더 주의를 요할 부분에 대해 두 세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1) 지금 지도원의 부족으로 모범부락 또는 지도부락 외에는 지도자의 손길이 닿지 않아 여전히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므로 지도부락 이외에도 지도 방법을 세워 끊임없이 평범히 지도하고 한 부락에 반드시 한 명의 지도원을 둘 것.
- 2) 지주를 독려하여 각각 자신의 소작인에 대해 농촌진흥운동에 조력하여 실적을 거두게 할 것.
- 3) 가을 추수기에는 쌀값이 싼데도 채무나 그 밖의 이유로 농작물을 투매하고 춘궁기에 고가의 곡물을 사고 있는 것이 농촌의 실상입니다. 때문에 농가에서 소비할 양식은 반드시 저축하게 할 방법을 강구할 것.
- 4) 사치품 구입을 방지하고 일반 소비를 절약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무릇 소비를 줄이는 것은 부채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과 같은 시설입니다. 때문에 일상생활 및 기타 물품을 구매할 때 반드시 부락지도자의 동의를 얻도록 합의할 것.

〈출전 : 韓圭復 參議 『第16回中樞院會議參議答申書』, 1935년〉

7) 참의 정관조(鄭觀朝)

(상략)

본 항에 대한 자문의 취지에 합치하지 않는 감이 있으나 제 의견을 몇 가지 점에서 다음과 같이 답신하고자 합니다.

1. 반도에 민법, 친족법을 속히 시행할 것.

아직 친족법이 시행되지 않기 때문에 융화상 좋지 않은 영향이 적지 않다. 서양자(婿養子)제도는 가정조직상 실로 좋은 방법이나 반도에는 예부터 이런 제도가 없어 혈족인 여자가 있어도 남자가 없을 때는 여자를 출가시키고 동성(同姓)의 다른 집으로부터 양자를 들이고 여기에 타성(他姓), 타가(他家)의 여자를 데려와 결혼시킨다. 이는 본디 자식과 며느리가 모두 혈족이 아니므로 가정을 원만히 조성하는 데 매우 곤란한 사정이 있

을 뿐만 아니라 일시동인(一視同仁)의 황국신민으로서 법익(法益)을 달리함은 유감스러운 부분입니다.

2. 학교 교과서에 소학, 논어, 맹자 등의 한문과를 편입할 것.

무릇 인생에는 선입주의(先入主義)라는 것이 존재하므로 청년교육에서 삼강오륜의 도의심을 미리 주입하기 위해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학교의 교과서에 소학, 논어, 맹자 등의 한문과를 편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 학과에 의해 어릴 적부터 뇌리에 도의관념을 미리 주입해 놓으면 신앙심의 함양 및 심전개발이 저절로 조장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 반도에 속히 징병령을 실시할 것.

조선 현재의 상황에 비추어 징병령을 지금 시행해도 지장이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4. 각 도 산야의 화전 금지를 완화할 것.

반도의 옛 관습에도 산림의 고개마다 금자표(禁字表)라는 표석을 세우고 일정한 구역에 들어가 수목을 벌채하는 것을 금지했지만 산촌벽지의 농민 구제책으로 화전경작을 하게 해 왔던 것을 지금에 와서 일절 엄금하면 산촌농민은 생활 방도를 잃게 될 뿐 아니라 산불이 자주 일어나는 것도 이에 기인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때문에 산림과에서는 각 도에 지휘하여 가급적 완화책을 강구하기를 바랍니다.

〈출전 : 鄭觀明 參議 『第16回中樞院會議參議答申書』, 1935년〉

8) 참의 정대현(鄭大鉉)

(상략)

만주사변을 일대 전기로 하여 내선 양 민족의 마음에 일대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인은 더욱 그 품을 넓게 하여 철두철미하게 동양의 맹주로서 동양의 여러 민족의 평화를 확보하고 행복을 증진시키는 것을 천명으로 하고, 조선인은 지금까지의 가공적 몽상에서 깨어나 일본인과 혼연일체가 되어 모든 방면에서 일치 합작하여 공존

공영을 피해야 한다는 깊은 자각을 하는 경향이 현저해진 것은 매우 기쁘고 괄목할 만한 정세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농산어촌의 자력갱생, 심전개발운동과 같은 것은 실로 시의적절하고 고원한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것으로 민중에게 큰 감화를 줄 것입니다.

일반의 사상이 이와 같은 흐름을 보이는 것은 통치당국이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점이며 조선 민중을 지도 계발하고 실로 충량한 제국신민으로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절호의 기회라고 믿습니다.

일시동인의 대정신을 본받아 일체의 차별 대우를 철폐함을 근본정책으로 하고 관계, 교육계, 실업계를 막론하고 기회균등주의로 조선인과 일본인에 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례준칙 발표 후 각지의 여론은 일반적으로 이를 환영하는 경향이 두드러지나 전래적인 관습의 타성으로 그 실행과 보급이 용이하지 못한 것 같다. 또 너무나 급진적으로 실행을 독촉하는 것은 개인생활을 너무 간섭한다는 비난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서서히 민중의 이해를 구하면서 가능한 한 자발적으로 행하도록 선도해야 합니다.

농산어촌의 진흥운동은 지금 전 조선에서 자력갱생의 기분이 팽배하여 정신적으로 큰 효과를 거두고 있어 기쁨을 감출 수 없지만, 물질적인 피폐가 극에 달한 조선의 농산어촌은 자력만으로는 진정한 갱생을 기대하기 어렵다. 때문에 상당한 다액의 국비를 투하하여 자작농 설정계획, 기타 농산어촌의 공동시설을 적극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출전 : 鄭大鉉 參議 『第16回中樞院會議參議答申書』, 1935년〉

9) 참의 장대익(張大翼)

(상략)

1. 내선융화의 상황

합병한 지 25년간 조선 민중이 각자 안도하여 즐겁게 일하는 것은 실로 감개무량한 바이지만, 단 내선융화의 정도를 보면 완전융화까지는 전도가 요원한 감이 있습니다. 이는 식자로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바입니다. 어떤 방침으로 조선인과 일본인이 혼연

일체가 되어 황국의 이상을 실현하고 세계의 모범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무엇보다 조선인과 일본인 간의 결혼을 장려하고 아울러 조선인과 일본인 간의 차별 대우를 개선하고 일본인에게 항상 조선인을 친 동생처럼 사랑하고 지도하게 하면 내선융화는 완전한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2. 사상의 상황

조선 내의 사상은 혼란무쌍하여 그 전도에 우려할 만한 것이 많습니다. 그 근원을 살펴보면 혹은 외래 사상에 피동적으로 혹은 세계의 흐름에 따라 일어난 자연적인 추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궁극적으로는 조선인의 생활이 극도로 피폐하고 자립, 자영할 수 없는 데 기인하는 것이 많습니다. 현재 본부(총독부)는 농산어촌진흥운동에 전력을 다해 착착 진보 중에 있으므로 멀지 않아 인민의 생활은 안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생활 안정을 더욱 촉진하려면 피치자의 지식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일반 민중의 지식을 속히 계발시키려면 각 부락에 개량서당 혹은 야학 등과 같은 간이교육기관을 증설하고 하루라도 빨리 본부의 시설에 대해 이해하고 따를 수 있을 정도의 지식을 일반 민중에게 습득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민지(民智)의 계발과 함께 민중의 생활이 안정되면 사상은 자연히 평온해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상 선도상 직계친속에 대한 법률의 일부를 정정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조선 고대의 법률을 보면, 군신무수(君臣無讎), 부자무대(父子無對)의 법률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법률이 백성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하고 자식이 부모를 상대로 소송해도 이를 수리하는 것은 패륜의 극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부자간 소송이 자주 일어나 심한 경우에는 자식이 부모를 구타하고 동생이 형을 모욕해도 법률이 어떠한 엄한 제제도 가하지 않아 나아가서는 이것이 원인이 되어 미풍을 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앞으로는 부자간의 소송을 금지하고 직계친속에 관계된 형법을 보통형법과 차별하여 취급하도록 개정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는 즉 조선 민중의 사상을 선도하는 데 일대 근본문제라고 생각합니다.

3. 의례준칙 실시 상황

의례준칙의 설정은 민중 일반이 희망해 온 바이고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산어촌진흥운동도 날로 진전 중입니다.

〈출전 : 張大翼 參議 『第16回中樞院會議參議答申書』, 1935년〉

10) 참의 이경식(李敬植)

(상략)

최근 조선에서 각 반 시정의 효과 및 내외 비상시에서의 애국심 배양 및 농산어촌 진흥운동 등에 의해 반도의 민심은 하나가 되어 활발하게 움직이고 민심의 작흥이 현저함과 동시에 한편 극단적이고 불순한 사상은 점차 자취를 감추고 있음은 시정 이래 처음 있는 일로, 이는 실로 성대(聖代)의 은택입니다. 그러므로 당국은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더욱 기정 시설의 수행에 힘써 반도 주민으로 하여금 더욱 즐거운 삶을 살고 일에 힘쓰게 하도록 한층 더 노력하기를 바라마지 않는 바입니다. 이에 두세 가지 점을 개진하여 참고가 되고자 합니다.

1. 사상의 선도

전 조선 주민의 대다수는 아직 민도가 매우 낮아 경제 역시 빈약하고 그날그날의 생활에 매우 곤란함을 호소하고 취생몽사의 삶을 이어가고 있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그 사상은 생활 때문에 동요하는 것 말고는 거의 어떤 것에도 관심이 없다. 때문에 이들에 대한 사상의 선도는 생활의 안정보다 급하고 효과적인 것이 없다. 현재 총독부가 다대한 희생을 치루고 모든 기관을 총동원하여 수행하고 있는 농가의 갱생계획 실시는 생활을 안정시키는 유일무이의 방책이므로 이 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일부 유식계급의 사상은 그 수에서 훨씬 적지만 일반 민중의 사표(師表)라는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거의 대다수는 지식이 얇고 세상일에 어두우며 이재(理財) 관념이 적고 자존심 내지 기풍만 높아 오히려 생계는 넉넉하지 못합니다. 이들은 한번 세상에 나와 세상일에 관여하면 바로 판단이 흐려져 곤란을 초래하고 타인에게 잘 속아 여러 경로를 통해 점차 몰락하여 정신적 물질적으로 불우해지는 경향이 있어 세상을 저주하고 사람에게 한이 맺혀, 그 결과 부지불식간에 사상이 퇴폐하고 악화되는 현상이 있으므로 이의 선도방법은 시세(時勢)의 진보와 이런 계급자의 자각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극히 곤란한 문제라 생각됩니다. 결국 그 근본은 생활상, 처세상, 사업상 등의 실패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학식 경험이 풍부한 특수 유능한 지도자에게 점차 그 방면의 소위 처세술을 지도하면 상당한 효과를 거둘 것이라 생각합니다.

2. 의례준칙 실시 상황

얼마 전 본부에서 발포한 의례준칙은 모두 민도 민정에 맞춰 극히 적절하다고 생각되거나 발포 후에 민간의 의향을 종합하니 일반 하층계급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도 많은 것 같습니다.

본 준칙은 의식을 엄숙하게 하고 낭비를 가능한 한 절약시키는 점에서 취지가 매우 좋습니다. 그러나 실지에서 본 준칙을 적용하는 자는 유산유식계급의 일부로 전 인구의 과반수는 빈곤자 즉 생활이 곤란한 자로 이들의 심리상태는 유산 계급자와는 달리 본 준칙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즉 본 준칙의 의식은 실제 빈곤자에게는 불가능합니다. 특히 의식의 대부분이 형식상의 것이 많아 빈곤자에 대해서는 한층 더 의식을 간단히 하고 정신만 엄숙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므로 일반에 이를 보급시키려면 일반 계급에 적당한 준칙을 보여주기를 희망합니다.

이상 민간의 소리는 상당히 연구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3. 농촌진흥

본 운동은 시정 이래의 대사업으로 정치적으로는 가장 친절한 분위기를 가져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일반 민중은 시설 그 자체에 대해서 크게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에서의 본 운동의 실시 상황을 들으면 각지에서 각종의 장려사업을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번잡하고 날이 갈수록 기세가 쇠미해지는 감이 있다 합니다. 현재 지도를 받는 농가는 매우 유치하므로 시설을 가능한 한 간이화하고 부락민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도록 유의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실상을 고찰하면 대부분은 관공리가 자기 성적을 올리려 하는 결과에 의한 것이 많은 것 같다. 만약 이와 같은 것이 있다면 필생의 사업도 수포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사업은 점차 민간 운동으로 항구적으로 계속할 필요가 있으나 조선에서는 민간 유력자로 일컬어지는 사람들의 성의와 열의가 아직 부족합니다. 특히 조선인에 대해 그러합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당국이 상당한 지도를 하여 그 관심을 높이도록 장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전 : 李敬植 參議 『第16回中樞院會議參議答申書』, 1935년〉

11) 참의 엄준원(嚴俊源)

(상략)

나는 예전 1906년경 진명여학교를 설립했을 때 세상 사람들에게서 받은 비웃음이 30년이 지난 지금도 귀에 쟁쟁합니다. 1919년 만세소요 때 내 사위 민원식(閔元植)이 신일 본주의를 제창하여 자치운동을 일으켜 결국 칼에 찔려 죽었으나 그의 사후 10년에 우리 반도에 자치제의 실시됨은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일로 감개무량할 뿐입니다. 이를 보면 위정자는 모름지기 백년대계를 세워 민심의 취향, 시세의 변천에 유의하며 이를 수행함이 현명할 것입니다. 역대 총독의 노력으로 병합정신이 점차 발휘되어 내선 상호의 이해가 깊어지고 있음은 실로 기뻐할 일입니다. 특히 국제연맹 탈퇴로 제국의 존재가 명확해져 조선 동포의 일본에 대한 신뢰가 점점 더 견고해졌습니다. 이에 총독 각하께서는 농촌의 진흥, 농사령 발포 등 서민 본위의 정책을 세우고 의례준칙을 정해 외래사상으로 혼란스러운 재래의 의례를 현대적으로 개선하여 물심양면으로 통치의 정신을 서민에게 보급하시는 것은 실로 경하해 마지않는 바입니다. 요컨대 정책은 모두 좋으나 인민을 직접 대하는 관공리의 교양이 부족한 탓에 원래의 정신이 저해되는 일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다음의 두 가지를 말하며 당국의 주의를 당부합니다.

1. 제일선의 조선인 관공리는 구래의 인습에 사로잡혀 관료적으로 되지 않도록 지도할 것.
2. 제일선의 일본인 관공리는 동료 혹은 인민에 우월감을 가지고 대하지 않도록 지도할 것.

〈출전 : 嚴俊源 참의, 『第16回中樞院會議參議答申書』, 1935년〉

12) 참의 박용구(朴容九)

(상략)

1. 사상의 동향 및 선도책

사상은 날로 온건하고 실질적인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도 소위 유식계급에 속한 자의 인습적인 어리석은 행태를 고치지 못하는 자가 많고 특히 유산계급에서는 여

전히 구태를 지키는 것을 일종의 도덕적 신조로 믿고 있는 자도 있습니다. 또 일부 청년 가운데 일반 사상의 변천에 따라 자칫하면 경거망동으로 흐르는 경향을 보이고 쓸데없이 권리관념이 발달하고 의무관념이 희박해진 것도 흔한 폐단이지만, 상하계급 모두 무사안일하는 나쁜 풍습에서 점차 벗어나고 착실, 근면한 좋은 풍습에 점차 길들여져 저축심이 점차 향상되고 있음은 기뻐할 현상입니다.

그 선도책으로는 온건한 신진 인물들과 자주 접촉시키기 위해 각종 교화단체의 회합 등에 참가시키거나 선진지방의 견학을 권장하여 구관묵수(舊慣墨守)하는 태도를 교정할 것.

초등학교에서는 교수상 특히 덕육에 유의하고 사회교화단체에서는 제반 시설의 강화를 기하는 방법으로 도의관념을 고취함과 동시에 사회적 제재에 복종하도록 힘써 경거망동하는 나쁜 풍습을 일소할 것.

2. 조선인과 일본인 융화 친목상황 및 선도책

조선인과 일본인 간의 융화상황은 근년 정부의 방침을 체득하여 크게 개선되고 있으나 사실상 언어 풍속이 다르고 역사적 관계가 있고 지식의 정도가 현격하여 자연히 상호간에 다소 간격이 없을 수 없습니다. 원래 조선인과 일본인 간에 원만하지 못한 원인은 여럿 있으나 주로 감정, 오해, 경멸심, 이익관계 등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정은 언어, 태도, 역사 등에서, 오해는 언어, 풍습 등에서, 경멸심은 지식 및 재력 정도의 차이나 역사 등에서, 이익관계는 아리주의(我利主義)에 기인하는 것이 많습니다. 상류사회에서는 그다지 없지만 중류 이하의 인물 중에는 일상의 구체적 부분에서도 자칫하면 편견에 의한 오해, 오해에 의한 반감이 많아 냉정히 생각하여 순한 말로 서로 충고하면 바로 양해할 수 있는 것을 서로 양보하지 않아 유감이 매우 큼니다. 경성, 부산처럼 일본인이 많고 유식자가 많은 곳에서는 상당한 양해와 융합이 실현되고 있으나 교통이 불편한 지방과 같은 곳은 조선인과 일본인 모두 이른바 어중간한 사람을 중심인물로 삼지 않을 수 없어 대개의 사정이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말, 태도, 행위라 해도 같은 일본인 사이 또는 같은 조선인 사이에 일어난 것과 일본인과 조선인 사이에 일어난 것은 그 느낌이 다른 것 같다. 이 점은 가장 주의하여 서로 삼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조선인과 일본인 융화책으로는 정부에서 모두 공평하게 조치함은 물론 개인 간에도 가능한 한 관대하게 아량을 갖고 서로 양보하는 정신으로 서로 돕도록 지도하는 데 있습니다. 즉 감정, 오해, 경멸심 등은 서로 아량을 가지고 이를 양해시키고 또 이익관계는

서로 양보하는 정신으로 미루어 나가는 것이야말로 평화롭게 공존공영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전 : 朴容九 參議 『第16回中樞院會議參議答申書』, 1935년〉

13) 참의 정영모(鄭領謨)

조선에서는 고래 각각의 집 또는 각 부락은 물론 산천호소(山川湖沼)에 이르기까지 모두 수호신이 있다고 생각하여 이를 존숭하고 일이 있을 때마다 성의를 갖고 제사 지내면 반드시 복이 오고 이에 반해 이들 신을 믿지 않거나 또는 이에 대해 성의가 없으면 반드시 화를 입는다고 믿어 매년 정기 또는 임시로 제사를 지내왔습니다.

그래도 종래 조선의 경신(敬神)관념은 쓸데없이 미신만을 좇아 명랑신성한 정신을 잃고 경신의 진수를 잃은 것이 없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경신사상을 바르게 지도, 계몽하여 정화를 꾀하고 그 신앙심의 계발을 기하는 데에는 민중의 심전개발에 도움이 되는 것이 적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이에 필요한 시설을 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락 신당(神堂)의 확립

종래 조선의 각 부락에는 동신(洞神) 또는 당신(堂神) 등으로 불리는 부락의 수호신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그 대부분은 오래된 나무, 이름 있는 나무 등을 정해 이를 신이 깃드는 주체로 해 왔으나 신이 정체불명이며 부락민의 존숭 또한 하나가 아니어서 제사도 엄숙함이 없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개 다음에 의해 각 부락에 이를 대신할 신당을 짓고 부락민 숭경의 대상으로 하여 그 신앙심을 개발하고 복돋는 데에 이바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 1) 신당은 각 부락에서 적은 경비로 간소하게 설립하나 엄숙한 기분을 지키도록 할 것.
- 2) 신당에는 대개 다음에 열거한 신을 모시게 하고 부락민이 자연스럽게 숭경의 마음을 갖도록 지도할 것.
 - (1) 그 지방 출신의 충신, 대학자(碩儒), 영웅 등 덕망이 높고 일찍이 부락민이 존경

해온 고인(故人)

- (2) 전 향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시엔 다른 지방에서 명망이 높은 고인으로 일찍이 존경받아 온 사람
- (3) 동성 집단부락에서는 그 시조, 기타 명망 높은 고인

2. 신단(神壇) 예제(例祭)의 시행

각 부락에서는 매년 그 신당에 제사 지내는 자의 탄생 또는 사망한 날, 기타 적당한 날을 예제(例祭)로 정해 부락민이 참배하는 날로 함과 동시에 이를 부락민이 함께 즐기는 날로 하는 한편 수시로 참배시켜 일반 신앙의 마음을 함양하도록 합니다.

3. 현존하는 여러 종교의 진흥선도책

현재 조선에서 종교의 주된 것은 기독교, 불교, 유교 등으로 그 외 종교유사단체가 있으나 그 중 한둘을 제외하면 논할 가치가 없습니다. 이들의 진흥 선도에 관한 비견을 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독교

기왕의 지도자 중 불온한 사상을 가진 자 있어 많은 곤란을 느꼈던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현재에는 평온해졌으나 여전히 지도상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기존의 이런 종류의 단체의 지도자와 연락과 협조를 긴밀히 하여 이들을 통해 일반 신도를 선도함과 동시에 가능한 한 일본인 혹은 조선인이 주재하는 교회의 증설을 중용하여 무조건적으로 외국인을 숭배하는 폐단을 타파하고 조선화한 기독교의 발흥을 꾀해야 할 것입니다.

2) 불교

현재 조선에서 사찰의 대부분은 유흥장화하여 승엄한 분위기가 없고 승려 중에 인격이 고결한 자가 적어서 불교는 일부 우민(愚民)의 미신 대상에 지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때 사찰의 정화를 꾀함과 동시에 승려의 자질 향상을 기하여 불교의 진흥에 이바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유교

유교는 순연(純然)한 종교로 보긴 어려운 점이 없지 않지만 이를 믿는 이른바 유림 같

은 자들은 상당히 다수를 헤아리고 이를 선도함이 가장 필요한 사항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 현상을 보면 유림 숭경의 대상인 문묘는 황폐해진 것이 많고 봄, 가을 두 시기의 제전은 엄숙한 감이 없고 소위 유림이라 불리는 자도 절의가 결핍되어 모두 매우 쇠미 부진합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의 진흥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 문묘의 통일 개선

현재 한 군에 2개 이상의 문묘가 있는 것은 이를 한 곳으로 통일시키고 설비를 장엄하게 하여 민중 숭경의 대상으로 할 것.

(2) 석전제(釋典祭)의 개선

현재의 석전제는 엄숙한 감이 없고 심지어는 일종의 장난처럼 보여 오히려 옛 성인의 존엄을 모독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 그러므로 이를 가장 엄숙하게 행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유림의 선도

유림의 선도는 일찍이 주장되어 왔으나 아직 그 실적이 미진하여 여전히 구태를 고치지 못한 것이 많다. 이 때 당국에서 강습, 강화(講話),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유림의 지도, 교양에 힘써 속히 그 소질 향상을 꾀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종교유사단체

현존의 종교유사단체 중 일반 민중을 미혹시키고 해독을 끼치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히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조장(助長)할 필요가 있는 것은 그 지도자 또는 중심인물 등과 협조와 연락을 긴밀히 하여 진흥 선도를 꾀하기 바랍니다.

(하략)

〈출전 : 鄭陞堯 參議 『第16回中樞院會議參議答申書』, 1935년〉

14) 참의 이진호(李軫鎬)

우리 반도의 예부터의 신앙 상황을 보면

1. 고유 신앙(토속적 대상신(對象神) 일체)
2. 윤리신앙(조상 및 선현 숭배)
3. 종교적 신앙(각 종교 및 유사 종교)

의 세 가지로 고유 신앙 발달 과정 및 그 내용은 일본 고신도(古神道)와 궤를 같이 하여 양자의 연원이 하나임을 상기하기 어렵지 않다. 이에 생각건대 일본 고래의 신도에 일체를 포함시키고 내선이 혼연일체가 되어 신앙의 열매를 거두어 반도 민중의 심전개발에 이바지하도록 합니다.

1) 신도(神道)보급협회를 창립할 것

- (1) 본부를 경성에 두고 각 도청 소재지, 기타에 지부를 둘 것.
- (2) 본부는 조선신궁(朝鮮神宮) 직속으로 하고 지부는 그 지역 소재 신사의 소관으로 하고 본부의 지휘에 따라 보급 진흥을 도모할 것.
- (3) 황실중심 황도정신의 함양에 힘쓰고 경신숭조의 미풍을 조장할 것.
- (4) 본부 및 지부에서는 신궁참배단을 조직하고 적어도 매월 1회 참배를 독려할 것.
- (5) 본부 및 지부는 연1회 신도에 관한 강습 또는 강연회를 개최하여 그 취지에 철저하도록 힘쓸 것.
- (6) 본부에 신도선포양성기관을 두어 포교의 실적을 올릴 것.
- (7) 본부는 신도 선포의 기관지를 발행하여 각 회원에게 이를 배포하고 보급이 철저하도록 힘쓸 것.
- (8) 본부에 신앙에 관한 조사기관을 두어 조사물의 출판 및 강연 등을 추진할 것.

2) 현존 제 종교에게 생기를 불어 넣기 위해 감독과 지도를 엄히 하고 민중의 신앙에 기여하도록 할 것.

- (1) 본부에 현존 제 종교 담당자를 지도할 수 있는 인재를 채용하여 독려와 감독을 엄중하게 할 것.
- (2) 재래 불사(佛寺)의 승려를 위해 사회교화에 관한 강연회를 개최하고 이의 선도에 힘쓸 것.

- (3) 청년 종교가의 양성에 힘쓸 것.
 - (4) 종교가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상당한 우대의 방안을 강구할 것.
- (하략)

〈출전 : 李軫鎬 參議 『第16回中樞院會議參議答申書』, 1935년〉

15) 참의 서병조(徐丙朝)

1. 반도의 선량한 고유 신앙의 부활 방법

조선의 고유 신앙으로는 신대(神代) 시대부터 유전적으로 경신(敬神) 숭조(崇祖)에 기인한 천신지기(天神地祇)를 근본으로 하여 산, 바람, 물, 흙, 불 등을 신으로 신앙한 것으로, 곡식의 신(穀神), 길의 신(路神), 집의 신(家神) 등이 있습니다. 만민제일(萬民齊一), 천인일여(天人一如)의 감이 있었으나 그 후 인문의 발달과 함께 각종의 종교가 발생하고 정치적 관계에 의해 재래 종교는 지도자를 얻지 못해 해가 갈수록 오히려 미신적으로 된 것이 많고 오히려 신앙심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권위를 실추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여전히 조선 고유 신앙이 반도 대중을 강하게 지배하고 있는 것은 무당(巫子) 등의 예가 웅변해 주고 있습니다. 이의 선도로 민중에 안심입명(安心立命)을 주는 것은 반드시 곤란한 사업인 것은 아니다. 고유 신앙의 부활은 조선 종교계의 가장 긴요한 문제라고 단정해도 틀림없습니다. 이하 고유 신앙의 부활 대책을 말해 보겠습니다.

조선신궁(朝鮮神宮) 외에 사직(社稷)을 경성에 두고 전 조선의 총본산으로 삼고 각지에 사직을 나누어 모셔 동리 내지는 부락마다 동당(洞堂), 동사(洞社) 등을 설치하여 경신, 숭조, 존황(尊皇), 애국, 어른을 섬김(事長), 아이를 보살핌(恤幼) 등 심적 통일과 착한 일을 하면 복이 오고(善福), 나쁜 일을 하면 화가 오는(惡禍) 보복적 관념을 함양할 대상으로 하게 하고 싶다. 원래 고유 신앙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그 역사가 오래되고 인문의 발달과 정치적 변화에 의해 성쇠를 겪었는데 신을 모시는 자의 소질이 열악하여 미신에 가까워졌으므로 정확한 현존 종교로 유도할 중간기관으로서 사직을 두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미풍양속을 순치하고 이용후생의 길을 강구하기 위해 주민 전부에게 이를 신앙하게 하고 지방의 장로, 선배 및 관공리 등을 망라하여 연구, 지도, 유액(誘掖)에 힘써 실천하게 하면 조선 고유의 신앙은 비로소 현재의 종교적 규범

과 범주 내에서 찬연한 광휘를 뿜고 2,000만 대중의 위대한 신앙의 대상으로 부활하리라 믿습니다. 그를 위해서는 전 조선적으로 종횡으로 연락과 통제를 하고 국비, 지방비의 보조 및 기타 비용으로 필요한 경비를 지출함과 동시에 그 운용에서 주도자는 물론 지방관민, 남녀가 일치하여 신대(神代)시대부터 내재적으로 확보해 온 고유 신앙의 부활에 성공하고 조선의 종교계에 일대 신기원을 초래한다는 굳은 결심과 열의의 환기에 노력해야 합니다.

2. 현존 제 종교의 진흥 선도책

사상적 과도기에 있는 현대인에 대한 종교는 먼저 교육에 의해 이를 계발하고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초등학교는 물론 중등학교의 교과서에 종교를 넣고 아울러 대학교육에도 뜻을 두어 종교부흥에 힘쓰고 종교교육으로 정조를 함양함과 동시에 선교사, 승려, 신직(神職)의 개성 향상을 꾀하고 지도와 감독에 세심한 주의를 하는 한편, 생활을 보증하여 우대하는 길을 강구하여 현존 종교의 진흥을 꾀하라고 진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비 등을 보조하여 사업의 조성에 힘써 성극(聖劇), 종교 강연, 정신 강화, 종교영화 등을 가능한 한 많이 개최하여 대중에게 종교적 분위기를 접할 기회를 만드는 것 역시 필요한 시설이라 생각합니다.

자격이 있는 종교가 청년은 가능한 한 관공리로 채용할 길을 열어 일상생활에서 종교관념의 함양 및 포교를 하도록 합니다. 현존 종교는 매우 다양합니다. 불교는 멀리 고구려 소수림왕 시대에 중국에서 전래되어 백제, 신라를 거쳐 고려 말에는 매우 융성했으나 그 융성과 함께 폐단도 많아 조선시대에 이르러 이를 비호하기도 했으나 대개 불교 배척의 방침을 취하여 드디어 오늘날처럼 쇠미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는 18세기 중엽 북경에 사신 갔던 자가 천주교의 성서를 갖고 와 전파되었고 그 후 점차 융성하여 조선 종교계를 풍미하고 있습니다. 이에 천주교의 내용을 약기하면

- 1) 역사가 유구합니다.
- 2) 신자의 수가 많고 포교지역이 광범위(전 세계에 약 4억)합니다.
- 3) 조직의 엄밀함이 적어 최고 사교자(司敎者)에서 일반 신자에 이르기까지 신념의 진실, 삼생(三生)의 길에 확연한 것이 있습니다.
- 4) 과거에 천주교 및 신자가 세계 인류에 공헌한 광휘 있는 업적은 일일이 열거할 수 없다.
- 5) 신앙 규약이 확실히 불변합니다.

6) 정치의 간섭을 절대 하지 않다.

7) 일반 신자는 사상의 고집을 갖고 시대사상에 감염된 언동을 하지 않고 또 할 수 없는 점.

일례를 들면 왕년의 3·1운동이 발발했을 때 각 종교 신자 계급이 거의 이에 참가했으나 천주교 신자는 한 사람도 이에 참가하지 않았다. 물질 농산어촌진흥운동과 함께 심적(心的) 진흥운동으로 천주교의 진흥을 앞서 말한 대로 강구해야 합니다.

(하략)

〈출전 : 徐丙朝 參議 『第16回中樞院會議參議答申書』, 1935년〉

16) 참의 이택규(李宅珪)

(상략)

신정(新政) 이래 불과 25년의 짧은 기간이나 문화의 진보 정도는 모든 방면에서 보아도 괄목할 만한 바가 많습니다. 민심의 추이는 매우 온건하고 대중은 대체로 신정을 구가하기에 이르렀으나 어떤 분자들은 아직 완벽을 기하기 어려운 상태여서 유감입니다. 앞으로 세심한 주의를 해야 하나 일반 민중은 관의 시설에 호감을 갖고 신뢰의 정도가 날로 농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만주사변 발발 및 국제연맹 탈퇴로 우리 제국의 국위는 세계에 떨치고 있고 동양평화공작은 더욱 강고해져, 나아가 전 아시아의 단결이라는 이상이 실현되고 있음은 경하해 마지않는 바이며 민심도 점차 기쁜 마음으로 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 위생, 교통, 경제 및 구제 등 각 방면에서 시설은 꽤 적절하여 그 치적이 현저할 뿐 아니라 농산어촌의 진흥운동은 자력갱생상 일대 광명을 주고 있음은 물론 이들 시설의 진전으로 물질 방면에서 조금 여유가 생겼을 뿐 아니라 정신 작흥상 큰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일례를 들면 의례준칙 실시에 따라 다년간의 인습적 속박을 벗어나 낭비의 절약과 시간의 절감으로 점차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작농 창정, 농산어촌의 고리채 정리, 구제사업 실시, 사환미제도(社還米制度) 부활 등 이루 열거할 수 없는 많은 제반 실시는 민력함양에 기여하는 바가 큼니다. 이에 내선융화는 점차 경제 결합으로 이상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주 이주민에 대해 당국이 고심한 결과 이주자가 생업을 얻는 것은 물론 이로써 농경지의 부족이 완화되어 소위 일거양득으로 일반에 매우 큰 호감을 주고 있습니다.

농산어촌의 진흥운동은 이 현상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지도와 계발에 힘쓰면 가까운 장래에 완전해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실적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례준칙 실시에 대해서는 각지에서 열성으로 개시하여 평안남도 강동군(江東郡) 외 4, 5군은 각 부락에 실행위원을 선정하여 부락민에 대해 미리 재산 및 사회적 지위 등을 조사하고 일정한 표준을 세워 그 범위 내에서 실시하기로 정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는 위약금을 징수하고 실행위원이 엄중하게 경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완전히 시행하여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2. 농산어촌진흥운동에 관해서는 평안남도 양덕군(陽德郡) 양덕면(陽德面) 태평리(太平里) 같은 곳은 1926년부터 이의 시행에 착수하여 면목을 일심하고 종래 다액의 부채가 있는 부락민도 일변하여 금주, 금연과 함께 근검절약을 실행하고 본업인 농업은 물론 과잉 노동력을 이용하여 부업하여 연수입액이 일만여 원에 이르고 지금 마을 주민 93호(戶)는 부채를 완제(完濟)하고 현재에는 한 집당 평균 350여 원의 저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방면에서도 상당히 각성하여 이미 중등학교 졸업생 21명을 내었고 그들이 거의 관공서에 봉직하여 상당한 성적을 거두고 있음은 물론 현재 7명의 중등학교 재학생과 40여 명의 보통학교 통학생이 있습니다. 그 외 위생, 문화 향상 등도 꽤 순차적으로 진전되고 있습니다.

3. 강동금융조합에서의 양계사업은 당사자의 노력이 가장 역력한 것으로 1927년부터 착수하여 현재 양계호수가 1,500여 호가 되고 이로부터 생산된 금액이 1934년까지 실로 35,000여 원에 달합니다. 이를 더욱 생산하여 실로 10만여 원의 자산의 조성을 예상할 수 있어 앞으로 상당히 진전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들 운동은 목하 조선에서 가장 필요 불가결한 급선무로 도시와 농촌의 구별 없이 일제히 실행할 필요가 있음은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농산어촌 등에서는 꽤 잘 실시되고 있고 일반 민중도 그 필요를 느끼고 있으나 아직 지방 당국의 능률이 부족하고 지도를 받는 사람의 자각을 한층 촉진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회지에서는 이들 시설을 등한시하는 경향이 없지 않음도 유감입니다. 그 반면에 이 역시 부득이 사정이 있겠지만 도회지에서 이와 같은 열성적이지 않은 태도를 지속한다면 겨우 각성하기 시작한 농산어촌의 진흥운동에 큰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전 : 李宅珪 參議 『第16回中樞院會議參議答申書』, 1935년〉

17) 참의 최린(崔麟)

제1문

1. 반도의 선량한 고유 신앙의 부활방법

고유 신앙의 쇠퇴를 가져 온 중요한 원인은

1) 수백 년 이래 국가적 시설에서 위정자는 이에 대해 완전히 무관심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 발전을 방해한 감이 있는 점.

2) 외래적 종교 또는 천박한 과학적 사상에 젖어두고 미혹되어 종래의 신앙심이 점점 쇠퇴한 점.

3) 한학(漢學)의 곡학자류는 유교의 본원 진수를 납득하지 못하고 쓸데없이 지엽적 허식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일반 민중의 신앙적 정신이 그 영향을 받은 점 등입니다. 때문에 그 부활책으로 국가적 견지하에 정책적(施政的)으로 이를 선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1) 각지 신앙의 대상이 될 만한 적당한 명칭을 붙인 기관을 두어 제사를 관장시킬 것.

(2) 다음으로 신앙기구를 정비하고 신사(神事) 취급자를 양성하여 신사 행사를 승엄하게 하고 소질이 나쁜 신사관계자를 교정 또는 퇴치할 것.

(3) 사회적 각 교화단체와 각 교육기관을 활용하여 과격한 유물적(唯物的) 사상을 막게 할 것.

(4) 경학원의 지방 강사를 비롯하여 각지의 향교서원의 관계자를 인물 본위로 선발임용하고 적극적으로 교화운동에 참가시킬 것.

등으로 일반 민중에게 바른 신앙심을 환기하고 신앙생활은 인간의 복리(福利)의 원천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책입니다.

2. 현존하는 여러 종교의 진흥선도책

현존하는 종교 가운데 그 대표적인 것은 신도(神道)를 제외하면 불교, 기독교입니다. 불교는 그 종지(宗旨)가 동양사상에 가장 맞을 뿐 아니라 반도 고래의 문화사에서 심원한 관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李朝) 중엽 이래 심한 불교의 억압, 구축을 받은 결과 명승(名僧), 거석(巨釋)이 나오지 못하고 남은 승려들은 공허한 관념 유희에 빠져 제도중생의 본원을 돌아보지 않은 결과 금일 쇠퇴일로에 있습니다. 이를 보면 불교의 진흥은 하루아침에 효과를 보기는 어려우나 먼저 승려의 소질 개선을 꾀하고 능력

있는 신진 인재를 발탁하여 각 사원의 관리를 맡게 하고 소위 본래의 면목으로 돌아가게 해 보리심(菩提心)을 발휘하여 대중을 여기에 귀의시키는 수밖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의 종지는 순전한 일신교(一神敎)이며 동양인의 신앙 대상인 일신즉다신(一神卽多神), 다신즉일신(多神卽一神)의 동양적 신념에 합치하지 않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장려한다 해도 그 건전한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 외에 조선에서 발상한 소위 유사종교단체 가운데에도 실질적, 형식적 양방에서 조선인의 고유 신앙 정신에 적합하고 현재 다수의 신도를 갖는 것이 없지 않다. 이는 반도의 심전개발상 간과할 수 없는 현상이므로 이 또한 통제적으로 정리하여 잘 선도 보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2문

조선인의 정치적 사상은 만주사변을 계기로 종래의 가공적 몽상에서 눈을 뜨고 있으며 게다가 당국의 시정 역시 잘하고 있어, 특히 자력갱생, 농산어촌진흥운동에 감격하여 드디어 내선일체의 주의(主義) 아래 조선 민중의 복리를 꾀할 가장 합리적인 기회라는 생각이 현저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매우 경하해 마지않는 바입니다. 그러나 그 후 만주국에서 일본계 관리가 쓸데없이 만주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 조선 동포에 대한 태도가 지나치게 냉담하고 일본의 위정자는 조선통치에 대해 너무 무관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생겨 모처럼의 사상전환이라는 기뻐할 변화에 일말의 암운을 드리우고 있어 유감입니다. 가령 이것이 일종의 오해에 기반한 것이 있어도 하의상달(下意上達), 상의하달(上意下達)의 정치적 철리에 의해 이를 잘 반성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같은 사상적 동향을 선동, 악용하려는 불량한 수단이 잠재함을 잘 살피고 각 언론기관의 논조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이를 통제하고 단속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의례준칙 발표 후의 각지에서의 여론은 이를 환영하는 경향이 있음은 사실이나 전해 오던 습속과 현대적인 급격한 사상과의 관계로 그 실시 보급에는 상당한 시일을 요하므로 너무 급속히 장려하는 것은 오히려 반동적 기현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서서히 그 이해를 촉진하고 자발적으로 실행하도록 선도해야 할 것입니다.

농산어촌의 진흥운동은 그 자력갱생의 주의에 의해 전국에 걸친 작흥적(作興的) 분위기는 농후하고 명랑하고 따라서 정신상의 효과는 현저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소기의 성적에 달하지 못한 원인은 피폐가 극에 달한 농산어촌의 자본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운동은 상당한 물질적 원조를 제공하면서, 제1문에 답한 민간신앙심의 배양으로 난관을 헤치고 우리 손으로 전도를 개척하고 새로운 운명을 유도하려는 순정(純情) 지성(至誠)에 입각한 신념을 함양시키지 않으면 완벽을 기하기 힘들 것입니다.

〈출전 : 崔麟 參議 『第16回中樞院會議參議答申書』, 1935년〉

18) 참의 박종렬(朴宗烈)

조선 종래의 종교적 신앙관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이나 내가 본 바로는 완전한 것이 거의 없다. 왜냐하면 무(巫)도, 유(儒)도 신을 인정함은 동일하나 내세의 관념이 없고 기타의 것도 내세와 현세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무릇 종교로서 내세의 관념이 부족하거나 이 관념이 없으면 아무리 계발, 선도해도 진실로 사람의 마음에 위안을 주고 힘을 줄 수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조선의 진정한 종교를 든다면 기독교와 불교가 있을 뿐입니다. 기독교는 정연한 교리가 있고 반도의 현상에서는 가장 품위가 있지만 불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조선에는 남녀, 상하를 막론하고 부처에 대해서는 상당히 뿌리 깊은 신앙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랜 동안 종교로서의 가치를 잃을 정도로 쇠미하고 부패했으므로 이를 크게 숙청하고 갱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의 불교는 이조(李朝)의 유교입국(儒敎立國)적 방침으로 고의로 사원을 도읍에서 내쫓고 승려의 대우를 낮게 하여 과거 500년간 정치가의 주구와 압박을 당해 속인들에게까지 멸시와 천시를 받아 사원의 이름은 있으나 내실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신정 이래 총독 정치하에서 사원의 보존에 힘쓰고 승려의 대우를 다시 좋게 해도 인습이 오래 되어 민중의 신망을 받지 못하고 여전히 특별한 성과가 없는 실정입니다. 때문에 만약 조선의 불교를 진흥하고 민중의 신앙을 모으려면 먼저 사원의 숙청을 단행하지 않으면 안 되지만 조선인 승려로는 거의 희망이 없다. 일본의 지식 있는 승려를 30분산의 주지로 하여 숙청을 도모하고 승려의 지도와 양성을 맡게 하면 면목을 일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원에는 상당이 오래된 서적이 있으나 현재의 승려는 이를 정돈 연구할 의사가 없고 또 상당한 재산을 가져도 이를 정리 경영할 의사가 없습니다. 도리어 주지 이하가 일반 민중과 정말 비슷하게 음주하고 호색하여 사찰의 재산을 탕진하는 폐단이 없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도저히 민중 위에 서서 사상정신의 지도를 맡을 자격이 없고 따라서 민중으로 하여금 불교에 귀

의시킬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옛날 일본에 불교를 전하고 포교에 힘썼던 것은 고구려 및 백제의 승려이며 이들 승려들이 성덕태자의 사승(師僧)이었으므로, 오늘은 조선의 불교 복구의 의미로 내지의 승려가 조선의 사원의 숙청을 맡고 그 진흥에 힘써 조선 동포를 귀의시킴은 또한 인과의 법리에 맞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방법을 취하는 데 당국은 단호한 결의를 갖고 있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없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상 제1문에 대해서는 즉 사원의 숙청을 단행하고 승려를 지도 양성하여 불교를 부흥시켜 심전개발을 하는 것이 급무라고 생각합니다.

(하략)

〈출전 : 朴宗烈 參議 『第16回中樞院會議參議答申書』, 1935년〉

19) 참의 최양호(崔養浩)

낙토(樂土) 조선의 건설은 오직 물심 양 방면에서의 조선 갱생에 달려 있습니다. 갱생 10년 계획도 단순한 경제 행위에 그치지 말고 심전개발 신앙 확립 위에 쌓아 올려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자칫하면 무미건조하거나 황폐해져 버리는 농촌 민중에게 건전한 신앙심을 환기배양(喚起培養)하고 심전개발을 꾀하여 안심입명의 경지에 이르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총독각하께서 정신작용에 힘을 다하시고 주도면밀하게 심전개발을 제창하는 것은 실로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 바입니다.

1. 반도의 선량한 고유 신앙의 부활방법

조선은 고려시대는 불교가 전성을 구가했고 조선시대(李朝)에 이르러 유교가 전성하였는데 불교는 반도의 고유 신앙이지만 유교는 도덕으로 종교가 아니다. 경학원에는 명륜학원이 있지만 각 지방 문묘에는 어떤 시설도 없음은 유감입니다. 경비 관계가 있을 지라도 매년 춘추 석존제(釋尊祭) 또는 적당한 시기에 청년 유림을 모아 강습, 강화회를 때때로 열어 공맹의 도를 강습시키고, 강원도의 명덕회(明德會)를 한층 조장하고 진전시키고, 동양도덕의 본의를 천명하고 사람이 지켜야 할 떳떳한 도리(彝倫)를 유지하고 건전한 사상을 함양하고 근검절약의 기풍을 진작시키기 바랍니다.

고유 신앙은 불교 외에 산천제(山川祭), 토주(土主), 성주(城主) 등이 있으나 현재 조선 종교는 사찰 및 승려의 상태를 보면 사찰은 방탕한 무리의 유람지로 변했고 승려 중에 진실로 종지를 신봉하고 참되게 대중을 계도할 수 있는 자는 거의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어서, 바로 일반 민중의 신앙의 대상물이 되기에는 곤란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함부로 행할 수는 없겠지만 비근(卑近)한 방법으로 이를 유도하는 것으로 하여, 종래부터 각 지방에서 행해져 온 산천제 등과 같은 것을 장려하고 신앙신념을 일반인들에게 함양 시킴과 동시에 미신에 의한 음사(淫祠), 무복(巫卜), 풍수술(風水術)은 엄금해야 합니다. 또한 근래 도회지에 건설된 신사(神社), 신사(神祠)에 조선인 특히 학생 생도, 아동 등의 참배자가 많으므로 조선인과 일본인을 일체화하려는 국민정신 통일의 본원을 신사(神社), 신사(神祠)에서 찾고, 농민도(農民道)의 중심을 신사(神社), 신사(神祠)에 두려는 대중의 운동이 일어나는 것은 매우 의미 깊은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로써 신앙생활의 기초를 만들고 한편으로 기성종교인 현존 조선의 종교를 다음의 답신 방법으로 개량, 향상하면 두 가지가 서로 어울려 확고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2. 현존 종교의 진흥 선도책

현재하는 종교는 조선불교 외에 기독교 5종류, 유사단체 7종류가 있으나 거의 병을 치료하거나 장래의 길흉화복을 비는 수단 외에는 달리 감사의 마음이 없고 자칫하면 일종의 미신행위가 됩니다. 그 중에서도 보천교(普天教)는 오늘날 전 조선 총동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진흥개생운동의 암적인 존재라고도 할 수 있으니 하루빨리 이를 박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도 고유의 종교인 불교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개선하고 일반 민중을 점차 불교로 귀의시킬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득책일 것입니다.

- 1) 현재의 승려에 대해 본부에서 통제와 지도 훈련을 행함과 동시에 불교에 관한 학교의 내용을 개선하고 충실히 함.
- 2) 초등학교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종교 과정을 둬.
- 3) 사찰에서 음식영업을 하는 것을 절대 엄금하여 불교의 존엄을 지키게 함.
- 4) 사찰을 도시로 진출시키고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것.
- 5) 승려 중 우수한 자를 본부 또는 도(道)에서 촉탁으로 삼고 힘써 일반 민중과 접촉시킬 방법을 취할 것.

(하략)

〈출전 : 崔養浩 參議 『第16回中樞院會議參議答申書』, 1935년〉

20) 참의 오태환(吳台煥)

(상략)

각지의 민심의 동향은 옛날과 같이 소위 정치적 혹은 민족적 색채를 띤 지하운동과 같은 것은 점차 없어지고 더욱더 착실한 방면으로 전향하려는 분위기로 보입니다. 실은 거의 생활의 안정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입장에 의한 악감이 드디어 불량분자의 선동으로 주의(主義), 정견(定見) 없이 맹종하여 사상운동으로 더해진 것입니다. 때문에 먼저 그들의 생계의 길을 부여하는 방법을 취해 매우 공평한 조선 본위의 시정으로 영구히 최선을 다하면 자연히 모두 감복할 것입니다. 게다가 동포 사이에서는 내선의 이 민족 관념의 뿌리부터 잘라, 원래 같은 동족임을 자각하고, 형은 사랑하고 동생은 공경하는 것처럼 서로 제후해 간다면, 혼연일체, 대동단결하에 황국의 이상은 자연히 실현되고 무궁한 평화, 광명은 세계 전 인류에까지 미칠 것임을 믿습니다.

1. 사상의 동향

각지에서 두드러졌던 나쁜 사상으로 흘러가던 현상은 보이지 않지만, 개중에는 실업자 혹은 상당한 자격을 갖고 있으면서도 취직하지 못한 자가 입에 풀칠할 길을 얻지 못해 정치상 불만을 품고 있습니다. 조선의 특수한 사정을 살펴 만반에 걸쳐 조선 본위로 한다면, 더 많이 채용하든가, 혹은 하급관리 사이에서는 일본 동포의 가봉(加俸), 사택료와 같은 차별대우에 대한 불만 등이 있으니 좀 더 조선인 관공리의 처우 방법을 강구하든가 해야 합니다. 농가에서는 탁주(濁酒) 제조, 엽연초 재배 금지 혹은 일본 도항자에 대한 제한 등에서 상당한 불만을 품고 있는 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라 하고 인심은 물과 같다고 하는데, 바로 물이 그릇에 따라 그 형태가 달라지듯이 자신의 입장에서 곤란을 느끼면 악감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이외에는 모두 온건 착실한 것같이 보입니다.

일본 동포 관리의 가봉만을 폐지하거나 혹은 조선인 관공리의 대우책, 조선인의 채용수를 좀 늘리거나, 농가에서 농업용 탁주 및 농업용 엽연초의 금지하는 것을 특히 고쳐 최소한도로 허가하거나, 일본 도항을 자유롭게 허가하는 등의 문제는 내선융화상 좋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생각되므로, 특히 각하(閣下)께서 고려하시기를 청하는 바입니다. 조선인과 일본인 융화 친목상황은 현재 결성의 경지에 이르러 더욱 굳건해지는 중인 것 같습니다.

마음과 뜻을 서로 통하게 하는 것은 언어입니다. 국어를 아는 자가 날로 증가하여 내선 교혼(交婚)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동포 사이에 일본에 있는 일본 동포와 조선에 있는 조선 동포보다도, 조선에 있는 일본 동포와 조선에 있는 조선 동포 사이에 지금 조금씩 형은 아끼고 동생은 공경하는 우애 깊은 형제의 태도로 겸손하고 공경하는 한편 위정 당국자는 공평한 시정(施政)으로 모든 것을 조선 본위로 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어 내선의 혼연일체가 되는 것은 시간의 문제로 봅니다.

2. 의례준칙 실시 상황

조선 현재와 장래를 위해 민심 착흥상에 비추어 크게 식자들 사이에 환영받고 있는 상황이나 아직 얼마 되지 않은 관계로 경성에서는 상당히 실시되고 있으나 지방에서는 극히 적은 것 같습니다. 물론 가까운 장래에는 자연히 모두 자각하여 실시되겠지만 먼저 관공리 및 지식계급, 기타 유산자들이 솔선하여 실시하도록 독려하면 이하 계급은 자연히 이를 모방하리라 생각합니다.

3. 농산어촌 진흥운동의 진척상황

각 지방에서 상당히 활동 노력하고 있어, 모범부락의 경우처럼 일률적으로 도달하지는 못하나 머지않아 모두 면목을 일신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더욱 이전의 암행어사제와 같은 기관을 두어 때때로 실지에 출장 가서 조사, 검분(檢分)을 하면 일층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농산어촌에 대한 간이 지식을 가르치는 이삼 년을 수료연한으로 하는 농학원(農學院)을 설립하고 지도원을 양성하여 장래 이 운동을 전담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금융조합, 동척 또는 식산은행에서 전지(田地) 등을 담보로 대부한 것을 강제로 징수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처분은, 가능한 한 농산어촌 진흥운동 기관에 장기 연부(年賦)로 상환하는 방법으로 전대(轉貸)하도록 하는 방법을 취하기 바랍니다.

〈출전 : 吳台煥 參議 『第16回中樞院會議參議答申書』, 1935년〉

7) 참관하여 검사.

9. 1937년 6월 7~8일, 제18회 중추원회의 참의 답신서

1) 참의 이진호(李軫鎬)

사회교화는 무엇보다 정신통일에 있고 정신통일은 무엇보다 신앙심을 환기시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심을 환기시키는 것은 신도(神道)의 신앙을 장려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조선에도 유래하는 신도가 있고 그 종류가 실로 다양하며 각각 개인적으로 또한 불규칙적으로 이것을 신앙하고 기도해 왔습니다. 이것을 거슬러 추구해보면, 근원은 내선(內鮮)이 모두 같고, 단지 신앙 또는 기도 방법이 다를 뿐입니다. 요컨대 조선에서 신앙이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은 것은 첫째로 신앙의 방법이 구구하며 개인적으로 규율이 없어서 통일성이 결여된 것, 둘째로 미신적이어서 계속성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수의 신도를 통일하고 이것을 교정함과 동시에 조선 민중으로 하여금 중심적 그리고 공동적으로 반드시 이것을 신앙하게 하는 유일한 신앙기관을 새롭게 설립하여 이것을 습합, 통일시킴으로써 일반의 신앙심을 환기하고 정신의 통일을 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는 사회교화에 커다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아래 방법에 의거하여 실시하기를 바랍니다.

1. 각 면 혹은 각 부락에 신사 한 곳을 봉재(奉齋)할 것
 - 1) 신사의 주신으로 아마테라스 오오미카미(天照大神)를 봉재하고 그 밖의 향토신 및 선현을 같이 모시는 것도 무방합니다.
 - 2) 각 부락민은 모두 월1회 이상 정기 참배할 것(임시 참배는 임의로 행할 것).
2. 신사의 의식 취급자 양성 기관을 각 도·군에 설치하고 각 지방의 순회 지도를 하게 할 것
3. 개인의 가정에서도 신단 봉재를 장려할 것
 - 1) 주신은 아마테라스 오오미카미(天照大神)를 봉재할 것
 - 2) 각자가 신앙하는 선현의 위패를 같이 모시는 것도 무방합니다.
4. 향토오락으로서 내선(內鮮)의 충효열사에 관한 역사이야기를 남도창극⁸⁾ 곡조로 재편성하고 이것을 레코드에 취입하거나 혹은 영화 등으로 일반에 선전하여 야비한 가무를 점차 구축할 것

8) 나니와부시 浪花節.

5. 각종 윤리수양단체 및 종교단체의 교화운동은 서로 연락, 통제하에서 행하고, 동시에 이러한 사상은 모두 우리 고신도(古神道)의 사상을 중심으로 통일, 습합할 것 위 사상의 실행을 기하기 위해 습합교리(習合敎理) 조사연구기관을 설치하고, 내선의 학자를 망라하여 습합교리를 자주 발표시킬 것.
(하략)

〈출전 : 李軫鎬 參議 『第18回中樞院會議參議答申書』, 1937년〉

2) 참의 유진순(劉鎭淳)

현재 조선의 실상을 보면, 시정(始政) 이래 제반 행정 시설이 점점 갖춰지고 사회와 문화의 향상과 발달이 현저하지만, 반면에 사회교화의 대상이 되는 모든 사회적 질환 역시 점차 범위가 확대되어 현재의 사회교화 시설만으로는 그 결함을 예방하여 고칠 수 없는 실정이지요, 향후 한층 더 시설을 정비 확충하여 건전한 사회의 발달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에 관한 대책을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교화 지도기구의 정비 확충

사회교화 시설의 진흥을 기하고 이것을 일반 민중에게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 사업의 통제, 조성 지도기관인 사회교화 지도기구의 정비 확충을 꾀하는 것이 가장 긴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각 도와 주요 부(府)에 사회과(社會課)를 설치할 것

종래 조선에서도 일본의 부현(府縣)에 있는 것과 같이 각 도에 사회과를 두고 오직 사회사업 및 사회교화에 관한 사무의 지도와 통제를 전담하게 해왔는데 1925년 정부의 재정긴축정책이 실행됨에 따라 일제히 이것을 폐지하고 극도로 인원을 삭감하여 지방과의 한 계(係)로 병합 부속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사회 정세의 변화로 인하여 점점 그 업무의 확대 강화가 촉구되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각 도에 사회과를 부활시키고 동시에 아직 사회과가 설치되지 않은 주요 부(府)에 대해서도 독립된 한 과를 두어 더욱 사회교화 시설을 정비 확충하고 통제 강화를 꾀하는 것이 적절한 방책이라고 생각합니다.

2. 사회교화 관계직원의 확충

1) 조선지방대우직원령(朝鮮地方待遇職員令)을 개정하여 군(郡)·도(島)에도 사회사업 관계직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정할 것.

각 도·부에는 조선지방대우직원령에 기초한 주임대우(奏任待遇) 직원인 사회 주사(主事)와 판임(判任待遇) 직원인 사회 서기(書記)를 배치하고 있지만 군·도에는 이런 제도가 없으므로 시세의 진운(進運)에 상응하는 공여지책으로 최근 지방교화 주사 또는 사회교화 촉탁 등의 명의로 도비(道費) 직원을 두는 경향이 격증함에 따라 군·도에도 판임대우인 교화관계 직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여깁니다.

2) 부인 교화 직원의 설치

현재 조선부인은 교육의 보급 및 자력갱생, 농촌진흥운동에 의해서 점차 각성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 교육을 받지 못한 자가 대부분을 차지하여 그 교화, 자각을 촉진함은 현재 긴급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 교화지도는 서로 함께 무릎을 맞대고 깊게 안방에 들어가 거리낌 없는 지도를 하지 않으면 효과를 거두기 힘들기 때문에 국비 및 도비로 도·부·군에 부인교화 관계직원(여자)을 두어 오로지 부인의 교화지도를 전담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사회입법에 의한 교화의 철저

1) 구호법을 속히 조선에 실시 할 것

지금 조선의 실정을 보면, 경제계의 진전과 사회 정세의 변천에 의해 생존경쟁은 점점 치열해져서 가난한 자, 특히 자력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노약자·폐질자(廢疾者)·상병자(傷病者)·유아 등 구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점차 그 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조선에서는 아직 이들의 보호제도가 완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구호에 만전을 기할 수 없으므로 일본과 마찬가지로 구호법을 조선에서도 실시하여 구호의 만전을 기하고 이를 선도하는 것은 사회교화상 긴요하다고 여겨집니다.

4. 각종 시설에 의한 교화

1) 국체관념의 명징(明徵)

조선 민중에게 국체관념을 명징하여 제국의 진정한 사명을 확인시키고 국민적 신념을 견고하게 하는 것은 사회교화상 가장 긴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국민적

신념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우선 신사를 중심으로 경신숭조(敬神崇祖)의 미풍을 양성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 방안을 아래에 서술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1군(郡) 1신사(神社) 제도의 확립

지방의 신사 설치상황을 보면 일반 민중의 신사에 대한 이해와 숭경(崇敬)의 마음이 갑자기 두터워져서 참배자가 날로 증가하는 데에 반하여, 신사의 보급이 아직 전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국민정신을 작흥하여 국제관념을 명징하기 위해서는 향후 지방에 중축(中軸)될 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첫 번째 수단으로서 장래에는 적어도 1군에 1신사의 제도를 확립하여 지방관민의 협력하에 신사로서 필요한 설비를 하고 제전을 엄숙하고 성대하게 거행함과 동시에 각종 공적인 집회는 신사를 중심으로 시행하여 국민적 신념을 배양시키는 것이 일반 민중의 교화상 가장 시기와 형편에 맞는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2) 각층 대표 및 학생 아동의 이세(伊勢)신궁 참배

종래 조선인 유력자 또는 관공리로 조직된 일본시찰단을 파견하여 그들이 조선에 돌아온 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토목·교육·산업·그 밖의 제반 시설은 크게 배울 점이 많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특히 이구동성으로 경탄하는 것은 신사불각(神社佛閣)이 정비되어 있는 점으로, 장엄하고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우며 여기에 참배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 경건한 태도는 참으로 우리 국운이 융성하는 초석이 된다는 생각을 깊게 하기에 조선 내의 관공리 및 공직자, 농상공의 대표, 중·초등학교의 학생과 아동 등 각 층의 대표를 때때로 파견하여 이세 대묘(大廟) 등에 참배하게 하는 것은 단지 본인의 감격에만 그치지 않고 마을 하나하나에 지대한 긍정적 결과를 초래한다고 믿습니다. 참배자의 왕복기차·기선 운임을 무료로 하는 방도를 강구하고 그 외의 실비의 얼마를 나라·도·부·읍·면 관계단체 등에서 지원하고 점점 이것을 조성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3) 헌곡전(獻穀田)의 설치

각 초·중등학교 학생, 농업실습생 등의 생산물을 해당 군의 신사에 봉헌하도록 하는 것은 아동교화상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장래에는 조선신궁 및 국폐사(國幣社)의 니이나메제(新嘗祭)에 헌상하는 곡식의 경작자를 도내의 대표학교 및 독지가 중에서 다수 지정하여 이를 삼가 경작하게 하는 것은 본 제(祭)의 뜻을 철저히 하고 경신사상을

보급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점이 적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출전 : 劉鎮亨 參議 『第18回中樞院會議參議答申書』, 1937년〉

3) 참의 황종국(黃鍾國)

1. 심전개발 시설의 쇄신 진흥

현재 조선 민중의 생활은 물질 방면으로만 현저하고 편중된 발전을 해 온 경향이 있습니다. 건전한 정신이 존재하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물질계의 원만한 발전도 없고 서민 생활에 정신적인 위안이 되는 영혼의 안정이나 구제의 바탕이 되는 것도 없습니다. 이러한 때에 인심의 틈을 타고 세상을 어지럽히는 음사(淫祠)·사교(邪教)가 함부로 날뛰는 것이 이만저만 아니어서 통치상 여러 가지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그 예를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이와 같은 현재의 상황으로 미루어 보아 사회교화상 긴급을 요하는 것은 실로 민중의 심전을 개발하여 돌아갈 곳을 잃어버린 조선 민중에게 확고한 인생관을 수립시키고 안심명(安心立命)이라는 대반석(大盤石)의 부동심(不動心)을 가지고 생업을 즐기는 풍조에 이르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 방책으로는 먼저 국체관념의 명징을 도모하여 일본 정신의 배양에 힘쓰고, 국가에 대해 신앙적이고 열렬한 존경심과 애착심을 가지게 하며, 교육칙어를 받들어 일상생활의 규범으로 삼게 하는 것입니다.

또 반도 민중이 신앙과 종교를 가지지 않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황폐하고 나태하게 하는 한 원인이므로, 선량한 고유 신앙과 더불어 제사의 계배(啓培) 조성에 힘쓰고 현재의 여러 종교를 선도, 부활시키고 올바른 종교적 신념을 함양하여 고상한 종교적 정조를 가꾸어야 할 것입니다. 종교의 진흥에 관해서는 특정의 교의에 한정하여 조장하면 여러 가지 폐해를 초래하므로 우리의 국체와 국민성에 합치하는 여러 종교에 대해 단지 포교 측면에서 원조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좋다고 여겨지지만, 조선은 원래 불교가 홍통(弘通)한 곳이었음을 비추어 반도 재래의 불교 교리에 일본 불교의 정신을 가미하여 진지한 포교에 임한다면 위의 목적에 어느 정도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유교는 동양 도덕의 근원이며 조선의 풍교덕화(風教德化)의 근본이지만, 세속은 자칫하면 유학의 참 정신을 곡해하여 지엽적인 데에 사로잡혀 도리어 나쁜 폐해를 불러오는

사례가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경학원·명륜학원·향교 재산 등의 여러 시설을 적절하게 지도하여 각 도에 명륜학원을 설치하는 등 유도의 진흥, 확충을 도모하고 유학의 근본을 깊이 규명하며 지식을 계발하여 유교사상에 의한 민중교화를 도모하기 바랍니다.

2. 국어⁹⁾의 적극적 보급 장려

언어는 국민정신을 가장 절실하고 단적으로 표징하는 것으로서 일본어의 보급 없이는 일본 정신의 흡수, 음미, 체득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국체명징에 입각한 정신의 작흥도 바랄 수 없을 것입니다. 조선인과 일본인 사이의 오해나 작은 알력 같은 것도 대개는 언어 소통이 충분하지 않은 것에 기인하며, 내선일체라는 대국책을 완성하는 데에도 적지 않은 장애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조선에서는 일본어를 상용할 수 있는 자가 겨우 4퍼센트에 지나지 않는 것이 현재 상태이며 이는 참으로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대만에서의 일본어 보급 상황과 비교하면, 우리는 참으로 부끄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조금 번잡하고 지장이 있더라도 일본어 장려를 강행하여 내선일체라는 큰 이상의 달성에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본 건의 실시 방법으로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시설에 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1) 집무 중 관공리의 일본어 상용
- 2) 공사(公私)의 집회나 기타 일체의 회합에서의 일본어 상용
- 3) 학생의 일본어 상용
- 4) 조선어로 된 레코드를 점차적으로 줄이고 영화 자막 등도 일본어 상용을 하도록 명할 것
- 5) 철도 및 일반 운수기관, 그 밖에 공중에 접하는 자의 일본어 상용
(하략)

〈출전 : 黃鍾國 參議 『第18回中樞院會議參議答申書』, 1937년〉

4) 참의 신석린(申錫麟)

문화의 발달은 소위 날로 달로 끊임없이 진보하여 도회와 시골을 막론하고 고르게 문

9) 일본어를 뜻함.

명의 혜택을 받게 된 것은 정말로 기쁜 일이지만, 세상은 견잡을 수 없이 물질문명에 탐닉하여 개인주의, 공리주의, 그리고 모든 것을 타산적으로 생각하는 풍조의 세상이 되어 인심이 경박하게 흘러가고 있는 점은 참으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세상을 시정하여 바로잡는 것은 실로 현재의 급무인데 우선 그 대책으로는

1. 니노미야 손토쿠(二宮尊德) 선생의 보덕회(報德會)
2. 다카자키 마사카제(高崎正風) 선생의 일덕회(一德會)
3. 이울곡 선생의 향약

등과 같은 교풍회(矯風會)를 만들어 성현의 가르침에 근거하여 조선의 현재 상황에 맞는 조건을 연구하고, 그것을 경성을 중심으로 하여 각 도·군·부락에 설치하여 해당 관청이 직접 지도와 원조를 주관한다면 좋은 실적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울곡 선생의 향약과 같은 것은 종래 각처에서 시행되었기는 하지만 거의 유명무실하게 끝나 버려 이렇다 할 성과가 적었습니다. 그 때와 오늘날을 비교해 볼 때 그 당시에는 이러한 교풍기관에 그다지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지방도 지금에 와는 오늘의 세태를 우려한 나머지 어떤 형태로든 시설을 희망하는 시대가 되었으므로 이 기회에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은 교화 방법에 의해 한층 더 노력을 기울인다면 실적을 올리는 데에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조선인과 일본인의 정신적 통일을 강조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병합 이래 이미 20여 년이 지난 오늘날 아직도 조선인과 일본인 간의 자발적인 정신적 동화가 실제로 희박한 점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바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제반 제도를 통일, 종합하고 있으므로 이 기회에 조선인과 일본인의 정신적 통합을 도모하는 것은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 방법은 시세의 추이와 일의 경중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여기에 하나의 방책으로 소견을 이야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선인에게 경신(敬神)의 마음을 가르치고 신앙심을 진작시켜 신사에 봉찬(奉贊) 참배하는 감은봉사(感恩奉謝)의 지성적 신앙심을 일본인과 같은 정도로 진전시킬 것. 경신의 마음이 있으면 동시에 조상을 숭배하는 마음이 생기며, 경신숭조의 마음이 생기면 국체명정의 관념도 전면적으로 진전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경성신사의 예에 따라 각도 각지에 있는 신사에 조선 상고(上古)의 국혼대신(國魂大神)을 같이 모시면 조선인과 일본인의 신앙은 저절로 동일, 융합될 것입니다. 정성을 다하여 봉찬하고 참배하면 여기에 곧 조선인과 일본인 간의 정신은 신앙으로 하나가 되어 화합, 병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경성신사에는 이미 단군 신위를 합사

하였음에도 조선인들은 아직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많고 참배하는 사람이 아주 적습니다. 따라서 이를 일반에게 주지시키는 것이 긴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방법으로 경내에 혹은 사전(社殿)의 적당한 곳에 합사된 신위의 이름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어떤 신사에는 어떤 신이 합사되어 있는지를 일반인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택한다면 경신사상의 진작에 유효하리라고 생각합니다.

2. 경학원 성묘(聖廟)에 일본 고래의 성현, 위인의 신위를 합사하여 봄과 가을에 제례를 행하여 조선인과 일본인이 함께 참배해야 한다는 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는 내선융화에 참으로 적절한 최상의 방법으로 경축할 만한 일이고 하루빨리 실시할 것을 희망합니다.

3. 보통학교의 명칭을 소학교로 개칭하고 내선 아동을 공학시켜 어릴 때부터 내선의 친화와 화목을 도모하여 국민정신을 양성할 것. 내선 아동의 공학은 일본인 교사에게는 많은 불편과 곤란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국가의 백년대계를 생각할 때 일시적인 불편, 곤란은 견뎌내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4. 조선인과 일본인의 정식 결혼을 장려하여 상호 혈통을 상속시킴으로써 조선인과 일본인의 가족 성립을 도모할 것입니다.

5. 교화의 심연인 유교를 진흥하고 황당무계한 미신, 사교(邪教)를 엄격히 박멸할 것. 최근 발견된 이른바 백백교와 같은 괴 사건은 실로 신인(神人)이 모두 용서할 수 없고, 그 참화를 입은 다수의 정령(精靈)에 대하여 많은 눈물을 금할 수 없습니다. 생각건대 이러한 것들도 근래 유교가 퇴폐한 것이 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략)

〈출전 : 申錫麟 參議 『第18回中樞院會議參議答申書』, 1937년〉

5) 참의 최남선(崔南善)

1. 종래의 사회사업의 실재를 보면, 그 폐해는 개념적, 형식적이었다는 데에 있습니다.

대체로 시설의 본뜻이 실제의 집행자에게 철저히 못했고, 단지 사무적으로 이것을 처리하면 사업에 활기가 없어도 어쩔 수 없으며 심지어 보고서 자료의 작성과정과 같은 느낌을 주게 됩니다. 이는 어찌면 관설(官設)사업에 피할 수 없는 자연적인 추세, 경향일 지도 모릅니다. 이 폐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마땅히 기성의 범주와 획일적 체제로부터 벗어나 시의적절하게 전체적으로는 민도(民度), 지방적으로는 향풍(鄉風)에 입각한 개별적 적정책을 강구하고 그 위에 점차 민이 주도하고 관이 따라가는 형태로 진로를 바꾸어 일반 민중으로 하여금 관에 의해 강제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일로 여기는 자각과 긍지를 가지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2. 지금까지의 사회사업 시설 가운데 의료·보건, 특히 체질 향상에 관한 방면은 아직 등한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생각할 때 이 방면에 절실하고 심심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응급한 방법으로는 이동식 자혜의원(慈惠醫院)과 같은 기관을, 또 멀리 내다보는 방법으로는 상항성(常恆性) 있는 체력 증진 기관 등을 널리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민중의 정신향상 대책으로서 심전 개발, 정조 함양이 고창되는 것은 좋지만 구호의 높이에 비해 볼 만한 실적이 없고 오히려 선전으로 끝날 염려가 있습니다. 추상적이며 고답적 공론보다 구체적이며 실효적 사실을 새롭게 고려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아래의 사항은 가장 긴급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1) 심전 개발을 종교 선전의 다른 말이라고 이해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 본의가 아닌 것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성 종교의 포교는 오히려 종교인 각자의 노력, 분투에 달려 있지만, 당국으로서 다른 좋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일반인의 귀에 들어가기 쉽고 대중의 마음을 끌기 쉬운 심학도(心學道) 화풍(話風)의 강연 조직을 만들어 교화와 오락 양쪽 모두에 효용이 있게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날 조선 민중이 가장 희망하는 마음의 양식은 그러한 종류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2) 향촌 생활의 실체는 일반적으로 극히 메마르고 삭막 살풍경하며, 또 다수의 민중은 최저의 필수 지식조차 가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영화, 레코드를 위주로 하는 일종의 사회교육 조직을 만들어 대중오락과 성인교육을 섞어서 적절한 내용을 계속 조합하여 월 수회씩 널리 농촌 순회를 하거나 또는 취미와 실익이 담긴 평이한 서적을 작성하여 계속성 있게 시본문고(施本文庫)를 가능한 한 널리 또한 조밀(稠密)하게 유포

시키는 것 등은 민심 작흥과 농촌생활 명랑화에 현저한 성과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3) 민중의 신앙심에 적정한 지표를 부여하여 미황횡일(迷惶橫逸)의 폐해를 막을 필요가 있다는 점은 근래 들어 점점 더 그 긴급함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원래 신앙은 인간 내적인 문제이므로, 외적인 어느 특별한 종류의 이상 내지 주의에 의해 규율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연의 경향에 따라서 순화(醇化), 정화(淨化) 작용을 가하는 이상의 것은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조선의 신앙 문제는 전통적 신앙을 살려 좋은 방향으로 확충하여 나쁜 분자를 해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선인 본래의 영혼을 움직이지 않고 신앙 문제의 해결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조선 민중의 고유 신앙에 활기를 불어넣는 일은 사회사업의 중심축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략)

〈출전 : 崔南善 參議 『第18回中樞院會議參議答申書』, 1937년〉

6) 참의 유정수(柳正秀)

당국의 시정이 적절하여 수년 내 각 방면에서 민업(民業)의 발전이 현저한 것은 일반이 인정하는 바이지만, 교화사업에서만은 여전히 부진한 상태가 계속되어 그 강조실시 대책의 유효적절한 방책에 관하여 이번 회의에 자문이 있었다는 점은 본인도 대단히 감격해 마지않는 바입니다. 모든 일은 서둘러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고 습관이나 풍속도 오래된 것이면 쉽게 고치기 어렵기 때문에 모두 차츰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하 의견을 이야기하여 참고로 하는 데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조선 통치 이래 당국이 천황폐하의 일시동인의 성지(聖旨)를 받들어 여러 종류의 행정을 해왔던 점은 대단히 감사해 마지않는 바이지만, 일본이 유신 이후 장족의 발전을 한 점을 생각하여 이를 그대로 조선 반도에 일률적으로 실행하려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떨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예를 들면, 명의를 치료 방법도 병자의 체질, 강약 여하에 따라 다른 것과 같이 일본과 조선은 서로 민속이 달라서 일본에서는 예부터 열번(列藩)의 싸움의 기풍이 유전되어 그 고유한 본성인 장점을 취하는 취장(取長)의 기질이 왕성한 관계로, 서양문화의 일본 흡수에서도 기계 이용, 산업경제의 조직 개선, 각종 예술의 향상 등에 민중 스스로가 솔선하여 이를 학습함으로써 30여 년의 단기간에 국력이 현저히 융성하고 민업이 번영하고 제반의 문화시설이 구미열강을 능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러나 이에 반해 우리 조선은 자고로 쇠국보수주의에 집착하여 정치는 문약(文弱)으로 흐르고 상류사회의 인물은 단지 명교예의(名敎禮儀) 등 조그만 일에만 자만자고(自滿自高)하여 상공업, 예술 등은 천한 일이라 하여 경시하고 멸시하였으니 그러한 나라의 국력, 민력이 얼마나 쇠약할지는 누차 논할 것까지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하여 우리 조선에서는 합병 당시 일본의 시설을 참조하고 또 외세의 급변으로 인한 긴급행정으로서 철도 개통 공사가 착수되었지만 이 때문에 민중의 부역이 대단히 늘어나 폐농자가 속출하는 일마저 생기고, 또한 교육의 보급을 꾀하기 위하여 교사(敎舍)를 다수 신축하였기에 이로 인한 부담의 증가를 견디지 못하여 타 지방으로 이주하는 백성도 있었고, 산림령(山林令)의 발표로 자기 소유의 산림조차 자유롭게 벌채하는 일을 금지당했고, 묘지령(墓地令) 발표 후에는 역대 조상의 장지조차 자유롭게 이장할 수 없기에 이르는 등, 그 모든 것이 다 적절한 시책이었지만 급격한 개폐(改廢)는 일반 대중으로 하여금 일시적으로 매우 불안하고 불쾌한 느낌을 가지게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즉 장래의 원대한 이익보다도 눈앞의 불리함과 불편함을 한탄하는 것으로, 이상과 같은 일은 그 일례에 지나지 않으며 기타 크고 작은 각종의 시설도 급격한 개폐는 진심으로 심복할 수 없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르러 점차 그러한 일도 없고 누차 당국으로부터 발표된 유시(諭示)와 그 이외의 것을 체득하여 한편으로는 민중도 시세의 추이를 각성하고 당국의 행정에 한결같이 감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민력이 진흥하지 않는 것은 결국 민중 스스로가 진흥하는 실력이 결핍되었기 때문이니, 향후 후생이용에 관한 사업을 받는 것이 가장 긴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선 지방에서는 농산어촌의 진흥, 모범촌의 장려, 자작농의 창정(創定) 등 점차 효과를 나타내고 있고, 또한 본년도 계획의 조선 서북부 개척에서는 국유 미간척지 대역에 관련한 자작농의 창정이 있어 현재 준비 공작 중으로 거액의 투자가 있으며, 이와 같은 사업의 진전과 확장은 순차적으로 반도 민중의 갱생을 촉진하고 그 진흥을 도모하는 좋은 정책으로 감격해 마지않습니다. 그렇지만 오직 사회교화 사업만은 이에 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오늘날에도 대단히 부진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각기 그 업에 안주하고 자급자족의 길을 도모하게 함과 동시에 모름지기 이(利)로써 유도하고 인(仁)으로써 인솔하여 동화애국(同化愛國)의 마음이 스스로 발생하도록 교양, 지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략)

〈출전 : 柳正秀 參議 『第18回中樞院會議參議答申書』, 1937년〉

7) 참의 노영환(盧泳奐)

1. 강조와 실시를 요하는 사항

현재 조선의 사회교화 시설은 여러 방면에 걸쳐 다각적으로 실시되고 점차 그 효과를 거두고 있지만, 현재의 상태를 살펴보면 일부 상류계급은 차별 대우라고 하며 그 취지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고, 일부 지식계급은 한갓 외래사상에 들떠 현행 제도에 불만을 가지는 자도 있습니다. 일부 서민계급은 생활불안에 빠져 자포자기하고 규율 없는 생활에 안주하여 세계의 생존경쟁 선상에 당당하게 맞서 비상시국을 타개할 신념이 없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방치하면, 개인은 멸망하고 사회는 어지러워져 국가의 앞날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구제하여 사회의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은 여럿 있지만, 특히 조선의 현재 상태를 볼 때 먼저 민중으로 하여금 선량한 사상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심전 개발운동을 강조, 실시하여 신앙심을 고무하고 불만을 근절시켜서 민심이 귀추할 바를 열어 감사, 보은의 마음을 함양하게 하는 일은 비상시에 당면한 국민 훈련의 최대 긴급사라고 생각합니다.

2. 심전개발운동을 철저히 하기 위한 대책

1) 불교 방면에 의한 운동 방법

조선의 불교 전래는 일본보다도 빠르고 일반적으로 불교를 믿는 습관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특히 서민층에게 있어 그러합니다. 이조시대에는 배불숭유(排佛崇儒)의 정치가 행해져 불교 배척에 노력했지만, 상고로부터 민심에 깊게 뿌리박힌 사상을 완전히 근절할 수 없었고 지금도 예전과 다름없이 불교에 귀의하는 자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신앙 사상은 매우 유치하여 각자 화를 물리치고 복을 바라는 일종의 미신 같은 신앙에 다름없는 점은 유감스러운 바입니다. 이것은 신자의 무학에 기인하는 것이지만 승려들의 포교정신의 착오에 의한 것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조선 사찰의 승려들에게 적당한 교육을 실시하여 필수적인 지식을 익히게 하고 각 본말사(本末寺)에 배치시키는 제도를 만들어 다수의 신자에게 선량한 사상을 전파하면 사반공배(事半功培)¹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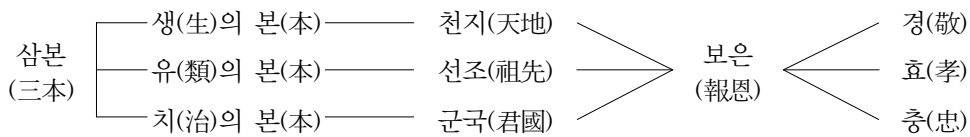
10) 노력은 적게 들어도 공적은 배가 됨.

2) 유교 방면에 의한 운동 방법

조선은 과거 이조 500년간 유교를 국교로 하였기 때문에 조선인의 공자, 맹자에 대한 숭배심은 실로 대단합니다. 최근에도 지방의 노유(老儒) 및 구명문 집안의 자제들은 각 군에 설치된 문묘(文廟)에 모여 옛 성인이 남긴 덕을 그리워하는 자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문묘의 직원을 예로부터 내려오는 관례에 따라 지방의 노유로 충당하고 있기 때문에 시대의 흐름을 살피는 것에 부족하고 국면을 달관하기에 부족하며 공자, 맹자의 서적과 말을 감상하고 읽기에 그쳐 공맹의 정신을 널리 포교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문묘가 사회 교화에 도움이 되는 일이 적습니다. 문묘에는 부수의 향교재산이 있어 상당한 비용 지출이 가능하니 인격이 우수하고 소양이 있는 선비로서 지덕 방면의 수양을 연마한 사람을 문묘 직원으로 초청하여 유림에게 선량한 사상을 포교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3) 일반에 대한 운동방법

조선에는 유불 어떤 것에도 속하지 않고 아무런 신앙의 대상도 없이 막연하게 신을 믿는 습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산신·수신(水神)·동신(洞神)·목신(木神)·농신(農神) 등 다양한 신을 믿는 고유의 신앙심이 있습니다. 이것을 선도하여 신앙심을 고취하면 양호한 효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국(國)·도(道)·면(面)의 재정으로 각 부락마다 신사를 세우고 관리자로는 부락 내의 유식자로 신앙심이 강한 사람이 이것을 맡게 하여 신앙심을 고무시키는 것과 함께 보은감사(報恩感謝)의 훈도(薰陶)를 실시하고 아울러 집합소를 부설하여 혼례·장례식의 장소도 되고 집회의 장소도 되도록 하여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보은감사의 주지를 설명하고 다음과 같은 표어를 걸어 사상의 선도에 노력한다면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4) 군(郡)에 시학(視學)을 두어 그 운동을 지도하는 방법

군에 시학을 두어 학사·종교·심전개발 사무를 전임하도록 하여 사회 교육으로 위의 3가지 운동방법을 지도함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철저히 수행시키는 것이 가장 효과가 있